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예술에의 초대

2006. **10** Vol. 178

www.bsculture.busan.kr

반갑습니다 _ 일본 강가도극단 연출가 시나가와 요시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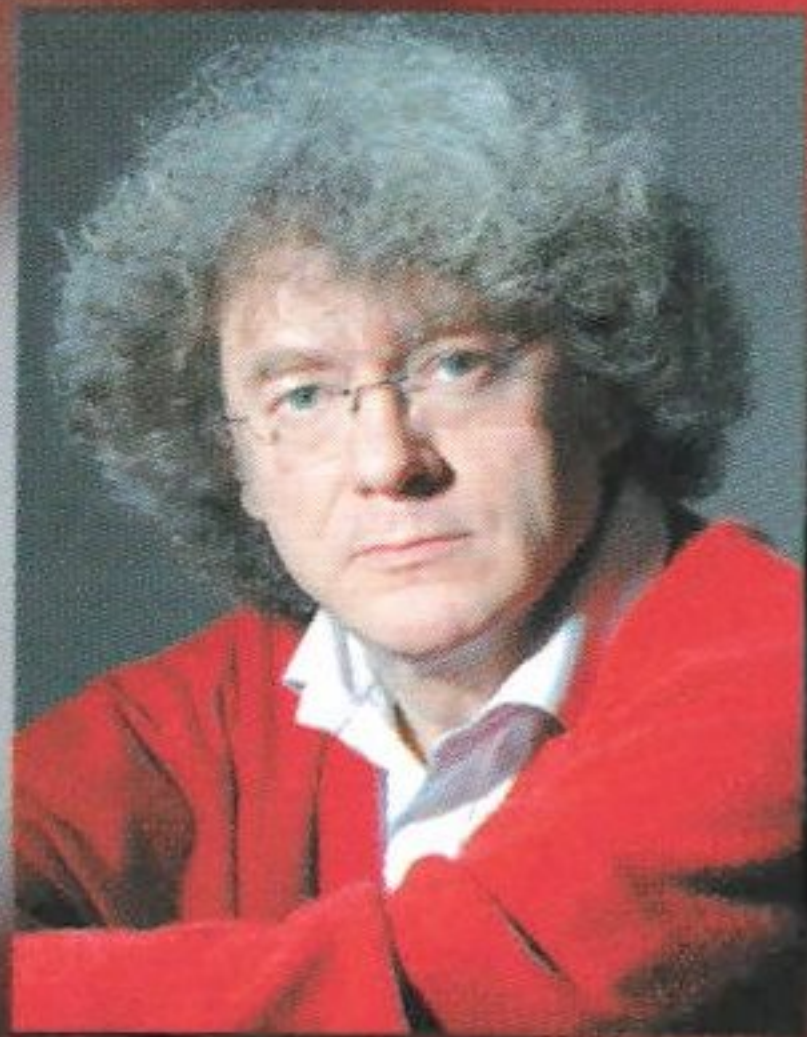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_ 바다의 사계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_ 세종대왕과 정간보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_ 나비의 영토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는 그림



지휘 ·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아노 · 김영호 피아노 · 윤철희

2006. 10. 20(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협찬 FORAD [주]포에드(중환자관리대행사)

■ 연주곡목

- 라벨 - 어미 거위
- 뿔랑 -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61
- 무소르그스키 - 전람회의 그림(라벨 편)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 부산광역시립교향악단 607-6101~4
- www.bsculture.busan.kr

■ 입장권 /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 청심꽃조경앞(대연지하철역 5번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 100M 지점) → 문화회관 ■ 출발시간 : 월~금 19:00

■ 예매처 / 부산은행 전지점
www.ticket365.co.kr

금 정 / 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 (부산대 앞 518-0686)
해운대 / 해운대약국 (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남포동 / 문우당서점 (버스정류소 앞 245-3843)
서 면 / 영광도서 (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골든 악기사 (부산예고 앞 512-4295)
비바체 클래식 (선프라자 1층 743-0003)
남포문고 (호림빌딩 1층 245-8911~3)
동보서적 (제일은행 옆 803-8000)

대연동 / 면학도서 (경성대 앞 623-9404)
하 단 / 향학서점 (동아대 입구 204-9381)
덕천동 / 대한도서 (덕천교차로 332-7339)

PRO MUSICA CHAMBER SOCIETY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창단연주회



| 창단 연주 멤버 |

김영희 백재진 신상준 김동욱 이은옥 백사론 문주연 엄세희 이성호
김가영 김은진 전명희 유대연 신혜정 이명진 박희철 노경원

Pro Musica의 조기예매 이벤트

10월 20일까지 조기 예매하시는 분들께
1+1의 혜택을 드립니다.

1+1이란? 한장의 티켓 구매로 두장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D. Shostakovich String Quartet No.8, in c minor, Op.110

쇼스타코비치 현악 4중주 작품 110

F. Schubert Piano Quintet in A major, D. 677 "Die Forelle"

슈베르트 피아노 5중주 작품 677 송어

W. A. Mozart String Quartet No. 21, in D major, K. 575 "Prussian"

모차르트 현악 4중주 작품 575 프러시안

F. Mendelssohn String Octet in E-flat major, Op.20

멘델스존 현악 8중주 작품 20

2006 | 11 | 4 | 토 | 오후 6: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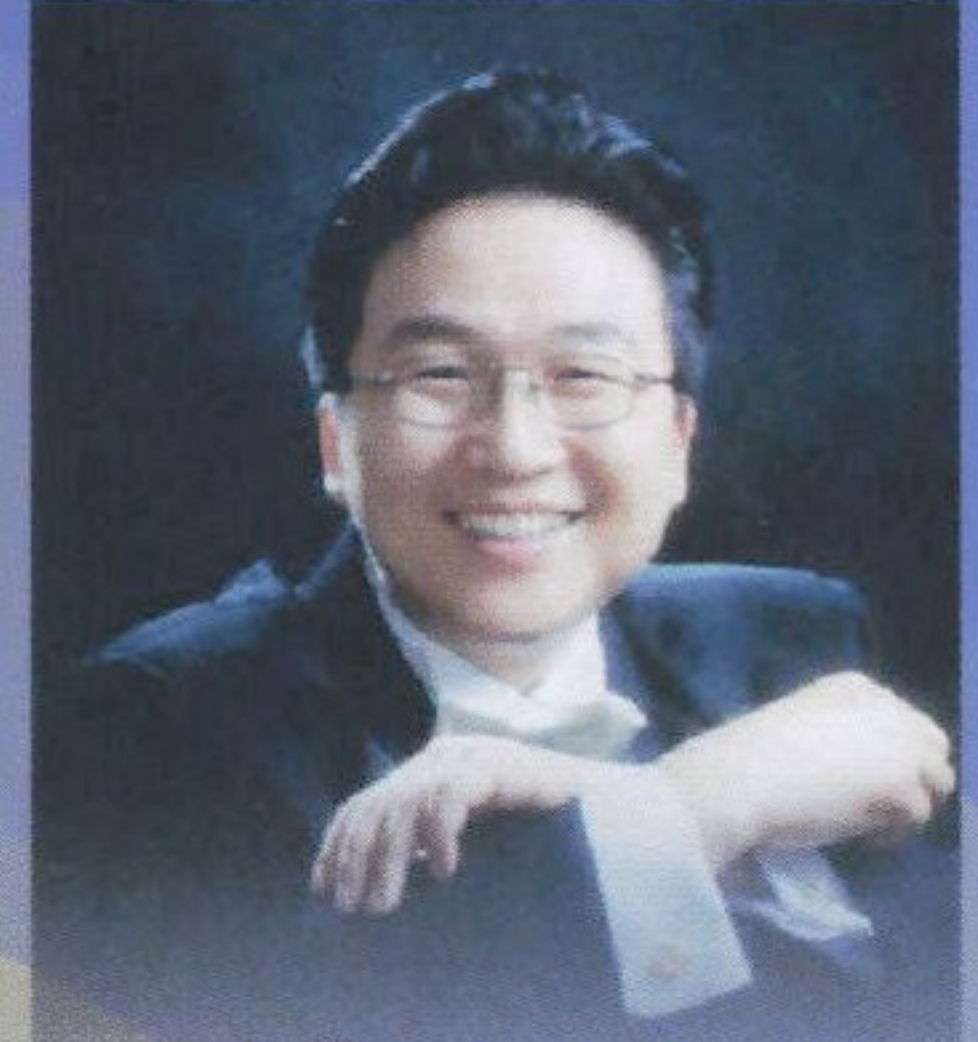
주 관 : 스트라디 현악사 후 원 : 주식회사 독일양행

회원권 : R-5만원, S-3만원, A-2만원 공연문의 : 클래식 프로인트 051) 521-5729



부산시립합창단
Busan City Chorus

제120회 정기연주회



지휘 : 김강규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이 세상의 모든 음악



클래식기타 : 고충진
첼로 : 김판수



PROGRAM

-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합창음악 · 강강술래 · 승무 · 신 상사소리
- 특별연주 (기타와 첼로)
- 호주와 중국의 합창음악
 - 세 곡의 호주 숲의 노래 (Three Australian Bush songs)
 - 새벽 (Dawn), 새 (Birds), 일몰 (Sunset)
 - 소하창수 · 용춤 · 신부맞이
- 원래 합창의 시작은 무반주 종교합창
 - 십자가에 달리심 (Crucifixus) · 영광스러운 노래 (Cantus gloriosus)
 -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Miserere Mei)
- 마무리 합창
 - 무지개를 넘어 (Over the rainbow)
 - 여름의 마지막 장미 (Tis the Last Rose of Summer)
 - 야베스의 기도 (Bless Me) · 이 작은 나의 빛 (True 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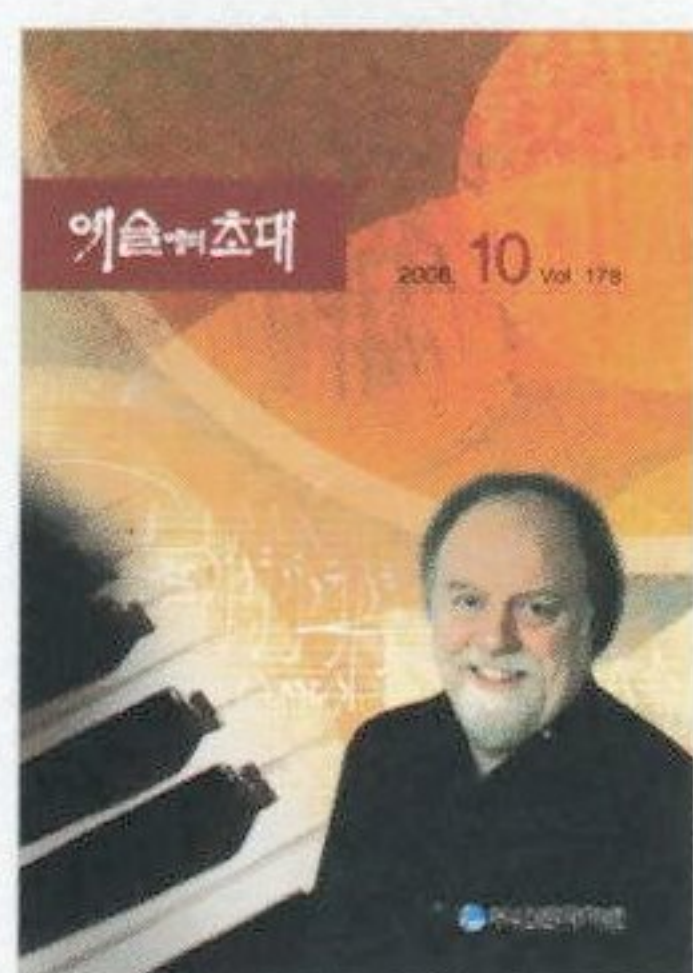
2006. 10. 17(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R석 10,000원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홍보부 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607-6126 www.bschorus.or.kr

Contents

2006 · 10

- 06 부산문화회관 10월 공연 일정
- 08 부산시민회관, 금정문화회관 10월 공연 일정
- 10 마음을 여는 글 | 박물관은 참된 세계인을 위한 마음의 고향 · 이인숙
- 12 반갑습니다 | 일본 동경 킨가도극단 연출가 시나가와 요시마사
- 14 작품 속의 부산 부산이야기 | 바다의 사계 · 신영순
- 18 어화둥둥 이야기 국악 | 세종대왕과 정간보 · 홍희철
- 20 김형술의 그림에세이 | 나비의 영토 · 김형술
- 22 부산, 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 가을입니다 · 김희진
- 24 연극속으로 | 도덕은 비교급? '도덕적 도둑' · 변미선
- 26 그곳에 가면 | 녹산 천연염색 체험학습장 '자연과 무지개'
- 28 우리는 문화 가족 |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
- 30 캠페인 1인 1기를 배웁시다 | 오카리나2 · 박종근
- 32 쉽게 듣는 클래식 | 오르간 · 광근수
- 33 이 사람 | 정정렬제 춘향가 판소리 완창무대 갖는 소리꾼 정선희
- 34 공연화제 | 제 11회 부산국제영화제
- 36 부산시립예술단 10월 공연관람 가이드
- 40 10월 프로그램 가이드
- 58 새로 나온 음반
- 59 새로 나온 책
- 60 객석에서 |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한 향기로운 하루 · 하성미
- 61 부산문화회관 소식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 64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안내



-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024 부산광역시 남구 문화회관길1(대연 4동 848-4번지)
TEL. 625-8130, FAX. 607-6204
- 발행인 조병규 | 편집인 공영훈 | 편집장 백경옥 · 발행일 2006년 9월 25일
- 인쇄처 부산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601-836 부산시 동구 초량 3동 1156-11번지)
TEL. 468-2468, 2757, FAX. 468-2515

※ 예술의 초대는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게 무료로 우송해드립니다.

■ 표지설명 : 오는 10월 13일 부산시립교향악단 협연자로 첫 부산연주회를 갖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자세한 공연안내는 <http://www.bsCulture.busan.kr>을 Click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부산문화회관 공연은 홈페이지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10

월 공연일정

전시실

■ 부경대학교, 호주대학교 교류 디자인전 - 대전시실

10월 2일(월)~10월 4일(수)(※전시오픈 2일 오후 6:00)

문의 전희석(010-4845-0379)

■ 제 6회 한국문인화대전 입상작 전시회-대 · 중전시실

10월 10일(화)~10월 13일(금)

문의 최인성(868-5236)

■ 제 10회 오륙도 축제기념 제 15회 남구문화예술회 합동 작품전시회-대전시실

10월 14일(토)~10월 18일(수)(※전시오픈 14일 오후 3:00)

문의 부산시 남구청(607-4062)

■ 제 4회 아시아 디자인대전-중전시실

10월 16일(월)~10월 18일(수)

문의 (사)부산시각디자인협회(805-8002, 016-833-9808, 011-862-8011, 016-552-9739)

■ BIEAF 2006 부산국제환경예술제-대 · 중전시실

10월 20일(금)~10월 26일(목)

• 전시부문 : 10월 20일-10월 26일

부산문화회관, 시민회관 외

• 공연부문 : 10월 20일 연극(시민회관)

10월 21일 음악(부산문화회관)

문의 환경문화연합(255-0887, 016-592-2685)

표 공연은 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로 예매하십시오. (안내 : 9쪽)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극장

MAIN THEATER

- | | | |
|----|-----|------------------------------------------------------------------------------------------|
| 1 | sun | 민병수 발레 30년 기념공연 19:30
균일 2만원/부산대학교(510-1740, 510-2947, 018-566-7136) |
| 2 | mon | 2006 부산발레연구회 정기공연 '발레... 또 다른 만남' 17:00
균일 1만5천원/김주목(011-570-4609) |
| 3 | tue | |
| 4 | wed | |
| 5 | thu | |
| 6 | fri | |
| 7 | sat | |
| 8 | sun | |
| 9 | mon | 테너 양승엽 귀국독창회 19:30
초대/양승엽(010-7767-4390) |
| 10 | tue | 2006 칸타빌레남성앙상블 10주년 기념 '베르디 리골렛토 갈라공연' 19:30 2만원 · 1만원/안상철(016-9302-5271) |
| 11 | wed | |
| 12 | thu | 아라미르합창단과 을숙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평화의 메세지 19:30 2만원 · 1만원/을숙도교향악단(203-2627) |
| 13 | fri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3회 정기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연주회'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
| 14 | sat | 양승원, 필립 그라핀, 드니스 파스칼의 한불트리오 콘서트 19:30 3만원 · 2만원/A&A(02-2187-6222) |
| 15 | sun | |
| 16 | mon | 2006 김복선 발레공연 19:30
3만원 · 2만원 · 1만원/신세정(011-9505-9907) |
| 17 | tue | 부산시립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이 세상의 모든 음악 II'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18 | wed | KBS부산무용콩쿠르 본선 14:00
KBS부산총국 편성제작팀(620-7326) |
| 19 | thu | 2006 경성대학교 음악학과 합창정기연주회 19:30
초대/경성대학교(620-4918) |
| 20 | fri |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는 그림' 19:30 1만원 · 7천원 · 5천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
| 21 | sat | 바리톤 김동규 리사이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공연기획 예성(248-2011) |
| 22 | sun | 리처드 용재 오닐의 'Lachrymae(눈물)' 18:00
5만원 · 3만원 · 2만원/공연라이프(626-9494) |
| 23 | mon | 부산시 구군연합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차순남(625-3137, 018-577-3137) |
| 24 | tue |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19:30
8만원 · 5만원 · 3만원/공연기획 예성(248-2011) |
| 25 | wed | 제 20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26 | thu | 제 20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27 | fri | 제 20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28 | sat | 제 20회 부산합창제 19:30
균일 3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6126) |
| 29 | sun | |
| 30 | mon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손욱(011-9520-4649) |
| 31 | tue |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30
7만원 · 5만원 · 3만원 · 2만원/손욱(011-9520-4649) |

중극장

MEDIUM THEATER

- 1 sun 윤태준 바순독주회 17:00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 mon 피아니스트 최지원 귀국 독주회 19:30
1만원 · 5천원/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 3 tue 하예라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하예라(744-1895, 010-6276-1895)
- 4 wed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강남길 피아노 독주회 19:30
1만원 · 5천원/강남길(959-2911, 011-240-1911)
- 10 tue 제 20회 소프라노 김문희 독창회 19:30
초대/김문희(510-2910, 011-875-2910)
- 11 wed KBS부산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총국 편성제작팀(620-7326)
- 12 thu
- 13 fri 2006 뮤지컬 락햄릿 20:00
4만4천원 · 3만3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14 sat 2006 뮤지컬 락햄릿 16:00, 19:00
4만4천원 · 3만3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15 sun 2006 뮤지컬 락햄릿 15:00, 18:00
4만4천원 · 3만3천원/레드슬리퍼(622-3496)
- 16 mon 김가영 비올라 독주회 19:30
초대/김가영(011-9707-3087)
- 17 tue 독일가곡연구회 제 30회 정기연주회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연주회' 19:30 1만원 · 5천원/김현식(011-566-4172)
- 18 wed
- 19 thu 제 24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특별 연주회 II' 19:30 1만원 · 5천원/오동주(017-556-5058)
- 20 fri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0회 청소년협연의 밤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균일 2천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 21 sat 2006 부산국제환경예술제 19:00
환경문화연합(255-0887, 016-592-2685)
- 22 sun 박윤정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박윤정(704-2973, 010-9878-1973)
- 23 mon 부산 피아노 듀오협회 제 32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24 tue 부산 피아노 듀오협회 제 32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음악회' 19:30 균일 1만원/서숙지(018-563-6692)
- 25 wed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19:30
초대/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
- 26 thu 제 3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재독 피아니스트 이미주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청 소년교향악단 제 24회 정기연주회 19:30 균일 2천원/청소년교향악단(607-6109)
- 27 fri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19:30
균일 1만원/최성규(011-564-3439), 클래식아트매니저(817-8002)
- 28 sat 창단 20주년 기념 어울림국악연구회 제 13회 정기연주회 19:00 초대/어울림국악연구회(019-548-5418)
- 29 sun 목련합창단 창단 27주년 기념 가족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19:30 초대/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 30 mon 한국가곡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창작가곡의 밤' 19:30
균일 1만원/김동윤(011-875-3502)
- 31 tue 소프라노 서정아 독창회 19:30
초대/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소극장

SMALL THEATER

- 1 sun
- 2 mon 해설이 있는 거문고 독주회 19:30
초대/홍희철(016-510-0753)
- 3 tue
- 4 wed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 10 tue 신정운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코리아트Ent(621-3882, 02-3775-3880)
- 11 wed 금찬이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00
무료/금찬이(404-6424, 016-850-6424)
- 12 thu 한은아 피아노 클래스 연주회 19:30
무료/최미애(010-9764-0950)
- 13 fri
- 14 sat **토요상설무대-낙동민속보존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15 sun 향기 오카리나 앙상블 정기연주회 18:00
무료/이정미(515-0528, 010-4731-5415)
- 16 mon
- 17 tue
- 18 wed
- 19 thu 문현영 첼로클래스연주회 19:30
초대/문현영(016-871-9407)
- 20 fri
- 21 sat **토요상설무대-부산 색소폰콰이어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2 sun 정악산조 10:00, 14:00
초대/성기만(011-876-6884)
- 23 mon
- 24 tue
- 25 wed
- 26 thu 이은영 피아노 독주회 19:30
초대/이은영(010-5592-0795)
- 27 fri 정선희 판소리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 17:00
초대/정선희(016-544-3169)
- 28 sat **토요상설무대-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16:00**
무료/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29 sun 제 6회 오카리나 마을 정기연주회 18:00
무료/심영준(016-687-0277)
- 30 mon 이문희 가야금독주회 19:30
초대/이문희(011-560-1650)
- 31 tue 제 11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19:30
초대/이정은(011-9511-7842)

부산시내 기타공연 10월 달력

부산시민회관

문의 : 시민회관(630-5200)

- 1 sun 제 4회 부산오카리나클럽 정기연주회 19:00 -소극장
무료/김청수(010-3930-2755)
- 2 mon 월요일영화 '한반도'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3 tue 월요일영화 '한반도' 14:00, 17: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4 wed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 10 tue
- 11 wed
- 12 thu
- 13 fri 제 17회 색동가을소리 정기공연 '자라장군과 피많은 토끼'
10:30, 11:3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허은정(010-5513-2436)
- 14 sat 뮤지컬 '이(爾)' 16:00, 19:3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자라장군과 피많은 토끼 11:00, 14:00, 16:00 -소극장
- 15 sun 뮤지컬 '이(爾)' 15:00, 18: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자라장군과 피많은 토끼 11:00, 14:00, 16:00 -소극장
- 16 mon 월요일영화 '일본침몰'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17 tue 한낮의 休 콘서트 11:00 -대극장
균일 1만원/시민회관(630-5200)
- 18 wed 제 7회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9:30 -대극장
4만원 · 3만원 · 2만원/영앤임섬(02-543-1601)
- 19 thu 뮤지컬 '브레멘 난타 음악대' 10:00, 11:20 -소극장
균일 8천원/심인뮤지컬컴퍼니(031-499-6658)
- 20 fri 2006 BIEAF 부산국제환경예술제 18:00 -소극장
환경문화연합(255-0887, 016-592-2685)
- 21 sat 김홍철과 떠나는 요들송의 세계 15:00, 18:00 -대극장 시민회관(630-5200)
어린이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12:00, 14:00, 16:00 -소극장
- 22 sun 어린이뮤지컬 '벌거벗은 임금님' 12:00, 14:00, 16:00 -소극장
균일 1만2천원/매직기획(010-3004-5042)
- 23 mon 월요일영화 '연애,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24 tue
- 25 wed
- 26 thu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 내한공연 19:30 -대극장
7만원 · 6만원 · 4만원 · 3만원/SPA엔터테인먼트(744-3588)
- 27 fri
- 28 sat 창작뮤지컬 '갯바위' 19:3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정광진(053-427-7123)
- 29 sun 창작뮤지컬 '갯바위' 15:30, 19:30 -대극장
5만원 · 4만원 · 3만원/정광진(053-427-7123)
- 30 mon 월요일영화 '천하장사 마돈나' 14:00, 19:30 -대극장
3천원 · 2천원 · 1천원/시민회관(630-5200)
- 31 tue

금정문화회관

문의 : 금정문화회관(519-5651~2)

- 1 sun 오페라 '꼬마청소부 구출작전' 17:00 -소공연장 금정구청(519-4068)
금정연극제 '삼류배우' 16:00 -소공연장 금정구청(519-4068)
- 2 mon
- 3 tue
- 4 wed 금정수요음악회 '차세대 비르투오조들의 향연'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5 thu
- 6 fri
- 7 sat
- 8 sun
- 9 mon 황보미영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황보미영(019-528-8219)
- 10 tue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프로인트(521-5729)
- 11 wed 금정수요음악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아마추어 솔리스트 무대'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12 thu 박은화 현대춤 공연 20:00 -대공연장 박은화(011-850-2173)
11시 브런치 콘서트 11:00 -소공연장 홍성택(011-846-5991)
- 13 fri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 기념연주회 19:30 -대공연장 박혜선(011-842-6048)
이정화의 춤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이정화(011-9267-9139)
- 14 sat 아지무스 오페라단 제 4회 아카데미 콘서트 15:00, 19:00
-소공연장 무료/아지무스오페라단(011-9520-4649)
- 15 sun
- 16 mon 신성희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초대/신성희(011-9231-3987)
- 17 tue
- 18 wed 금정수요음악회 '남순천, 엄남이의 가을 풍경'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19 thu 제 10회 예음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이구일(754-2291)
김선영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20 fri HcaB 듀오 리사이틀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김승환(011-9028-0515)
- 21 sat 5인 음악회 15:30, 19:00 -대공연장 오페라단 가야(747-6139)
영어뮤지컬 'Mr. Wolf & One Little Pig' 12:00, 14:00, 16:00 -소공연장
- 22 sun 어린이 영어뮤지컬 'Mr. Wolf & One Little Pig' 12:00,
14:00, 16:00 -소공연장 균일 1만5천원/DUBU기획(02-2654-6854)
- 23 mon 나광자 피아노 독주회 19:30 -대공연장
2만원 · 1만원/프로인트(521-5729)
- 24 tue 이상창 플루트 독주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이상창(010-9986-1225)
- 25 wed 금정수요음악회 '테너 정거화 독창회' 19:30 -소공연장
1만원 · 5천원/금정문화회관(519-5651~2)
- 26 thu 부산누리타악기 교사연구회 창단연주회 19:00 -대공연장 이동철(010-3044-0495)
김진연 첼로 독주회 19:30 -소공연장 예술기획(0505-700-9798)
- 27 fri 변향숙 귀국 독창회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28 sat
- 29 sun
- 30 mon 부산신포니에타 유망신예 협주곡의 밤 19:30 -대공연장
초대/예술기획(0505-700-9798)
- 31 tue 부산남성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19:30 -대공연장 조순식(011-562-8285)
권성은 오보에 독주회 19:30 -소공연장 권성은(017-879-7788)

❖ 예술단 정기회원이 할인예매할 수 있는 공연

장 소	일 시	공 연 명	관 람 료	할 인	문 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0/21(토) 19:30	바리톤 김동규 리사이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10%	공연기획 예성 (248-2011)
	10/22(일) 18:00	리처드 용재 오닐의 'Lachrymae 눈물'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	10%	공연라이프 (626-9494)
	10/24(화) 19:30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10%	공연기획 예성 (248-2011)
	11/28(화) 19:30	장한나 첼로소나타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30%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0/13(금) 20:00 10/14(토) 16:00, 19:00 10/15(일) 15:00, 18:00	2006 뮤지컬 락 햄릿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10%	레드슬리퍼 (622-3496)
시민회관 대극장	10/14(토) 16:00, 19:30 10/15(일) 15:00, 18:00	'왕의 남자' 원작뮤지컬 이(爾)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A석 25,000원	10%	시민회관 (630-5200)
	10/21(토) 15:00, 18:00	김홍철과 떠나는 요들송의 세계	1층 15,000원 · 2층 10,000원	20%	
	10/26(목) 19:30	파리나무십자가소년합창단 특별 내한공연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10%	SPA엔터테인먼트 (744-3588)
KBS부산홀	10/22(일) 15:00, 19:30	이승철 부산콘서트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R석 60,000원 S석 50,000원	소리엔터테인먼트 (755-4545)
	10/29(일) 16:00, 19:00	2006 옷찾사 콘서트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10%	JKP엔터테인먼트 (1544-1410)
	11/2(목) 19:30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앵콜공연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20%	부산아트매니지먼트 (747-1536)
가톨릭센터 소극장	10/21(토) 19:30	2006 블랙홀 부산공연	균일 30,000원	균일 20,000원	락매니아 (637-9098)

예 / 매 / 창 / 구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

예 / 매 / 방 / 법

직접 또는 전화 신청

예 / 금 / 계 / 좌

부산은행 036-01-034848-7
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립예술단 지정 예매처

- 부산은행 전 지점, 티켓 365(www.ticket365.co.kr) · 중구/남포문고(245-8911), 문우당서점(245-3843)
- 부산진구/동보서적(서면 제일은행 옆 803-8000), 영광도서(롯데백화점 건너편 816-9500)
- 금정구/신나라레코드 부산대점(부산대 앞 518-0686), 골든악기사(부산예고 앞 512-4295)
- 남구/면학도서(경성대 앞 623-9404) · 해운대구/해운대약국(해운대시장 입구 752-0100), 비바체 클래식(선프라자 1층 743-0003)
- 사하구/향학서점(동아대 하단 캠퍼스 앞 203-9381)



선택은 한번, 감동은 영원히...

야마하 공식 A/S점

가족처럼 늘 가까이 야마하가 함께 합니다

부산 야마하 피아노 악기

· 양정 본점 : 051) 863-0900
 · 롯데백화점 부산점 6층 : 051) 816-0089
 · 사직동 홈플러스 : 051) 506-7332



박물관은 참된 세계인을 위한 마음의 고향

이인숙 · 부산박물관장

이제 문화와 예술은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의 전당인 박물관은 문화의 제너레이터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은 문화나 박물관에 대한 관심에 앞서,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과학과 기술상의 엄청난 발전이 우리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변모시키고 급속도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더욱 마음이 쓰이기도 합니다.

정보 통신 과학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하여 온갖 개혁이 도래하고 있으며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문법 체계로 모든 것이 재편되어 가고 있는, 산업 혁명보다도 더 한 그야말로 정보 혁명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시대가 되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예측마저 어렵습니다. 정보와 통신기술, 유전자와 생명 과학의 발달은 전 지구를 순간적 넷 워킹으로 연결 짓고 사이버 시대니 유비쿼터스 시대니 하면서 신기술이 무한정 개발, 도입되고 있으며 인간 생명 복제도 이미 실현 단계에 접어든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미처 인간의 사고가 감당 못할 정도로 밀어닥친 급격하고 다양한 물질적 변화를 정신적인 것이 따라 가기가 벅찬 듯 보입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모든 물리적 변혁에는 인간성을 기반으로 한 해석과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과학과 기술상의 상상을 초월하는 개발과 혁신은 더욱 절실하게 우리에게 인문학적 사고로의 전환과 그 필요성을 강조하게끔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천년기를 맞이하면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 삶의 모든 분야에서 눈에 보이는 기존 질서와 경계(벽)는 점차 허물어지고, 쪼개지고 섞이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질서가 생성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그 무엇이 확고히 자리 잡기까지는 혼돈이 초래되는 법 - 우리는 지금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락한 편안함을 누리기보다는 의구심과 불안을 더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더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고전을 찾게 되고, 노자 사상이니 웰빙 라이프니 하여 자연 친화적 생태 환경을 중시하고, 종종 마음의 안식처를 찾아 문화, 예술이 화두가 되기도 하며 윤리, 종교 등 보다 다양한 인간과 자연에 대한 주제가 광범위하게 대두되는 것을 봅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산업 생산의 시대가 가고 문화 생산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파는 사업이 아니라 다양하고 광범위한 문화적 체험을 파는 사업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이에 박물관과 같은 문화 기구는 과거,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 산업의 창의적 문화 콘텐츠와 독창적 문화 상품을 개발해 내고, 모름지기 문화교류와 문화소통의 마당을 마련하는 장소로 활용되어야 하겠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알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비전을 주고자 우리 박물관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연구하여 소통(Communicate)하고 있습니다.

요즈음과 같은 시기에는 시대를 사는 정신이 꼭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 사회적 리더에게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문적 통찰력을 겸비한 올바른 비전으로 시대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기술의 발달로 누리게 된 온갖 안락함 속에도 인간답게 사는 바른 정신이 우선 제시 되어야겠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계인으로서 가장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새 기술이나 물질적인 것의 습득에 앞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세계 공통의 윤리를 지니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진정한 세계화로의 필수적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참된 가치관은 세계인으로서의 예의, 도덕, 범절(Courtesy)과 상식이 먼저 갖추어지면서 달성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창의적 문화상품의 생산 기지이며, 또한 보편적 인간 삶의 기본 소양을 몸에 뉘 수 있도록 아이나 어른이나 학생이나 학자나 여러모로 몸소 경험하고, 즐기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자나 이용자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 마음이 되돌아가는 고향이라 하겠으며, 참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기르고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박물관인으로서의 사명과 의무감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킱가도 극단

연출가 시나가와 요시마사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부산시립극단 단원들이 언어의 장벽을 넘어 작품에 몰입하고 있어 보기 좋습니다.”

부산시립극단이 창단이후 처음으로 일본 킱가도 극단과 함께 공동 제작한 ‘고래섬’이 오랜 준비 끝에 9월 21일 막이 올랐다.

부산시립극단 손기룡 수석 연출가와 함께 ‘고래섬’ 공동연출을 맡은 킱가도 극단의 연출가 시나가와 요시마사씨. 지난 8월 30일부터 부산에 머무르면서 배우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는 시나가와 요시마사씨는 무대 위에서 부산의 여름과 가을을 함께 즐기고 있다.

프로듀스형식의 연극기획집단인

‘동경 킱가도’ 극단의 대표로 각본, 연출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는 일본에서 ‘사회적인 테마를 중심으로 한 원대한 스토리로 인간의 이성과 광기의 사이를 미묘한 균형감각으로 그려낸다’는 높은 평가를 얻고 있다. 2004년에는 그의 대표작 ‘KAZUKI~여기는 나의 지구’로 뉴욕, 로스엔젤레스 등에서 공연했다. 무대 이외에는 영화, TV, 라디오 등의 드라마 각본에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나가와 요시마사씨는 2003년 ‘21세기 일본 아시아 교류페스티벌’ 야외음악 콘서트를 연출, 3,500명의 관객을 동원한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시나가와 요시마사는 평소 아시아, 특히 한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오면서 우리나라의 극단과 공동 작업을 해왔다. 부산시립극단 ‘고래섬’은 한국극단과 세 번째 작업이다.

한국 연극과의 인연은 2001년 일본극단 스바루와 한국극단 미추가 가진 합동공연에서 극단 스

바루의 의뢰로 '히바카리-400백년의 초상'의 희곡을 쓰면서 시작되었다. 강제로 에도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과거와 현재 후손이 겪어야 하는 문제를 다룬 이 작품은 손진책과 무라다(村田元史)의 공동 연출로 한국과 일본에서 공연되었다. '히바카리-400백년의 초상'은 당시 한·일 양국의 연극문화교류의 희망을 안겨준 작품이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작품은 시나가와 요시마사씨에게도 제 46회 키시다 희곡상의 최종후보작으로 노미네이트되는 영광을 안겨준 잇을 수 없는 작품이다.



부산시립극단 제 27회 정기공연 작품 '고래섬'은 10월 일본 5개 도시 공연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는 서울시극단과 동경김가도가 공동제작한

'침묵의 해협'을 공동집필하고 공동연출 작업을 했다. '침묵의 해협'은 일제시대 징용으로 끌려가 잃어버린 6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을 끝내고 숨을 거둔 조선인 학도병 김동진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평소 한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영상이나 책 등을 보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런 공동 작업 과정을 통해 한국을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어 작업에 즐거움이 크다. 일본은 연기자나 스텝 모두 섬세한 반면 한국은 다이나믹하고 감각적이다. 공동 제작의 경우 그러한 장단점을 인정하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작품 '고래섬'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연출적으로 보면 춤, 노래 등이 있어서 움직임이 많은 연극으로 결코 어려운 작품이 아니라는 시나가와 요시마사는 어른, 어린이가 함께 볼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이 될 것이라며 자랑이 대단하다.

고래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산시민들의 반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는 부산공연이 끝나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부산공연에 이어 9월 28일부터 서울공연이 계획되어 있고 10월에는 일본 5개 도시 공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연출자로서 어깨가 무겁다.

“한국과 일본의 관객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한국 관객들에게도 고래섬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부산시립극단이 선보인 여느 작품과는 다른 새로운 작업이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당장은 계획된 작품이 없지만 '고래섬' 이후에도 계속 한국극단과 작업을 하고 싶다는 시나가와 요시마사씨.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양국의 문화교류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고집스런 작업에 기대가 크다.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전국창작관현악축제를 위한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바다의 사계'

신영순 · 글로벌콘서바토리 학장, 음악학박사

도무지 실감나지 않지만 내년이면 벌써 환갑을 맞는다. 60년을 회고해 보면 참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 시절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 서울에서 살았다. 다시 부산 경남여중에 입학하여 중학시절을 보내고 또다시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다. 그 즈음 나는 서울음대 작곡과에 들어가기 위해 몰래 레슨을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집안 식구들이 알게 되어 곤란을 겪기도 했다. 판따라들이 하는 음악도 대학 공부라 할 수 있느냐는 핀잔을 받는 시절이었기에, 그리고 당시 나에게 학비를 대 주실 분

의 마인드가 음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어서 음악을 잠시 접기로 하였다. 그분의 뜻을 따라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한 것이 내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는 동기가 되었으니 어쩌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는 위로를 삼는다.

10년 동안 약사로 일하면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음악가의 길을 가도록 헌신적으로 밀어준 아마추어 색소포니스트인 남편이 있었기에 오늘날 부산을 노래하는 작품을 작곡하고, 부산의 무형문화재를 연구하게 되었고, 또한 부산의 춤꾼들을 위해 작품을 쓰며 부산의 음악가들을 위한 전문 음향홀을 짓고 음악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기까지 한 것이다. 아들 딸 모두 서울대학교에 보내고 열심히 부산, 서울을 오르락내리락 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고 꼭 서울에서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부산에 정착하여 부산사람으로 살아가야하는 숙명적인 현실을 실감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내 작품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산의 산 바다, 역사를 담게 된다. 많은 작품 중에서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공식 문화축전 총체무극 '허황후'는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 허황후는 33곡으로 구성된 춤과 소리의 총체무극으로 부산 근교 김해 가락국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부산을 무대로 한 작품 중에서는 가장 최근 작품인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바다의 사계'이다.

지난해 11월 오랜 준비 끝에 모든 음악인들이 소망하는 국제수준의 연주홀 녹음홀 '글로벌아트홀'을 개관하고 1년간 쉬없이 활동해왔다. 모든 음악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마이크가 필요없는 어쿠스틱 전문음향홀 '글로벌아트홀'의 음향적인 성공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다. 섬세한 악기의 피아니시모까지 아름다운 음향으로 살아나는 홀, 대가는 더욱 대가로 만들어 주는 풍부한 음향홀이라고 감탄하는 분들이 많다. 필자는 이 홀로 인해 부산예술상을 수상하게 되었지만, 정작 몸과 마음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 죽게 될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때 다시 필자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어준 계기가 있었으니, 9월 27일부터 시작되는 부산전국창작관현악축제 2006에 연주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작품 위촉, 즉 서양악기와 국악관현악단을 위한 작품에 대한 주문이다. 서양음악과 국악을 다 전공한 필자에게 이러한 편성의 곡 위촉은 필자를 매우 힘나게 하는 일이다.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바다의 사계'

대중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감성을 지니고 있는 색소폰을 솔로악기로 하고, 국악합주의 섬세함과 힘찬 역동성을 표현하고자 한 협주곡풍 표제음악,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산의 바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사계절의 모습을 세 개의 악장으로 구성하였다.

1악장 대망과 환희 Moderato 중중모리

2악장 젊음과 격동 Allegretto-Allegro Vivace 자진모리 엇모리 휘모리



색소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바다의 사계'는 부산전국창작국악관현악축제 2006에서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초연된다.

3악장 관조와 묵상 Andantino-Adagio
중모리 진양

긴 겨울밤을 지내고 소리없이 다가오는
대망과 환희의 봄 바다,

강렬한 태양아래 젊음이 춤추고 격동하
며 노도질풍 포효하는 여름 바다,

흠뻑 들떠있는 자신을 가리았히며 관조와
묵상의 세계로 몰입하는 가을 겨울 바다

(악기편성: 색소폰, 소금, 대금, 피리, 훈, 25현금 거문고, 해금, 아쟁, 장고, 팽과리, 북, 징, 대북, 공, 모듬 북, 편경, 편종)

음악을 사랑하는 평범한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글로벌아트홀 건립을 위해 애써 준 남편 백정희, 오늘날 나를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온 사람이기에 그가 평소에 즐겨 부르는 색소폰을 국악관현악과 협주곡의 솔로악기로 선택해야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일어나 협연할 악기를 색소폰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서양 솔로악기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만들어진 작곡자의 작품으로 이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서 위촉하였던 바이올린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제 1번, 클라리넷과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첼로와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외에도 바이올린 협주곡 제 2번, 피리와 서양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을 비롯한 여러 곡이 이미 발표된 바 있고, 부산 서울 대구 등 전국 여러 도시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연주되고 있다.

바다가 있는 곳, 산이 있는 곳, 나의 작품세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부산이 좋다. 더구나 내가 살고 있는 온천동은 금강공원이 지척에 있어 요즘은 거의 매일 아침 금강공원을 찾는다. 심호흡과 간단한 운동을 하고 작품에 대한 구상도 한다. 20대의 체력관리는 20년 가고, 30~40대의 체력관리는 10년 가고, 50대의 체력관리는 현상 유지라고 들었다. 아직은 50대이니 최소한 현상유지 체력관리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동, 서양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음악 열어온

작곡가 신영순



작곡가 신영순(59)은 일복이 많다. 내년이면 어느새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아 잠시도 쉴 틈이 없다.

지난해는 평생 꿈꾸던 국제수준의 연주홀, 녹음홀인 '글로벌아트홀'을 개관하면서 더욱 바빠졌다. 신영순씨는 최고의 홀을 만들기 위해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많은 홀을 거의 다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동안 정상급 연주자들이 많이 찾아와 연주회를 가진데 이어 최근에는 타임지 100대 인물에 선정된 가수 '비'가 일본에서 발매되는 음반을 위해 녹음을 하였고 울산공대 음향연구팀이 찾아와서 디지털악기 제작을 위

한 태평소 녹음을 마쳤다.

“녹음을 하고 간 뒤에서야 그 사람이 비였다는 걸 알았지요. 한번 연주를 한 사람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나면서 비 소속사 박진영엔터테인먼트에서 직접 우리홀로 찾아왔습니다. 부산에 이런 녹음시설이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습니다.”

글로벌아트홀은 계산이 앞섰다면 분명 탄생될 수 없었던 공간이다. 부끄럽지 않은 홀을 만들고 싶은 평생의 꿈을 이룬 신영순씨는 이제 좋은 홀에서 좋은 연주자를 키워낸다는 또 다른 목표를 세웠다.

“외국의 경우는 작지만 음향이 좋아 유명해진 홀이 많습니다. 작지만 양보다 질을 살릴 수 있는 음악회를 꾸준히 기획하면서 좋은 홀에서 훌륭한 연주자들을 키워보고 싶습니다.”

신영순씨가 학장으로 있는 글로벌콘서바토리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원이 협력기관으로 선정되어 있어 정상급 교수들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글로벌콘서바토리 학장, 미네소타신학대학원 음악과 교수로 바쁜 중에도 작곡가로 창작 작업을 게을리 할 수 없다. 글로벌콘서바토리에서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 그의 든든한 후원자인 남편을 생각하며 최근 국악관현악단과 색소폰의 선율이 어우러지는 '바다의 사계'를 작곡했다. 요즘은 10월 28일 공연을 앞두고 있는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안데르스로부터 위촉받은 기타연주곡을 구상하고 있다.

세종대왕과 정간보

홍희철 ·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외래교수

우리나라에는 정간보(井間譜)라는 악보가 있다. 원고지같이 네모난 칸이 줄지어 있고 그 칸 안에 음의 길이와 높낮이가 한자(漢字)로 적혀있는데 동양최초의 유량악보다.

언젠가 정간보를 펴고 단소를 부는데 서양음악 작곡을 전공한 선생님이 이 정간보를 보시더니 “국악은 악기를 배우기전에 한자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너무 어렵게 생긴 악보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오선보(五線譜)만 보고 자란 사람이 이 땅에서 수 백년간 전해 내려오던 정간보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정간보는 초등학교 4,5학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는 악보입니다. 아니, 안 가르쳐서 그렇지 유치원에서 가르쳐도 되는 악보가 정간보입니다...”

정간보가 쉬운 악보라는 설명에 짐짓 놀라는 눈치다. 온통 한자로 적혀있어 어렵고 복잡하게만 보이던 악보를 초 등학생들도 쉽게 본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모양이다.

정간보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악보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5개 정도의 한자(漢字)만 알면 금방 터득할 수 있는 악보다. 그 5가지 한자라는 것도 평소 우리가 자주 쓰는 황(黃), 태(太), 중(仲), 임(林), 남(南) 등 한자 5개 앞에 사람 인(亻) 변과 삼 수(彡) 변을 붙여 음의 높낮이를 정하는데, 한눈에 음의 높고 낮음을 알 수 있는 쉬운 악보가 정간보다.

즉, 林이라는 음의 한 옥타브 위를 표시 할 때는 淋이라는 글 앞에 삼수(彡) 변을 붙여 淋이라 적는다. 다시 말해 林의 한 옥타브 위 음은 淋인 것이다. 또한 두 옥타브 위 음을 표시 할 때는 林 앞에 삼수(彡) 변을 두 개 붙여 淋이라 적으면 된다. 즉, 林의 두 옥타브 위 음은 淋인 것이다. 반대로 옥타브 아래인 경우는 삼수(彡) 변 대신 사람인(亻) 변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붙이면 된다.

정간악보는 이렇게 한눈에 그 음의 높낮이를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악보로 교육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악전공자들은 5선보를 쉽게 보는 편이다. 피아노와 화성학이 기본이고 또, 국악과 대학과정에서 피아노는 거의 필수악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국악전공자들은 5선보 보다 정간보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편이다. 정간보가 그만큼 쉽다는 뜻이다.

이렇게 쉬운 정간보를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다. 중국에도 없던 정간보를 세종대왕이 만든 것은 음악사적으로 볼 때, 동양 최초임은 물론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한글만 만든 줄 알았는데 전통악보까지 만든 것을 알고는 많은 사람들이 놀란다. 하지만 이 정간보가 나오기까지 세종임금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정간보는 당시 외래음악이던 중국음악 사대주의에 빠져있던 여러 신하들과 논쟁하며 만들게 되었는데 조선왕조실록 기사에 몇 가지 일화가 전해온다.

하루는 세종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살아서는 우리음악(향악)을 듣고, 죽어서는 중국음악(당악)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옳지 못하다...”

신하들은 세종임금의 위험한(?) 주장에 반발하며 大國(중국)의 음악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몇 년 후, 신하들을 불러 모은 세종은 다시 설득한다.

“우리 민족에게도 다양한 음악, 악기, 문화가 전해오는데 왜 유독 중국의 음악을 고집하려하는가...? 우리 음악만의 특징을 잘 살려서 후세에 물려 주는게 옳지 않겠는가?”

박연을 비롯한 신하들이 이런 말을 한다.

“우리음악은 변변치 못합니다. 중국의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화가 난 세종임금이 명쾌하게 한마디 던진다.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에게서 중국 못지 않은 음악문화가 있지 않은가?”

“중국음악도 나름대로 좋지만, 그렇다고 우리음악이 중국음악에 비해 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 해 보시오...”

이와 같이 세종대왕은 사대주의에 물들어있던 신하들의 논리에 맞서 우리음악, 우리문화의 사용과 개발, 연구를 주장하여 오늘날 정간보와 한글을 비롯한 기막힌 문화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이다.

세월이 500여 년이 흘러 서기 2006년도 대한민국의 음악문화는 어떠한가?...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음악 앞에서 서양음악이라는 거대한 음악이 지금 우리음악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종임금에 맞서 자신들의 편견을 주장하던 신하들과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은 것 같다.

“국악은 어렵고 지겹다...느려서 싫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

싫은 이유도 참 다양하다.

세종임금이 이 시대에 살아 있다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

“수 천 년을 이어온 우리민족의 음악이 서양음악에 비해 모자란 게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민족만의 특징을 가진 음악문화가 있지 않은가?... 잘 개발하고, 연구해서 후대에 물려주도록 하라...”

나비의 영토

- 황규백의 동판화〈나비〉

김형술 ·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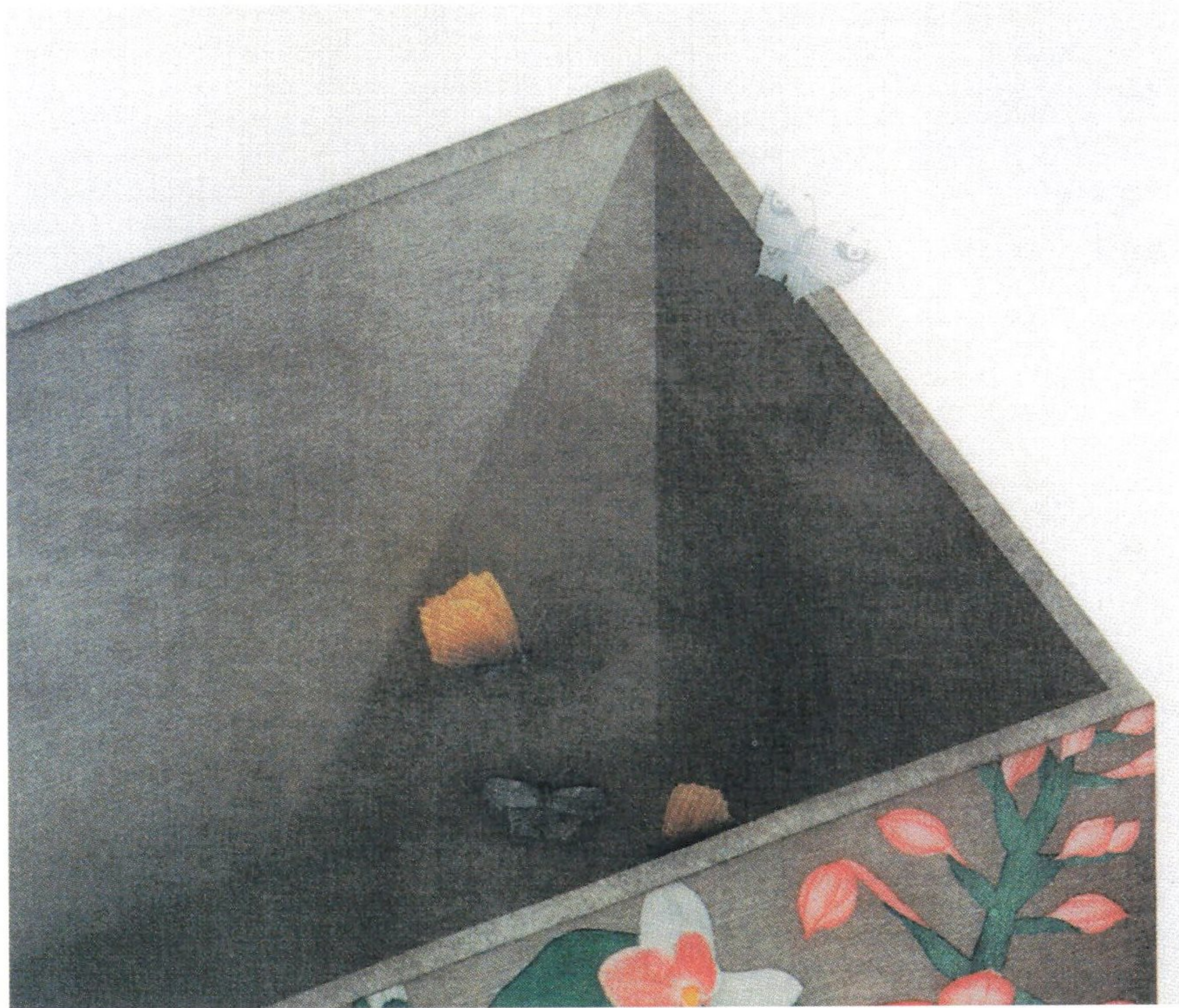
나비를 볼 때마다, 나비에 관해 생각할 때마다 나는 나비아말로 조물주가 창조한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한다. 오묘한 아름다움을 가진 날개의 무늬와 빛깔이며 섬세하고 부드럽게 팔랑거리는 날개짓, 그리고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가까이까지 날아오르는 새들과는 달리 늘 지상에서 한 뼘 혹은 두어 뼘의 거리를 유지하는 습성마저도 친근하고 사랑스럽다. 만지면 한 줌 가루로 부스러져 내릴 듯 연약하기 그지없는 날개가 불러일으키는 보호 본능 또한 나비가 가진 빼놓을 수 없는 매력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애벌레 상태에서 스스로 고치를 짓고 그 속으로 들어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고통을 견뎌내는 나비의 강인한 힘은 삶과 아름다움이라는 명제에 관한 풍부한 상징을 획득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조물주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나비라는 아름다운 생명을 창조했을까.

날개를 가졌으며 높이 날지는 못하고 지극한 아름다움을 가진 대신 아주 짧은 생애를 부여받은 이 조그만 날것의 아름다움에 일찌감치 매혹되었던 나는 또한 나비에 관해 어리석은 궁금증 하나를 갖고 있었다. 해가 저물면 인간의 아이들은 제 어미의 부름을 쫓아 집으로 돌아가고 새들 또한 누가 부르지 않아도 일제히 둥지를 찾아가는데 나비는 밤이 되면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 잠이 드는 것일까, 나비에게도 혹시 새처럼 작고 아담한 둥지가 있기는 한 것일까. 비바람이 치는 저녁이면 나비는 어디로 가나. 이런 사소한 의문은 오랫동안 어린 시골소년인 나를 따라다녔다.

어느 봄의 이른 저녁, 해가 저물어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염소를 찾아 들관을 정신없이 쏘다니는 내게 개울가 말없는 탱자나무숲이 나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는 자잘한 흰꽃을 떨어뜨린 뒤 잎이 무성해진 제 몸의 날카로운 가시에 매달려 잠든 갖가지 나비들을 보여 주었던 것. 희복한 어둠 속에서 온몸 가득 나비들을 매단 탱자나무는 한 그루의 화안한 꽃나무였다. 다만 한 계절을 살기 위해서 태어난 생명치고는 지나치게 아름다운 존재를 가시투성이여서 사람들이 쉽게 범접하지 못하는 탱자나무가 말없이 껴안고 있었던 것이다.

황규백의 그림 속 나비들은 어두운 상자 속에 갇혀있다. 아니 몇 마리는 상자의 바닥 쪽에 있고 그중 흰나비 한 마리는 이제 막 상자를 벗어나려 하거나 상자와 허공의 경계에 위치해있다. 별다른 설명이 없이도 상자과 나비의 존재는 그 자체로 지극한 대립을 웅변한다. 진부한 해석이긴 하지만 상자는 문명, 나비는 자연일 수도 있고 상자는 감옥, 나비는 자유라는 상징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

상자 속에 그 무엇이 있어서 나비를 불러 모은 것일까. 나비를 불러 모으게 하는 꽃은 오히려 상자의 바깥을 치장하는 그저 하나의 기호, 하나의 무늬가 되어 있을 뿐인데. 기호와 상징은 나비에게 아무런 감흥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것, 그것들이 제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며 사실적으로 그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나비들에게는 죽은 꽃, 꽃의 환



황규백의 그림<나비>(285 x 23.8cm, 동판화)

영, 꽃의 유령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러니 나비라는 존재와 이음동의어이기도 한 꽃이 상자의 용도를 설명하는 존재증명의 기호로 쓰여진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대신 자연을 삶의 도구로 차용하는 인간에게 아이러니의 감정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긴 하지만 나비에겐 아니다. 향기와 감촉과 빛깔, 미세한 바람결을 읽으며 지상에서 가까운 허공을 자신의 영토로 가지는 나비에게 인간의 도구인 상자는 그저 하나의 벽에 불과할 뿐이다. 벽 속의 나비, 감옥 속의 나비는 아름답지 않다. 그저 흐릿한 형체를 가진 하나의 물체일 뿐, 그에 비해서 상징이나 기호로 전락한 꽃의 모습은 선명하다. 아름답기 그지 없다.

상자 속 직각사면체의 허공에 갇힌 나비는 향기를 쫓고 바람결을 느끼는 대신 갇힘에 관해, 어둠에 관해 생각하게 될까. 감옥과 어둠은 인간에게 성찰과 사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나비에게도 과연 그럴까. 그림 속 상자바깥의 허공은 흰색이다. 그리고 텅 비어있다.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 허공이야 말로 오직 나비의 땅, 나비를 위한 영토인 것. 그 허공을 위해 상자와 상자를 수식하는 꽃의 그림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다. 황규백의 그림들은 언제나 일반적인 관념의 세계를 배반하는 낮은 쾌감을 선사한다.



가을입니다

김희진 · 영화감독

열한 번째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된다. 기간 중 해운대 지역 숙박업소와 부산 행 기차표가 동이 나고 있다. 일년 중 휴가를 일부러 이 시기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하니 그 인기가 짐작된다. 잔치는 아무래도 밥상에 가짓수가 많아야 하고 새로운 꺼리도 있어야 한다.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이 준비에 최선을 다해왔다. 한바탕 신나게 영화 잔치를 즐기려는 관객들과 기대에 걸맞은 프로그램의 조화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최고 장점이다. 올해도 모두 포만감을 느끼며 잔치를 즐기길 바란다.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는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린다. 올 한 해도 계획 보다는 즉흥에 의존해 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반성과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된다. 창작을 꿈꾸며 매일 구상을 반복하지만 하루하루 새롭게 찾아오는 주위의 바람들을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언제나 창작의 결실은 뒷전이 되고 만다. 요즘 스스로 붙인 별명이 너무나 내게 어울리는 것 같다. '복덕방', 마치 해결사가 된 듯이 주위의 일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협조를 구한다. 복비 없는 복덕방은 복덕방이 아닌데, 일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주머니는 비어만 간다. 대신 마음이 채워지고, 부산영화문화의 작은 토양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제대로 된 복비를 받으며 일 잘하는 복덕방이 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일과 작품들을 하다보면 자연히 비교라는 것이 생긴다. 잘하는 쪽과 못하는 쪽, 열심히 하는 편과 그렇지 못한 편, 개념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일하는 팀과 아무 생각 없이 개념을 가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팀, 없지만 열성으로 일하는 사람들과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등의 비교가 이런저런 질문으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하고 앞으로 내 작업은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들, 역시나 잘하는 쪽으로 향해야겠지.

9월에는 크게 두 작품을 진행했었다. 한 방송사의 드라마와 밀양에서 만들어지는 이창동 감독의 <시크릿 선샤인>이었다. 아직 드라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지역 방송사의 드라마 작업은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었고, 역시나 진지하게 영화를 만드는 이창동 감독과 제작진들은 그들이 가진 열정을 보여주었다. 마침 두 작품에 다 출연하고 있는 부산 배우 김미경은 아마 확실한 차이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작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정신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작품과 그 작품에 참여하는 사람

들에게 제작 주체는 어떤 태도로 임해야하는지를. 당연히 결과가 말해주고 증명해줄 것이다.

드라마의 계획을 벗어난 진행으로 배우 일정을 맞추느라 예정보다 늦게 촬영된 <그런 영화 아니잖아요!>도 9월에 기억되는 작품이다. 소수의 인원이 열정으로 찍어내는 독립영화의 힘이 제작진과 배우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로 보여 졌다고 할까. 단순한 이야기고, 특별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그 노력이 이 작품만의 특성을 만들었을 거라 기대한다.

작품 제작 과정을 비교하고 차이를 지적한 것은 괜히 누군가를 흠잡으려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란 참여하는 이들의 태도에서 이미 결과를 내다볼 수 있음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만들다보면 조금씩은 나아질 것이고, 그것은 희망이다.

10월에는 부산에서 활동해 온 감독들을 다시 살펴보는 책자가 나온다. 2년 전 그 첫 권을 낸 바 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어

쩔 수 없이 독립적으로 영화를 만들어 온 그들의 이야기가 실릴 것이고 다시금 작품을 살피며 전망도 내다보는 책자이다. 기획이 잘 된다면 책이 나오는 시점에 영화제도 개최한다고 한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영화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꼭 만들어졌으면 한다. 그래야 <범일동 블루스>도 다시 상영할 수 있을 테니까.

조금씩 옷을 갈아입는 나무를 보며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음을 깨닫는다. 스스로 가진 고정된 관념을 버리고 안정적으로 유지하려 버텨왔던 기득권을 버릴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작품을 만들거나 기획을 진행하며 우린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 그들에게 작품에 대한 확신 뿐 아니라 인간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여러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야 무언가 창조적 결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연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치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초록에서 붉음으로 바뀐 나뭇잎을 보며 감탄하듯 자신의 변화를 통해 타인에게 감동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10월은 잔치도 있고 한해를 마무리하는 준비도 천천히 해야 하는 시기이다. 작품은 끊이지 않고 만들어질 것이고 각자의 창작 의지는 쉽 없이 꿈꿔질 것이다. 가을밤처럼 깊게 만족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모두들 열정과 유연함을 갖길 바란다.



제 11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가을 부산은 영화잔치를 즐기려는 관객들로 북적인다.(사진은 수영만 야외상영장)

도덕은 비교급? - 〈도덕적 도둑〉

변미선 · 연극배우, 부산대 강사

남자 : 유일한 해결책이라니? 미쳤어요? 신문에 날려구! 결혼주례 50번을 선 시의원, 간통현장에서 권총 자살. 시의회에서 다들 배꼽 잡고 웃을 거요! 우린 함정에 빠진 거요. 내 집사람이 별장에서 올 때까지 한두 시간 기다릴 수밖에... (곰곰이 생각하며) 한두 시간? 잘 활용만 하면... 그렇지... 처벌을 받으려면 죄를 범해야지. (소파에 줄곧 앉아있는 여자에게로 간다) 방안으로 들어가실까요?

여자 : 천박하게 왜 이래요? (여자가 남자를 밀자, 전과 똑같이 머리가 등받이에 부딪히며 소파와 함께 나뉘고 러진다)

“그렇잖아도 골치 아픈 현실에서 뭐 하러 비극을 보냐. 아무 생각 없이 웃을 수 있는 코미디나 보러 가자!” 현대 관객의 성향이다. 비극에 A+를 주고 희극에 대충 C정도 점수를 준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으면 옆드려 흐느낄 지경이다.

요즘 관객들-물론 나를 포함해서-은 지나친 비극을 보면 자기보호 작용이 발동해서 차라리 자신은 그 현실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묘한 성향이 있다. 드라마에 나타난 현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관객으로서도 너무 힘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릴 적 내가 지나치게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터득한 사실이기도 하다. 한 예를 들자면, 어릴 적 인어공주라는 동화를 읽으면서 인어공주의 마지막 물거품 운명에 울다가 화가 나서 다시는 인어공주를 보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었다. 그 뒤로는 TV 등에 인어공주가 나와도 애써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었다. 이러한 경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비극에 의한 정화작용과는 무관한 경우이다. 어쩌면 요즘 비극이 거의 사라지고 즐거운 뮤지컬이나 가벼운 코미디가 성행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사실 희극이 탄생하게 된 것도 이와 유사한 사유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제성 없이 단지 웃기기 위한 소극(farce)에 비해 비극적 현실을 오히려 지극히 적나라한 상황으로 드러내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희극(comedy)이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해서 희극은 예기치 않은 엉뚱한 ‘상황’에 의한 희극이다. 이러한 희극에 소극적 요소가 더욱 강조된 것이 코미디아 델 아르테나 찰리 채플린의 영화라고 하겠지만, 상황적 희극이 강조되어 희극의 본질을 갖춘 것은 몰리에르의 작품들을 비롯해서 20세기의 체홉의 사실극이나 브레히트의 서사극 등이 본연의 희극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희극작가로는 이탈리아의 작가 다리오 포(Dario Fo)가 있다.

다리오 포는 1997년 노벨 문학상을 받아 작가로서의 더욱 확실한 명성을 얻게 된다. 희곡작가로서는 사무엘 베케트(1969년 수상), 해롤드 핀터(2005년 수상)와 더불어 몇 안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다. 그의 희곡은 계급사회와 권력층을 상대로 하층민의 시각에서 풍자를 행하고 있다. 희극이 유머, 해학, 풍자, 과장, 엉뚱함, 거리두기 등

으로 구성된다면 그 중에서 다리오 포의 희곡은 그 엉뚱함이 극치를 이룬다.

〈도덕적 도둑(The Virtuous Burglar)〉이란 작품도 시작부터 엉뚱함으로 일관한다. 도둑이 침입하는데, 그 집으로 걸려온 전화를 어쩔 수 없이 받는다. 그런데 하필 자기 아내의 전화이다. 곧 시의원인 집주인이 내연의 여자와 집에 들어오고, 엄청나게 커다란 시계에 숨었던 도둑은 자신의 존재를 들켜버린다. 연락도 없이 집으로 돌아온 안주인에게 집주인은 내연의 여인을 도둑의 부인으로 소개하게 되고, 이어 들이닥친 도둑의



이탈리아 작가 다리오 포의 대표작 '도덕적 도둑'은 계급사회와 권력층을 상대로 하층민의 시각에서 다룬 풍자극이다.(사진은 극단 사계의 '도덕적 도둑')

진짜부인도 이 엉뚱한 난장판에 가세하게 된다. 극의 막판에는 안주인의 정부가 등장하고, 이 모든 것에 어쩔 수 없이 연루된 도둑은 친절하게도 그들 각자의 비밀을 숨겨주는 가짜 인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도둑보다 더욱 비도덕적인 인물들 때문에 좀도둑질만 일삼던 도둑은 비교급으로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만다.

도둑 : 무슨 상관이라니? 날 소개하지. 본명 안젤로 토르나티. 별명 스탕가. 곤이 안 들려? (안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낸다) 이거 산토 스테파노 형무소에서 발행한 출감 허가증이야. 3년 살았지.

여자 :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진다) 진짜데! 스탕가... 아니 스탕가 선생님, 꿈만 같아요. (그를 안고서 뺨에 키스한다) 난생 처음이야, 진짜 도둑이라니... 자세히 봐야 돼.

남자 : (질투가 나서) 무슨 짓이요? 이 불한당은 내 집을 털러 왔는데, 키스까지... 에이, 더러워.

여자 : 더럽다니? 말조심해요! 뭘 안다고 그래요. 도둑한테 키스해 봤어요?

남자 : 아니.

여자 : 그럼, 해보고 더러운지 아닌지 말해요.

다리오 포의 연극은 그 풍자성으로 인해 가치를 지니지만, 실상 그의 연극이 공연되었을 때 그 작품성이 제대로 표현되기란 어려운 점이 있다. 그것은 희극이라는 맹점에 빠져 소극형식으로 표현되기 쉽기 때문이다. 칸트는 희극의 중심이 되는 웃음에 대해 '긴장된 상태가 갑자기 무(無)로 전락하는 때'라고 표현했다. 불편한 긴장으로 연속되는 억지과장이나 오버액션이 아니라 오히려 백지상태로 전환되는 순간을 잘 포착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무'의 상태란 이를테면 포즈, 발전이 없는 반복, 유아기로의 퇴행적 행동과 자기중심적 행동 등일 것이다. 요즘의 한국연극이나 영화, 드라마의 힘도 바로 이 이완된 웃음에 있다. '무'에서 나오는 웃음의 포인트를 찾는 것은 내공이 필요하다. 습자지 한 장 차이의 내공 말이다.



들꽃 향기 가득한 녹산 천연염색 체험학습장 자연과 무지개

주 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한달 두 번 돌아오는 이른바 ‘놀토’가 정착되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말 체험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부산 도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도 자연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부산경마공원을 지나 도착한 녹산 천연염색 체험학습장 ‘자연과 무지개’ 역시 도심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시골의 한적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체험공간이다.

‘자연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빛깔’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자연과 무지개’는 천연염색가 이현순씨가 지난 2004년 문을 연 천연염색 체험학습장이다. 이미 5년 전 건물을 짓고 내려와 있던 이현순씨는 도심과 멀지 않으면서도 자연을 안고있는 이 곳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그야말로 안성맞춤이라는 지인들의 권유를 받아 평소 관심이 있던 천연염색 체험장을 열게 되었다. 그 때부터 취미생활로 시작했던 천연염색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지금도 기장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연구반 과정을 밟으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있다.

“천연염색 체험은 자연의 색을 배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어 어린이들에 무엇보다 좋은 체험 프로그램이다”는 이현순씨. 한 때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자연과 무지개’는 특히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운영으로 입소문이 나있다.

1,000여평의 넓은 공간에 두 곳의 실내 실습장과 탁 트인 야외공터를 갖춘 ‘자연과 무지개’는 비



천연염색 체험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색을 배우면서 환경의 소중함을 가르칠 수 있다.



갖가지 다양한 빛깔을 내는 염료재료들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가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모든 체험이 야외에서 펼쳐진다. 천연염색 체험은 면손수건이나 모시주머니, 혹은 형겔필통 중에서 원하는 소품을 선택할 수 있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탄생한 손수건이나 주머니, 필통은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 것이기에 어린이들이 무엇보다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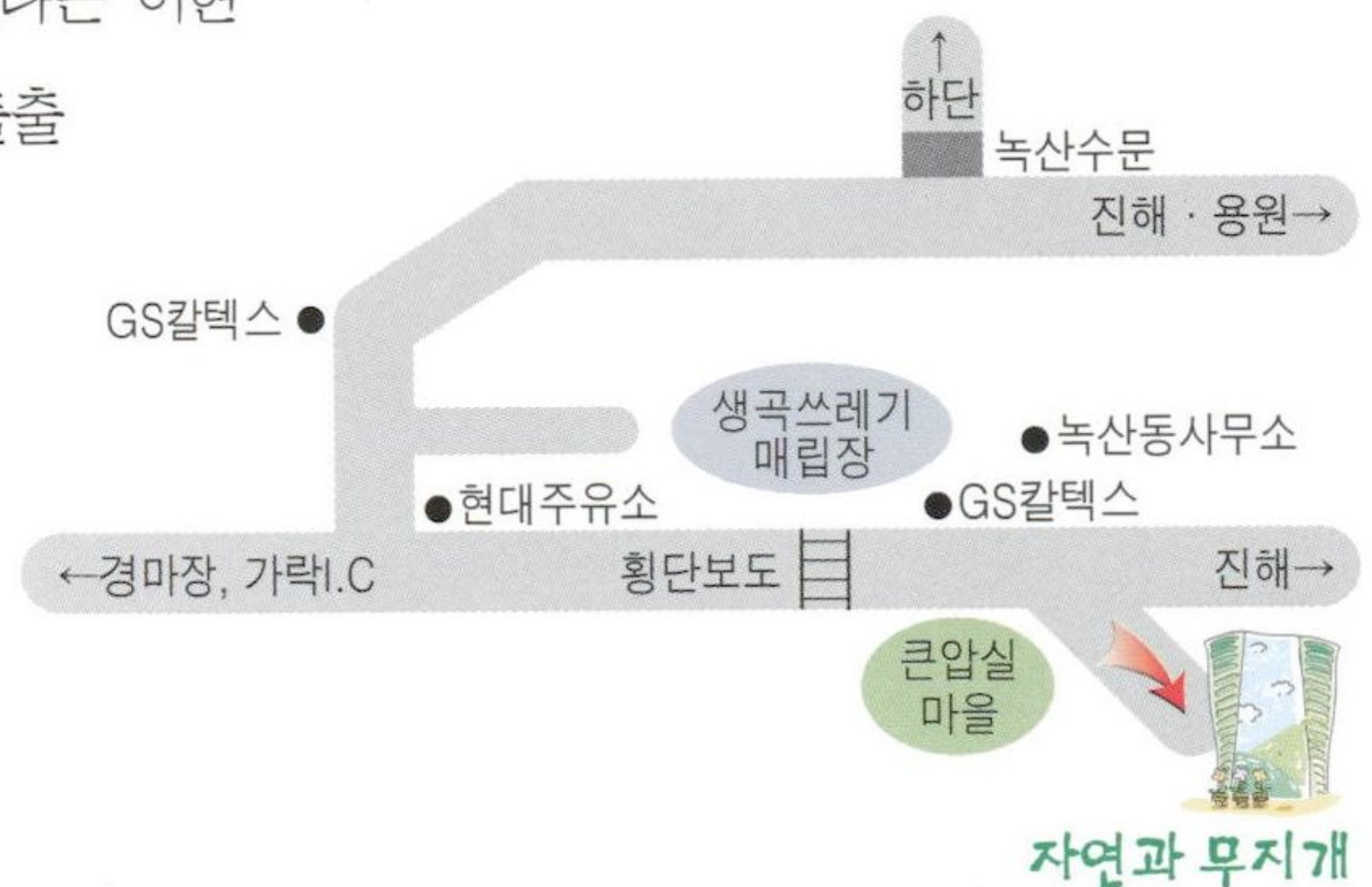
건물 내에는 갖가지 다양한 빛깔을 내는 염료재료들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다. 붉은 색을 내는 소목이나 노란빛을 내는 치자, 파란색의 쪽 등 염료로 쓰이는 식물은 직접 키우고 있어 생생한 정보와 함께 염료 만드는 과정도 지켜볼 수가 있다.

‘자연과 무지개’는 천연염색 체험 외에도 들꽃관찰, 쑥개떡 만들기 등 재미난 볼거리, 먹을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체험장으로 올라가는 오솔길 주위와 체험장 뒤편의 언덕에는 강아지풀, 고마리, 꿩이밥, 감국, 까치수염, 노루귀, 명아주, 민들레, 애기똥풀 등 다양한 종류의 들꽃과 더불어 앵두나무, 사과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오가피나무 등 이현숙씨가 직접 심은 과실수가 철마다 다른 모습으로 방문객들을 맞는다. 염색한 옷감이 마르는 동안에는 체험장 주변을 돌아보면서 강사들로부터 들꽃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간식으로 준비한 쑥개떡도 ‘자연과 무지개’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색다른 재미. 봄이면 체험학습장 인근에 자라난 쑥을 캐다가 일년치 분량을 미리 준비해놓는다는 이현숙씨는 쑥개떡 빚는 과정도 재미나지만 체험으로 출출해진 배를 채울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한다고 자랑이다.

‘자연과 무지개’는 다른 체험학습장과는 달리 ‘하루에 한 팀’이라는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 체험자들이 시간에 쫓길 필요없이 여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게 큰 매력. ‘자연과 무지개’는 20명 이상 단체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 문의: 자연과 무지개(971-4771)



함께 즐겨요~ 예술영화, 독립영화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

대형 멀티플렉스가 들어서면서 상영관 수는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예술영화와 독립영화를 스크린에서 만나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시네마테크 부산과 CGV 인디영화관으로 아쉬움을 달래던 예술영화 영화매니아들에게 지난 4월 문을 연 국도예술관은 또 하나의 새로운 오아시스. 그래서일까, 국도예술관 개관과 더불어 함께 문을 연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cafe.naver.com/gukdo.cafe)'은 문을 연지 6개월도 안돼 2천3백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가입해 예술영화, 독립영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함께 나누고 있다.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은 국도예술관이 극장의 원활한 운영과 홍보를 위해 개설했지만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꾸려지고 있다. 회원 추천작으로 진행되는 '회원 정기상영회'는 이런 회원들의 열의가 가장 뜨겁게 반영되는 행사이다.

독립영화상영회가 열리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마지막 상영시간에 갖는 '회원 정기상영회'는 카페 게시판에 올라오는 회원들의 추천작을 선정, 영화상영회를 갖고 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영되는 정기상영회는 7월 허우샤오시엔 감독의 '카페 뤼미에르', 8월 테리 길리엄 감독의 '브라질'이 상영되기도 했다.

비정기적으로 열리는 기획상영회 또한 회원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 지난 6월 열렸던 '아시아 영화전'에 이어 9월 21일부터는 새로운 기획전 '매력의 한국영화전'이 열린다.

10월 24일까지 한달간 열리는 '매력의 한국영화전'에서는 그동안 카페 게시판에 올려졌던 회원들의 추천작 '다섯개의 시선', '동백꽃', '안녕, 사요나라', '깃', '마법사들', '피터팬의 공식'

등 2006년 한해동안 상영됐던 숨은 걸작 11편이 소개된다.

카페가 문을 연지 5개월째로 접어들면서 회원활동의 폭도 넓어졌다. 정기상영회와 함께 영화를 함께 보는 번개모임이 수시로 열리면서 낮을 익힌 회원들간에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국도예술관은 앞으로는 정기적인 회원모임을 가지면서 오프라인 모임도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카페내 소모임도 꾸러지면서 영화음악, 일본영화, 책읽기, DVD감상 등 4개의 소모임이 생겨났다. 아직까지는 게시판을 통해 서로 감상을 주고받는 정도이지만 자체적인 DVD상영회를 갖는 DVD 감상 소모임처럼 보다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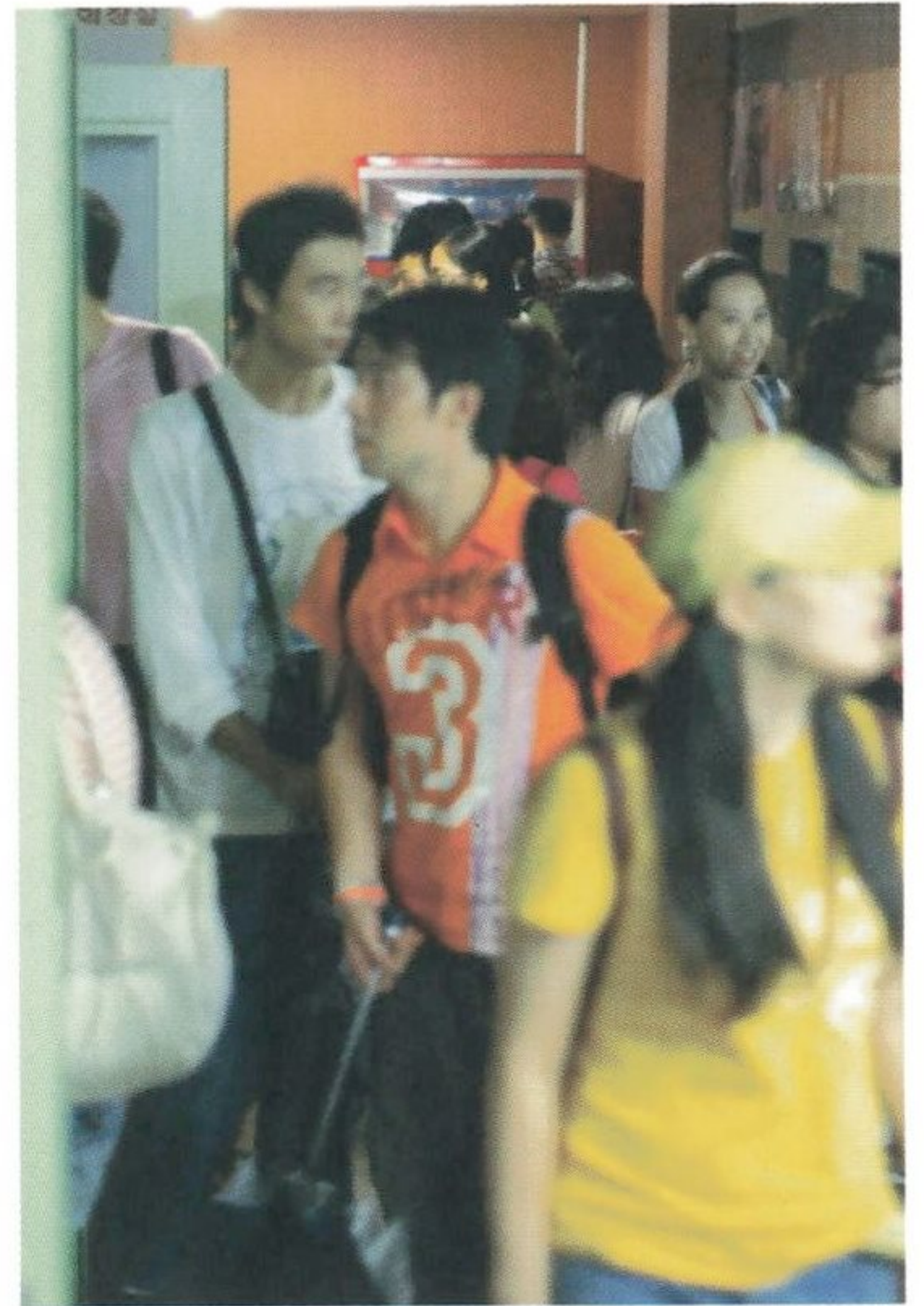
국도예술관에서는 온라인 회원과 함께 정회원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연회비를 내는 정회원에게는 국도예술관 이용이 가능한 초대권과 함께 영화관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 외 무료상영회, 시사회 등에 우선 초대받거나 소식지 및 영화관련 정보를 우편 혹은 문자로 제공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인근의 또다른 문화공간인 가마골소극장, 실천무대 소극장과 제휴를 맺으면서 회원들에게 다양한 공연할인 혜택도 주고 있다.

“빠른 상영정보를 위해 극장에서 직접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카페를 이끌어나가는 것은 예술영화, 독립영화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힘이다”는 카페 운영자 유주희 씨.

“평소 국도예술관을 찾는 관객 중 회원이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그는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이 그 이름을 넘어 부산의 독립영화, 예술영화 활성화에 큰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문의 : 국도예술관(245-5441)



예술영화 매니아들이 모인 온라인카페 '국도예술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회원들의 추천작으로 정기상영회를 갖고 있다.(사진은 정기상영회를 기다리고 있는 회원들)

오카리나 이야기 <2>



박종근 · 한국음악오카리나협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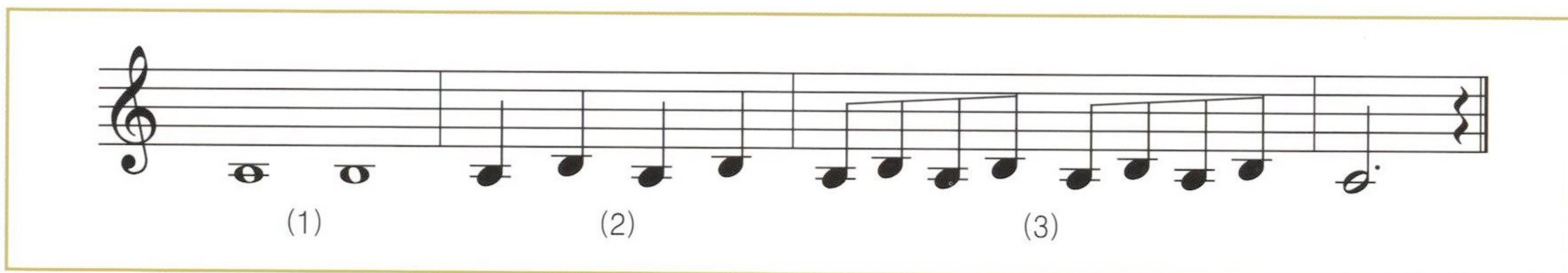
앞 시간에서 오카리나의 역사 및 음계, 자세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번 시간은 오카리나의 연습 방법과 저음, 고음 음계에 대하여 배워 보도록 한다.

<연습방법>

	연습 시간	효 과
1. Long tone	10분	안정된 소리
2. Scale	10분	소리 및 손가락의 부드러움
3. 안되는 부분 연습	20분	시간 및 연습의 효율성
4. 전체 연습	20분	완성도

위의 순서에 의하여 연습을 하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를 생각하며 꼭 이 방법에 의하여 처음 연습을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오카리나 연습 시 1, 2의 방법은 준비 과정으로써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도 준비 체조가 있듯이 3, 4번을 연습하기 전에 꼭 1, 2번의 연습을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표 1. 저음 음계>



- ① 먼저 운지표를 참고하여 자리를 익힌 후
- ② '라' 음과 '시' 음을 번갈아 불어보되 입술 모양은 저음 소리가 잘 날 수 있는 '오' 모양으로 소리를 내어 본다. 특히 ③ '라' 음과 '시' 음은 작은 보조 구멍을 막아야 하는 관계로 2개의 홀을 정확히 막을 수 있도록 손가락을 납힌 상태에서 막아야 한다.
- ④ '라' 음에서 '시' 음으로 혹은 '시' 음에서 '라' 음으로 교체 이동할 시에는 악기에 손가락을 밀착 시킨 상태로 손가락을 미끄러지듯이 연습을 해서는 안되며, '라' 음, '시' 음의 이동시에 필히 손가락을 Jump시켜서 하나 하나의 음을 내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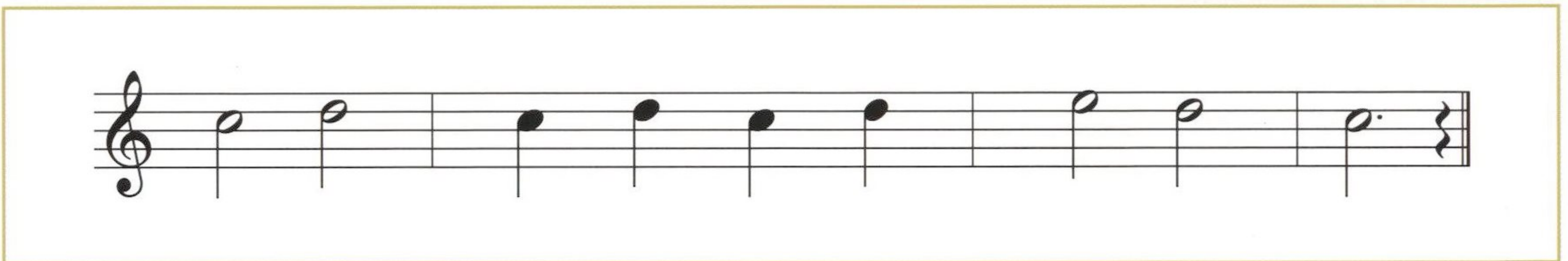
특히 주의 할 사항은 '라' 음과 '시' 음을 낼 때에는 한음 한음을 끊어서 연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다.

⑤ <표1>의 (1), (2)를 먼저 연습하고, 익힌 후 <표1>의 (3)을 연습하도록 하여 보자.

지금 배우게 될 저음, 고음 음계에서는 앞 시간에 배운 정확한 운지를 참고로 하여 연습을 해 본 후 저음, 고음 음계에 임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표 2. 고음 음계>



고음 음계에서는 어느 악기나 마찬가지로 입술 모양을 '에' 모양을 만든 상태에서 불며 특히 불고 있는 음정은 피아노의 음정과 비교 하면서 연습하면 더 정확한 음정을 얻을 수 있다.

호흡의 세기는 입술을 좁게 만든 다음 세게 불므로써 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있다.

어느 악기나 그렇듯이 중음보다는 저음, 고음이 잘 나지 않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므로 오카리나를 연주하고자 한다면 꼭 저음, 고음에 연습 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확한 운지 확인 및 진단법>

오카리나를 하면서 정확한 음정이 제일 중요하다. 이 중요한 음정을 바르게 내는 방법은 첫째가 정확한 운지이다. 앞에서 거론했듯이 손가락 지문(제일 도톰한 부분)으로 막는 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연습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운지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높은 '도'에서 낮은 '도'음으로 하행하면서 음계를 불지 않고 손가락으로만 막으면서 하행을 해도 손가락 힘에 의한 소리가 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얼마만큼 정확하게 막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손가락으로 막았을 때 손가락 힘에 의한 '틱틱' 하는 그 음계의 소리가 나면 정확한 운지인 것이다.

'1인 1기를 배우시다' 지상강좌를 맡은 오카리나 연주자 박종근 씨는 한국사회교육원 오카리나 원장,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출강, 글로벌 콘서트바토리 오카리나 주임교수로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오카리나 창작곡으로 경기도립 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르간(Organ)

곽근수 · 음악평론가, 부산시립교향악단 해설자



독일의 슈발베네스트 오르간

오르간은 서기 246년 그리스의 크테시비오스(Kt sibios)가 만든 이래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고도의 테크닉과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발전 승화되어 현재의 모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 악기는 제법 오랜 세월 잊혀져 있다가 서기 757년, 비잔틴의 황제 콘스탄틴 5세가 프랑켄의 왕 피핀에게 오르간을 선물하면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의 오르간 형태는 그 전의 수력 오르간과는 달리 바람상자가 붙어 있었다.

현재 그 모습은 남아 있지는 않지만 950년경 영국의 윈체스터 대성당에 400개의 파이프와 2개의 손 건반을 가진 오르간이 있었다고 한다. 2명의 연주자가 각각 한 단씩의 건반을 맡아 연주를 하는 동안 오르간 뒤편에서는 70명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공기주머니에 공기를 계속 채워 넣었고, 연주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2명의 시종이 오르가니스트의 귀를 대신 막아주어야만 했고, 또한 엄청난 소리는 수 킬로미터 밖의 사람들까지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르간의 전성기는 1287년 마일랜드 종교회의에서 정식 예배악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로마의 승인을 받았던 때를 시점으로 삼는다. 특히 14세기경부터 외형 구성과 예배를 보좌하는 악기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모아져서 오르간의 형태 갖추기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바로크시대엔 질버만, 슈니트커 등과 같은 걸출한 파이프 오르간 마이스터들에 의해 음악적, 건축적, 예술적으로 한층 더 승화되어 미흡했던 소리들은 좀 더 넓은 폭의 음역을 갖기 시작했고, 연주를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면서 약 7백개에 달하는 실로 다양한 소리를 표현하게 됐다.

오르간 제작에 있어 주요 조건은 오르간 전체의 예술성, 오르간을 작동시키는 기술, 그리고 파이프 소리의 색깔이다. 이것이 하나가 되어 조화를 이루었을 때만이 완벽한 파이프 오르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하나의 오르간이 설계에서 완성되기까지는 다양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작은 오르간은 6개월에서 큰 오르간은 2-3년이 넘게 걸리기도 한다.

가까운 일본만 해도 오르간 문화가 꽤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1885년에 처음으로 오르간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약 100년 동안에 200여대의 오르간이 설치됐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한국에는 현재 크고 작은 오르간을 합해서 100여대가 약간 넘고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합하면 200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우리의 짧은 오르간 역사에 비추어볼 때 획기적인 숫자가 아닐 수 없다.

정정렬제 판소리 완창무대 갖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



“소리는 마라톤 같은 것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해가면서 시김새, 더늠을 잘 살려 내 감정을 엮어서 토해내야 합니다. 똑 같은 소리지만 반복해서 연습하다보면 그 때 그때 느낌이 달라지는 것이 판소리입니다.”

10월 27일 판소리 춘향가 완창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소리꾼 정선희(36)씨. 1993년 전주에서 흥보가 완창 무대를 가졌지만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갖는 완창무대라 기대가 크다.

1993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에 입단한 정선희는 부산에서 활동하는 틈틈이 스승 최승희 명창이 있는 전주와 서울 등지에서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부산에서 두 차례 완창무대를 준비했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와 출산 등으로 공연을 올리지 못했던터라 이번 공연에 대한 각오가 남다르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정선희는 작고한 부친 정재원씨에게 14세부터 소리를 배웠다. 전주 우석대학교 국악과에 들어가 지금의 스승인 최승희 선생을 만나 수제자로 십여년간 판소리를 사사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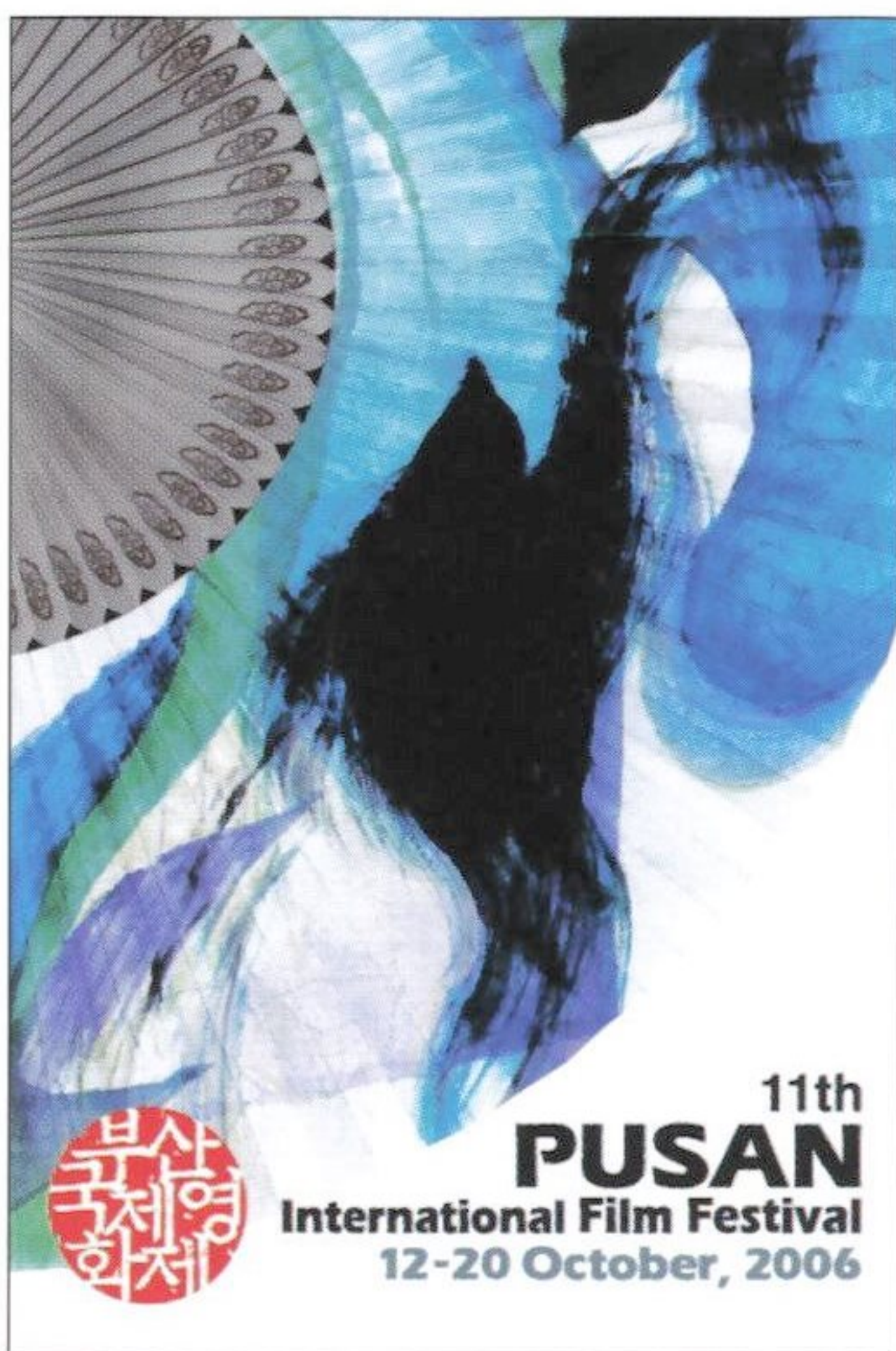
지난해 정선희는 정정렬제 춘향가 전수장학생으로 지정받았다. 많은 제자를 두지 않는 최승희 명창의 성격 때문에 전수 장학생으로 어깨가 무겁다. 정선희는 앞으로 부산에서 스승의 가르침, 흐름을 깨지 않는 전통소리를 후학들에게 전하고 싶다.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무대는 부산에서 처음이다. 정정렬제 춘향가는 무엇보다 사설이 일관성이 있고 문학적, 음악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며 기교가 뛰어나다. ‘정정렬 나고 춘향가 다시 났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교한 테크닉과 까다로운 부침새가 특징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리꾼과 고수로 만나 가정을 이룬 정선희씨의 남편 신호수씨가 전반부 고수로 호흡을 맞추고 후반부는 김청만 선생이 고수로 오랜만에 부산 무대에 설 예정이다.

영화의 바다로 출항

제 11회 부산국제영화제

10월 12일(목)~20일(금)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운대 메가박스,
프리머스 시네마 해운대, 대영시네마, CGV장산



영화의 바다에 빠지는 10월,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1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9일간의 항해를 떠난다.

지난 10년간 아시아 신인감독을 발굴하고 아시아 영화를 세계에 소개하며 성장해온 부산국제영화제는 특히 올해 전 세계 영화시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아시안필름마켓 출범과 아시아 지역의 다큐멘터리 네트워크(AND) 확대, 아시아 영화계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 인재의 등용문인 아시아영화 아카데미(AFA) 등 다양한 프로젝트 운용으로 아시아 영상산업의 중심지이자 아시아 영상문화의 전진기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총 62개국 246편의 영화가 상영되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월드 프리미어가 영화제 역대 최다기록인 65편에 이르고 자국 외 첫 선을 보이는 인터내셔널 프리미어가 19편, 아시아 프리미어가 72편으

로, 세계적인 영화제로서 더욱 강해진 부산국제영화제의 위상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제 11회 부산국제영화제의 문을 여는 개막작으로는 연인을 잃은 남자와 지울 수 없는 고통의 기억을 안고사는 한 여인의 만남을 그린 김대승 감독의 '가을로'가, 폐막작으로는 보석을 훔치려는 일당과 이를 막으려는 공장관리인의 좌충우돌 블랙코미디인 중국 감독 닝 하오의 '크레이지 스톤'이 선정되었다.

■아시아 영화의 창

14개국 39편의 영화가 소개되는 '아시아 영화의 창'에서는 주변부의 저예산 독립영화로 출발하여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젊은 감독들의 작품에서부터 이미 국제적인 지명도를 지닌 거장과 중견급 감독들의 더욱 깊어진 작품세계까지 다양한 작품이 관객을 맞는다.

■새로운 물결

7개국 10편 중 9편이 월드 및 인터내셔널 프리미어로 초청된 작품으로, 특히 올해는 사랑과 청춘의 다양한 색깔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두드러지며 이밖에도 가족문제와 실험적 이야기 구조, 영상이 돋보이는 작품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상영된다.

■한국영화의 오늘

올해 한국영화의 두드러진 특징인 장르영화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파노라마 섹션에서는 '짜패(감독/류승완)',



개막작 '가을로(감독 김대승)

‘괴물(감독/봉준호)’, ‘왕의 남자(감독/이준익)’ 등 11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저예산 혹은 독립적으로 제작된 작품을 조명하는 비전 섹션에서는 ‘포도나무를 베어라(감독/민병훈)’, ‘나의 친구, 그의 아내(감독/신동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감독/노동석)’ 등 7편이, 스페셜 프리미어에서는 ‘갱스터 하이(감독/박기형)’, ‘열혈남아(감독/이정하)’와 일부장면이 삭제된 채 상영되어 아쉬움을 남겼던 ‘그때 그사람들(감독/임상수)’이 복원되어 첫 공개된다.

■ 한국영화 회고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故 신상옥감독의 ‘열녀문’을 비롯 한국영상자료원이 지난 3년간 발굴한 일제시기 영화 7편이 상영된다.

■ 월드 시네마

한층 더 관객과 가까워지고 다양해진 월드시네마는 특히 동구권의 다채로운 영화들이 다수 소개된다.

■ 와이드 앵글

한국에서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어느해보다 풍성한 다큐멘터리 작품과 생동감 있는 우리의 일상을 포착한 단편영화가 출품됐으며, 아시아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과 인도, 이란, 대만에서 초청된 단편애니메이션이 시선을 끈다.

■ 오픈시네마

가을밤 바닷바람과 함께하는 야외상영 ‘오프 시네마’에서는 웃음과 눈물이 있는 감동드라마에서부터 액션영화, 독특한 기법의 신작애니메이션까지 온 가족이 함께 감상할 수 있는 5개국 7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 크리스틱 초이스

새로운 시네아티스트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나라, 다양한 작가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을 선보이는 크리스틱 초이스에서는 칸영화제 황금카메라상 수상작 ‘부쿠레슈티의 동쪽(감독/코르넬리우 포룸보이우)’을 비롯 파라과이에서 35mm 장편극영화로는 1970년대 이래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기념비적 데뷔작 ‘파라과이식 그물침대(감독/파스 엔시나)’, 아프리카 기니 출신 가이테 포파나 감독의 ‘이른 아침’ 등 12편의 문제작이 선보인다.

■ 미드나잇 패션

심야영화상영으로 진행되는 미드나잇 패션에서는 전통적인 슬래셔 무비에서부터 공포영화, 코미디영화 등 다양한 장르의 12개국 13편의 신작이 상영된다.

■ 특별전

한·불 수교 120주년을 기념, 현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작가들의 영화 13편이 소개되는 ‘프랑스 동시대 작가들’, 이란의 아미르 나데리, 인도의 라자람 반쿠드르 산타람, 중국의 추이즈언 감독 등 아시아 감독들을 발굴, 소개하는 ‘아시아 작가 영화의 새지도 그리기2’, 애니메이션 강국인 일본과 새로운 도약을 준비중인 태국과 싱가포르, 한국의 애니메이션 현재를 살펴볼 수 있는 6편의 작품이 상영되는 ‘애니 아시아2’ 등 3개의 특별전이 마련된다.



故 신상옥감독의 ‘열녀문’

■ 입장료 : 개 · 폐막식 균일 10,000원, 일반상영 균일 5,000원(16일~19일 1, 2회 조조상영 3,000원), 미드나잇 패션 균일 10,000원(3편)
 ■ 문 의 :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747-8591, www.piff.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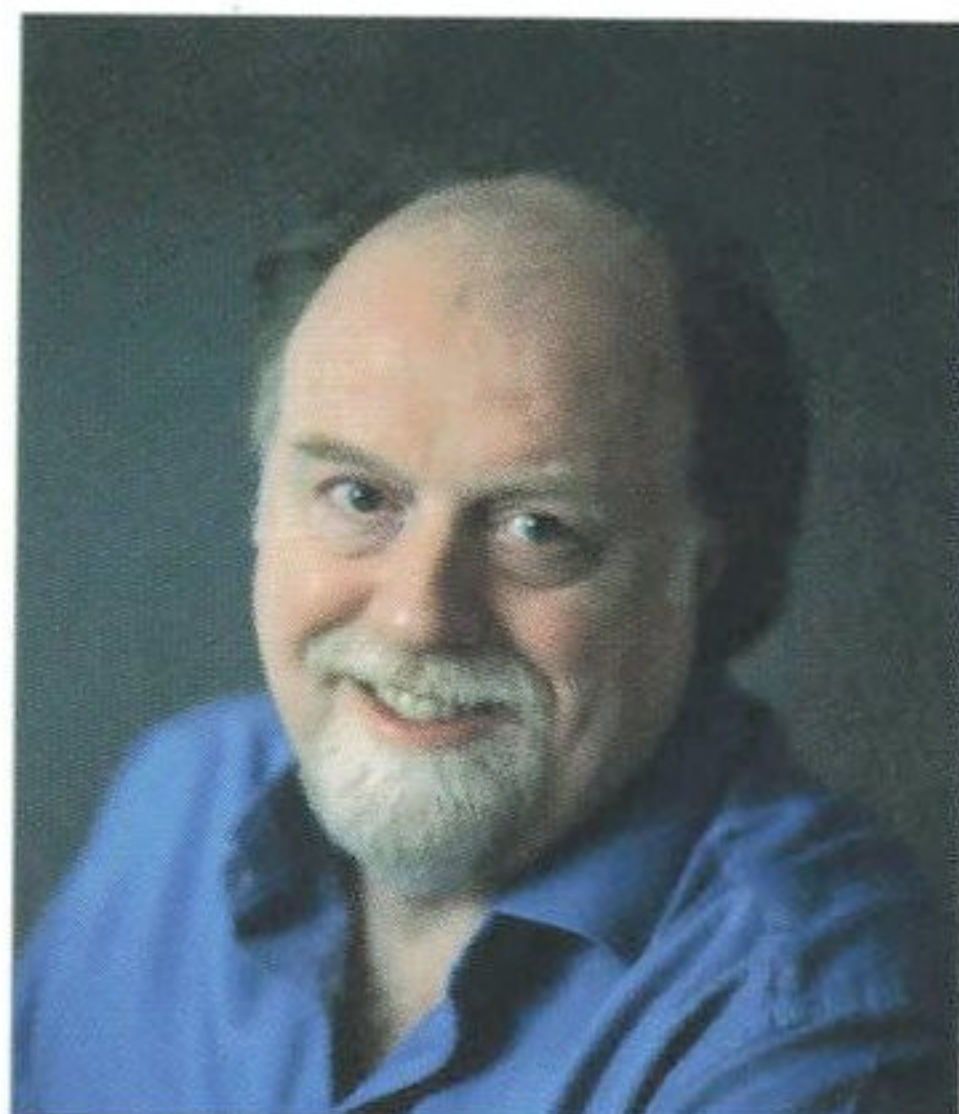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3회 정기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연주회

10월 13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터 도노호

클래식으로 듣는 가을의 소리로 2006년 가을 연주 일정을 시작한 부산시립교향악단이 오는 10월 13일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지휘로 제 423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음악성과 현란한 스타일, 당당한 테크닉을 두루 갖춘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가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첫 만남을 갖는다.

1982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피터 도노호는 현재 유럽, 미국,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사카리 오라모 지휘의 로얄 콘서트게보우 및 버밍엄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협연과 런던, 비엔나, 모스크바 등에서의 독주회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냈다.

2002년 베를린 필하모닉의 사이먼 래틀 음악감독 취임 연주회에서 협연을 맡기도 한 피터 도노호는 네메 예르비, 로린 마젤, 쿠르트 마주어, 앤드류 데이비스, 예프게니 스베틀라노프 등 세계 정상급 지휘자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실내악 연주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터 도노호는 피아니스트 마틴 로스코와 함께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 공연을 가졌으며, 거쉰과 라흐마니노프 곡을 녹음하기도 했다. 피터 도노호는 리스트 디스크 국제 그랑프리, 그라모폰상(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2번)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번 무대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라흐마니노프로 무대를 꾸민다. 1부는 피터 도노호의 협연 무대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사장조 작품44'를 연주한다. 피아노 협주곡 제 2번은 차이코프스키가 남긴 총 3곡의 피아노 협주곡 중 한국으로 가장 널리 연주되는 제 1번 협주곡에 비해 자주 연주되지는 않지만 피아노의 경쾌함과 차이코프스키 특유의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어우러진 곡이다.

2부를 장식하는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 2번 마단조 작품 27'은 교향곡 제 1번을 냉정하게 외면했던 청중들을 향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라흐마니노프가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은 대곡이라 할 수 있다. 그의 3곡의 교향곡 중에서 가장 대중에게 친숙한 이 곡은 라흐마니노프다운 어법과 긴 호흡의 기복 속에 정서적인 흐름을 잃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이 세상의 모든 음악 II

10월 17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지난 3월 제 118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을 선보여 많은 호평을 받았던 부산시립합창단이 오는 10월 17일 제 120회 정기연주회 '이 세상의 모든 음악 II'에서 또한번의 감동을 전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김강규가 지휘하고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첼리스트 김관수, 춤꾼 이영미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우리나라의 창작합창곡을 비롯 평소 무대에서는 잘 들을 수 없는 호주, 중국의 합창곡, 무반주 종교합창곡, 그리고 깊어가는 가을정취와 어울리는 클래식기타와 첼로 듀오무대가 마련된다.

첫 무대를 여는 곡은 우리의 전통을 소재로 노래한 한국창작합창곡으로,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불리어지던 전통노래 '강강술래(진규영 작, 편곡)', 이영미의 춤과 함께 어우러질 '승무(함태균 곡)', 그리고 흥겨운 제주민요를 모티브로 한 '신 상사소리(조치노 곡)'를 들려준다. 클래식기타와 첼로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질 특별 무대에서는 고충진과 김관수의 멋진 앙상블로 빌라 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제 5번 아리아', 폴 데 센느빌의 '슬픔의 안나를 위하여 눈물로 적은 시'를 들려준다.

1부 마지막 무대에서는 새벽, 새, 일몰 등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호주의 오래된 숲과 사막이 제공하는 환경의 소중함을 노래한 '세 곡의 호주 숲의 노래(I. Grandage 곡)'와 젊은 연인들의 사랑을 노래한 운남민요 '소하창수', 중국전통놀이인 용춤의 흥겨움을 노래한 '용춤(Leong Yoon Pin 곡)', 재미난 테마의 '신부맞이(Leong Yoon Pin 곡)' 등 호주와 중국의 합창곡을 비교해 감상할 수 있다.

2부 첫 곡으로는 합창의 전통 모습을 간직한 무반주 종교합창곡 '십자가에 달리심' '영광스러운 노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등 종교합창곡만이 갖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이어서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 주제곡 '무지개를 넘어(Over the Rainbow)', 영국민요 '여름의 마지막 장미', 잘 알려진 詩를 합창곡으로 만든 '아베스의 기도', 흥겨운 리듬의 '이 작은 나의 빛' 등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대중적인 합창곡으로 마지막을 장식한다.



고충진



김관수



이영미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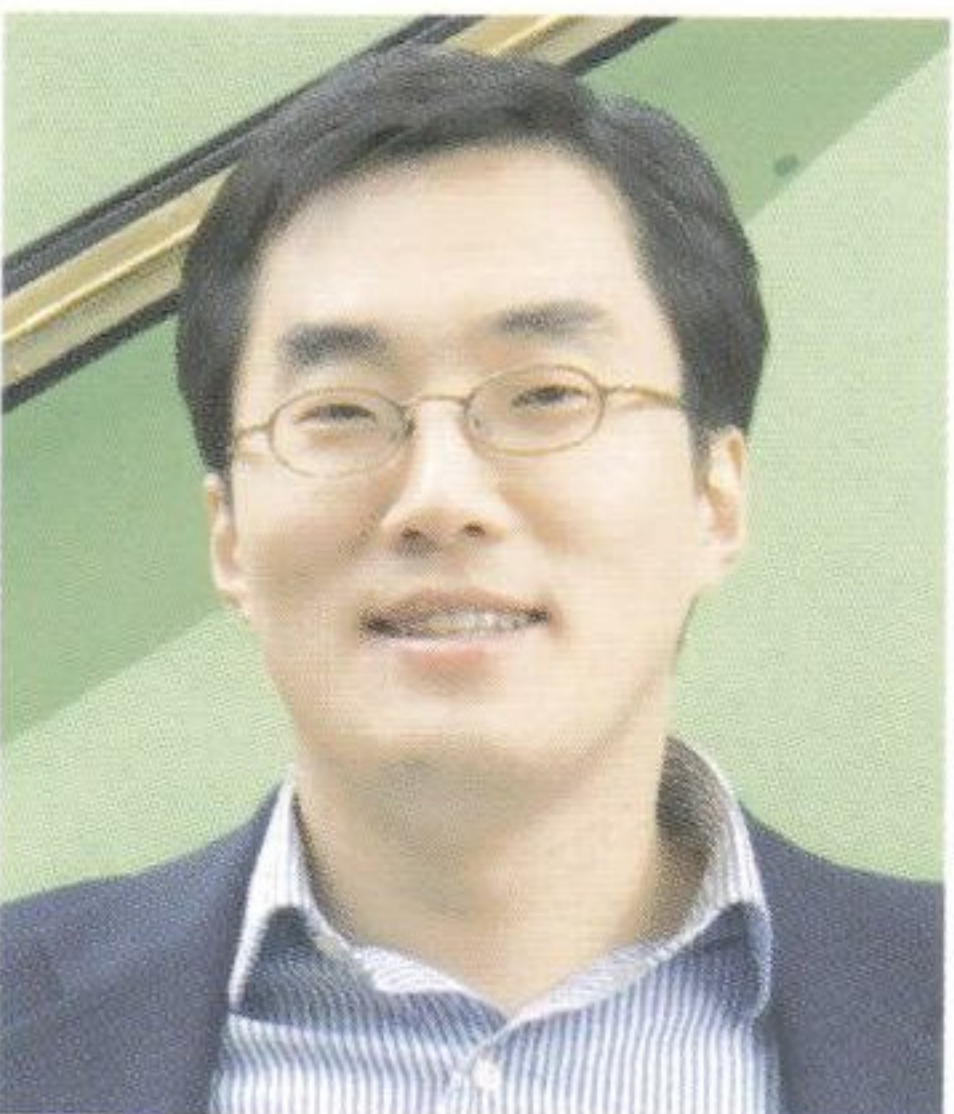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는 그림

10월 20일 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김영호

깊어가는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을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는 그림'이 오는 10월 20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니시모프가 지휘하고 피아니스트 김영호, 윤철희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피아노곡이었으나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어 사랑받는 라벨의 '어미거위',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과 프랑스적인 세련미와 우아함이 어우러진 뿔랑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61'이 연주된다.



윤철희

첫 곡으로 연주되는 라벨의 '어미거위'는 유럽 각국의 민담을 채록한 페로의 동화집 '어미거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요정이야기를 소재로 작곡된 피아노곡으로 이후 관현악곡으로 편곡, 전주곡과 간주곡을 추가시켜 완성시킨 곡이다. 건축가이자 화가였던 친구 빅토르 하르트만의 유작 전시회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은 러시아 민요와 농민무곡을 사용, 생생한 러시아풍 음악을 구사하고 있다. 피아노곡이었던 '전람회의 그림'은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관현악곡으로 편곡되었는데, 이번 무대에서는 원곡에 충실하면서도 근대 관현악법의 묘를 살려 눈부신 색채를 보여줬던 라벨의 편곡을 들려준다.

뿔랑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61'을 들려줄 피아니스트 김영호는 컬럼비아 예비학교와 줄리아드 음대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맨해튼음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9년 귀국한 김영호는 독주, 협연 외에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1999년 서울 챔버뮤직 소사이어티를 창단했으며, 2004년부터 스페인 아로나 뮤직페스티벌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영호는 현재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

또다른 협연자 윤철희는 서울대학교 재학중 독일로 건너가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트로싱엔 국립음대에서 석사와 전문연주자 과정을 마쳤다. 현재 국민대학교 교수로 있는 윤철희는 10살 때 부산시립교향악단과의 협연을 시작으로 그동안 체코 야나체크 오케스트라, 서울 스트링 앙상블, 북 체코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 무대를 가졌으며 윤이상 음악제, 금호아트홀 개관기념 연주 및 지방 순회연주회 등 국내외 다양한 무대에서 활발한 연주활동을 펼쳐왔다.

■ 입장료 :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카드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좌석을 미리 예약하십시오.)

■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제 3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재독 피아니스트 이미주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4회 정기연주회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지난 7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휘자로 취임한 지휘자 이동신이 10월 26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4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수석지휘자 이동신이 지휘하고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독 피아니스트 이미주가 협연하는 이번 무대는 핀지의 새번강(江) '광시곡' 작품 3, 카발레브스키의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광대들' 작품 26, 이베르의 디베르티스망 '희유곡' 등 그동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에서 연주하지 않은 새로운 레퍼토리로 가을의 서정을 선사한다.



이동신

계명대학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이동신은 재학시절인 1996년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 부설 루빈시타인 국립극장에서 '세빌리아의 이발사'로 오페라무대에 데뷔한 이래 동 가극장의 부지휘자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오페라 제작에 참여하거나 지휘하였고, 최우수 졸업으로 음악원을 마쳤다. 이동신은 마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와 창신대학 및 계명대학교 겸임교수, Michigan State University Post Doctorate Conducting Intern 및 Assistant Conductor로 활동한 바 있다.



이미주

이번 무대 협연자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첫 만남을 갖는 피아니스트 이미주는 피아노 부문에 한국인 최초로 퀸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 데 이어 비오티 국제 콩쿠르 1위, 일본 도쿄 국제 콩쿠르 등에 입상해 세계무대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미주는 서울예고 3학년 때 DAAD 독일 정부 장학생으로 도독하여 에센 폴크방 국립음대, 베를린 국립음대 및 대학원, 미국 뉴잉글랜드콘서바토리,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을 졸업하였다. '스케일이 큰 연주자' '개성이 넘치는 대형 피아니스트'라는 평을 받고 있는 이미주는 최근 부조니 국제 콩쿠르, 비오티, 뮌헨, 제네바, 프랑스 오를레앙 20세기 현대음악 콩쿠르 등 세계 유수의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미주는 이번 무대에서 단아하면서도 우아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내림나장조 작품 19를 들려준다.

이베르의 디베르티스망 '희유곡'은 1928년 암스테르담 왕립 극장의 의뢰로 작곡된 곡으로 유우머스러하여 가볍게 친근해 질 수 있는 유쾌한 곡이다. 마지막 무대를 장식할 카발레프스키의 모음곡 '광대'는 어린이를 위한 부수 음악에서 편곡한 모음곡이다.

■ 입장료 : 균일 2,000원

■ 문 의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607-6109),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대극장

민병수 발레 30년 기념 공연

2일 월요일 오후 7:30

1977년 국립발레단에 입단하여 그해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의 주역으로 발레인생을 시작한 부산대학교 민병수 교수의 발레 인생 30년을 기념하는 공연.

이번 공연은 그가 양성한 제자들인 '민병수 브이쉬 발레단'과 함께 발레 인생을 처음 시작한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창단 공연 파트너였던 김인희 단장의 서울발레시어터, 그가 몸담았고 과거 파트너였던 문훈숙 단장이 이끄는 유니버설발레단이 함께 축하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민병수 브이쉬 발레단 '열정' '환희의 순간'
서울발레시어터 '생명의 선'
유니버설발레단 '심청' 중 'Moonlight Pas de deux' '프레스코'
국립발레단 '파리의 불꽃' 등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부산대학교 무용학과(510-1740)

2006 부산발레연구회 정기공연

발레... 또 다른 만남

3일 화요일 오후 5:00



1992년 부산대학교 발레 전공자들로 창단된 부산발레연구회의 2006년 정기공연.

Jive, Rumba, Jazz와 Ballet이 함께하는 'Dance, Dance, Dance', 반만년 역사 속의 내재된 민족 '얼'을 창작 발레로 승화시킨 'The Spirit of Korea'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Dance, Dance, Dance(안무/주수광)

The Spirit of Korea(안무/주수광)

·출연/김영지, 이성희, 김주목, 공문정, 윤은정, 임희진, 박종위, 김기연, 김은화, 문민희, 유수연, 김사라 외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김주목(011-570-4609)

테너 양승엽 귀국 독창회

9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L.Perosi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귀국한 양승엽 귀국 독창회.

양승엽은 유학중 U.Giordano,

Citta di Angro, M.Batistini, Citta di Nettuno 국제콩쿠르에 입상했다.

프로그램

이태리가곡/이상, 나 꿈을 꾸었네
푸치니/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비제/ '카르멘' 중 '꽃노래' 등 수곡
· 피아노/김진희

입장료 초대

문의 양승엽(010-7767-4390)

2006 칸타빌레남성앙상블 10주년 기념

베르디 리골렛토 갈라공연

10일 화요일 오후 7:30

중후한 음색과 풍부한 성량으로 남성 앙상블의 매력을 전해온 칸타빌레남성앙상블의 창단 10주년을 기념, 베르디의 대표작 '리골렛토' 갈라 무대를 선보인다.

· 연출/김성경
· 지휘(예술감독)/이기균
· 음악코치/박기덕
· 출연/김길수, 안상철, 심정보(이상 리골렛토), 전영무, 박은미(이상 질다), 이홍득, 이은민, 윤정윤, 김창환(이상 만토바), 박소연(막달레나), 박기범(스파라푸칠레)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안상철(016-9302-5271)

제 1066회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아라미르합창단과
울속도교향악단이 들려주는
평화의 메시지**

12일 목요일 오후 7:30

국내 첫 시민교향악단으로 출발한 울속도교향악단과 올해 4월 창단한 아라미르합창단이 들려주는 MBC 목요일음악감상회.

프로그램

모차르트의 합창속으로/C단조 미사 KV 427 중 '키리에' '글로리아', 레퀴엠 KV 626 중 'Dies Irae' 'Confutatis' 'Lacrimosa'

푸치니/오페라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카르딜로/무정한 마음 등 수곡

· 연주/아라미르합창단(지휘/이성훈)
울속도교향악단(지휘/김인호)

· 바이올린/조현미

· 소프라노/김경희 · 테너/이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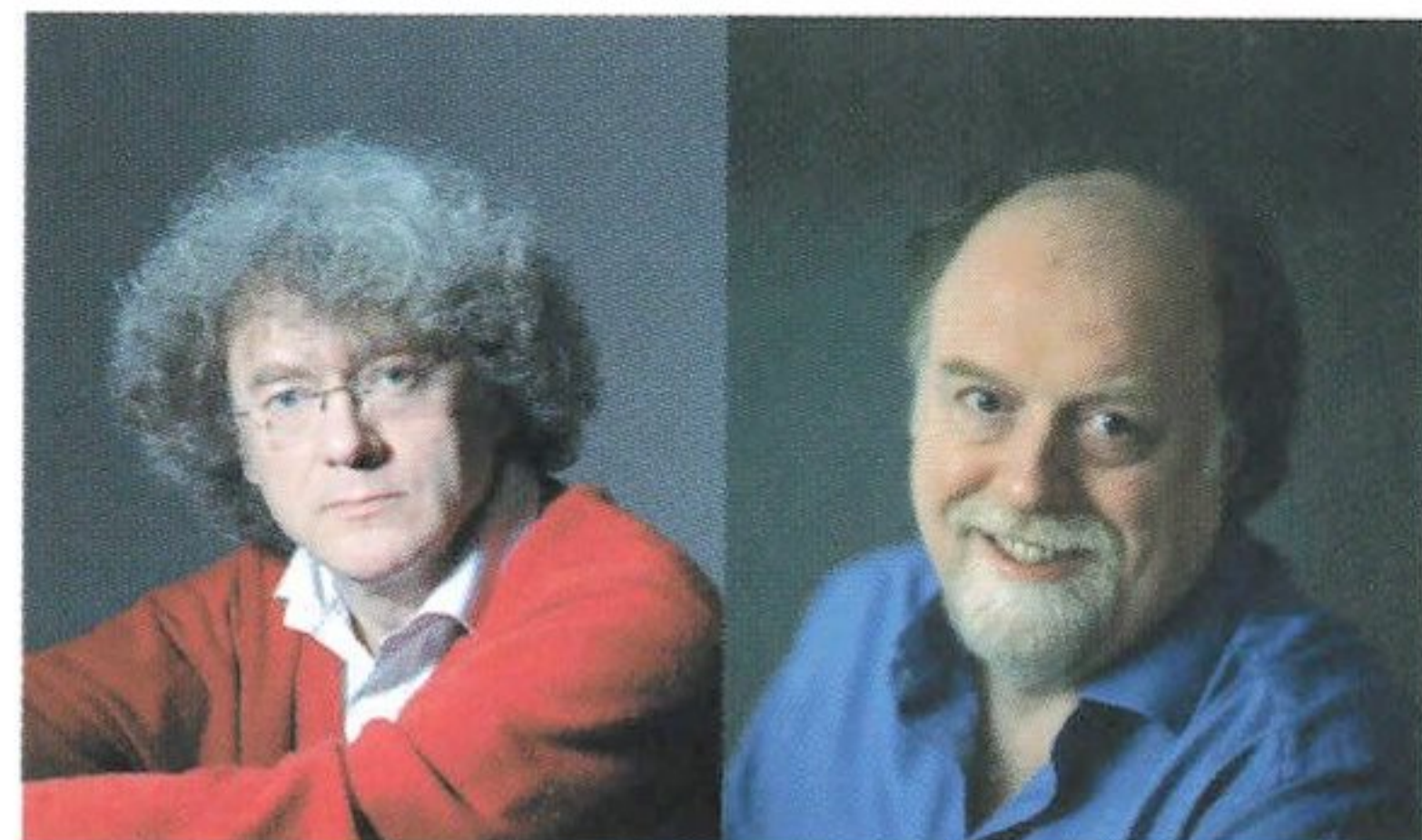
입장료 R석 20,000원 · S석 10,000원
(학생 50% 할인)

문의 울속도교향악단 사무국(203-2627)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3회 정기연주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피터 도노호 초청연주회**

13일 금요일 오후 7:30



알렉산더 아니시모프 피터 도노호

뛰어난 음악성과 현란한 스타일, 당당한 테크닉을 두루 갖춘 이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로 손꼽히는 피터 도노호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 423회 정기연주회.

1982년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세계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피터 도노호는 현재 유럽, 미국, 동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 세계 각지에서 눈부신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피아노 협주곡 제2번 사장조
작품 44(오리지널 버전)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 27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피터 도노호(피아니스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4)

한 · 불수교 120주년 기념공연

**양성원, 필립 그라핀, 드니스 파스칼의
한불 트리오 콘서트**

14일 토요일 오후 7:30



한국의 세계적인 첼리스트 양성원과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 필립 그라핀, 피아니스트 드니스 파스칼의 트리오 무대와 함께 서양의 문화적 융화를 현대음악으로 표현하는 작곡가 김지영과 26세의 나이로 맨해튼 작곡과 교수로 임명된 피에르 샤르베의 초연 작품을 연주한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트리오 No.5 라장조 작품 70 'Ghost'

피에르 샤르베/피아노 트리오 '송코'

김지영/팔만대장경

라벨/피아노 트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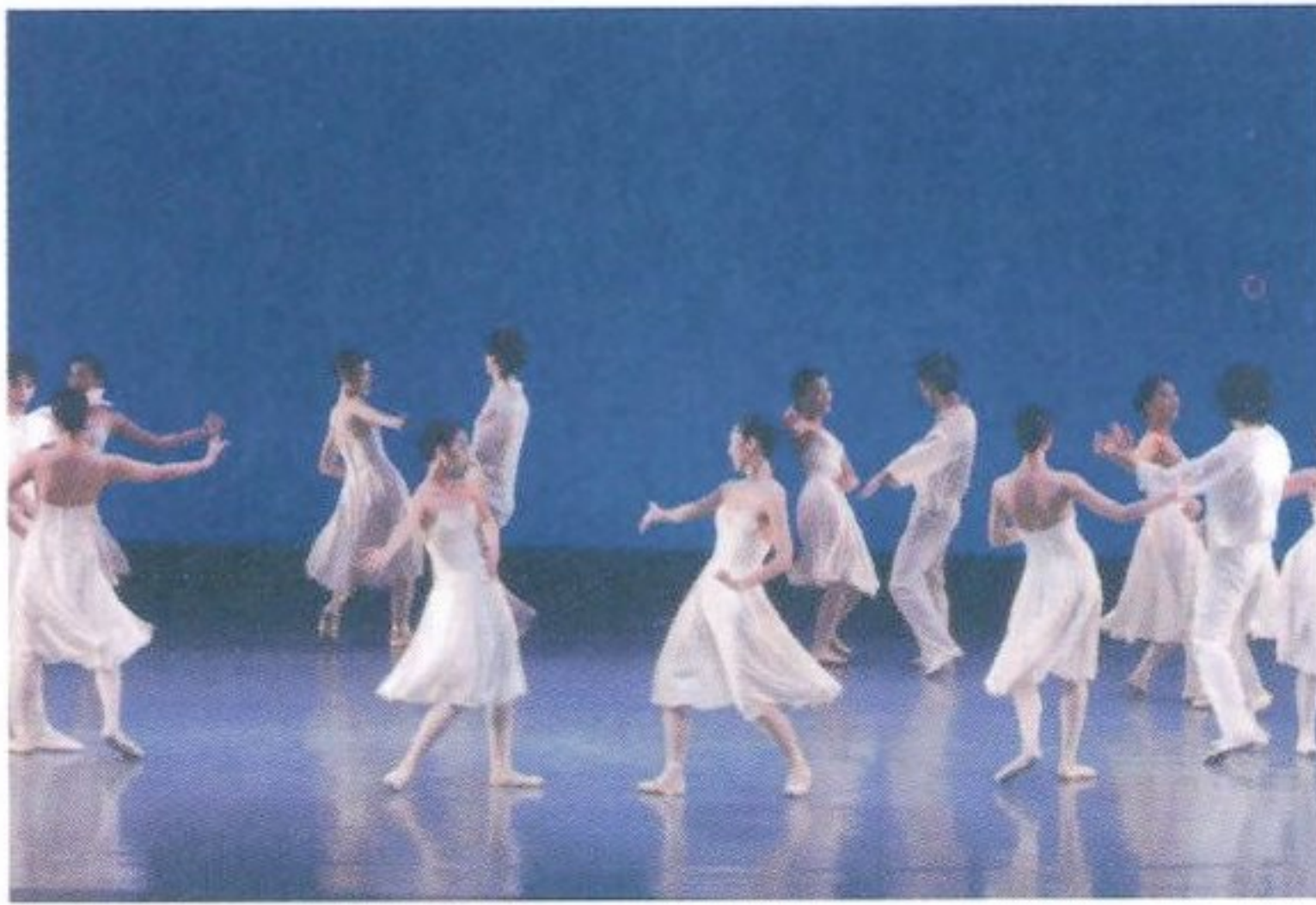
· 협연/안성우(대금, 영남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문의 A&A(02-2187-6222)

2006 김복선 발레 공연

16일 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교수, 동아발레연구회 예술감독으로 발레 대중화를 위해 활동해온 김복선 교수의 2006년 발레 무대.

프로그램

I, Sea(출연/신세정, 조혜진, 박미화, 오민영, 김경란, 고혜란, 유은지, 박지미 외)

'호두까기 인형' 중에서 'Pas de Deux' (안무/Ley Ivanov · 출연/김연희, 강경수)

Sometimes it Snows in April(안무/Laura Dean · 재안무/김복선 · 출연/신세정, 표혜원, 조혜진, 박미화 외)

Ballo della Regina · 여왕의 발레(안무/발라신 · 재안무/김복선 · 출연/김연희, 강경수, 신세정, 표혜원, 조혜진 외)

입장료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A석 10,000원

문의 신세정(011-9505-9907)

부산시립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이 세상의 모든 음악 II

17일 화요일 오후 7:30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을 만날 수 있는 부산시립합창단 제 120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우리나라 작곡가가 만든 합창음악/강강술래 (작, 편곡 진규영), 승무(함태균), 신상사소리(제주민요, 조치노)

호주와 중국의 합창음악/세 곡의 호주 숲의 노래- '새벽' '새' '일몰', 소하창수 (운남민요), 용춤, 신부맞이 등 수곡

· 지휘/김강규(부산시립합창단 수석지휘자)

· 협연/고충진, 김판수

· 승무/이영미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통합 마케팅 시대의 뉴 브레인! 포애드

[주]포애드 | 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국제회의장 2층

TEL : 051) 627-2563(대) FAX : 051) 627-2560

광고기획, TV/RADIO 광고제작 및 대행, 신문/전단/카타록 인쇄광고 제작, 기업CIP/BIP,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광고 마케팅 기획

되돌아보며 마련하는 합창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K. 339
러시아 합창곡/새하얀 벚꽃, 비가
라흐마니노프/6곡의 여성합창 '다 함께 누
리는 영광' '밤' '소나무' 등 수곡
· 지휘/한성용

입장료 초대

문의 경성대학교 음악학과(620-4918)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아름다운 선율로 그리는 그림

20일 **금요일** 오후 7:30



김영호

윤철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지휘자 알렉산더 아
니시모프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영호, 윤철희가 들려주는 부산시립교향악
단 특별연주회.

프로그램

라벨/어미 거위
뿔랑/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라단조
작품 61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라벨 편)
· 지휘/알렉산더 아니시모프
· 협연/김영호(연세대학교 교수), 윤철희(국
민대학교 교수)

입장료 R석 10,000원 · S석 7,000원
A석 5,000원

문의 부산시립교향악단(607-6101)

**바리톤 김동규 리사이틀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21일 **토요일** 오후 7:30

세계적인 바리톤으로 인정받은 가창력, 재
치있는 말솜씨, 넘치는 끼로 많은 사랑을 받



고 있는 바리톤 김동규 리사이틀.

세계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베르디 국제
성악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김동규는 이태리
라스칼라 오페라극장 오디션에서 한국인으로
는 최초로 통과했다.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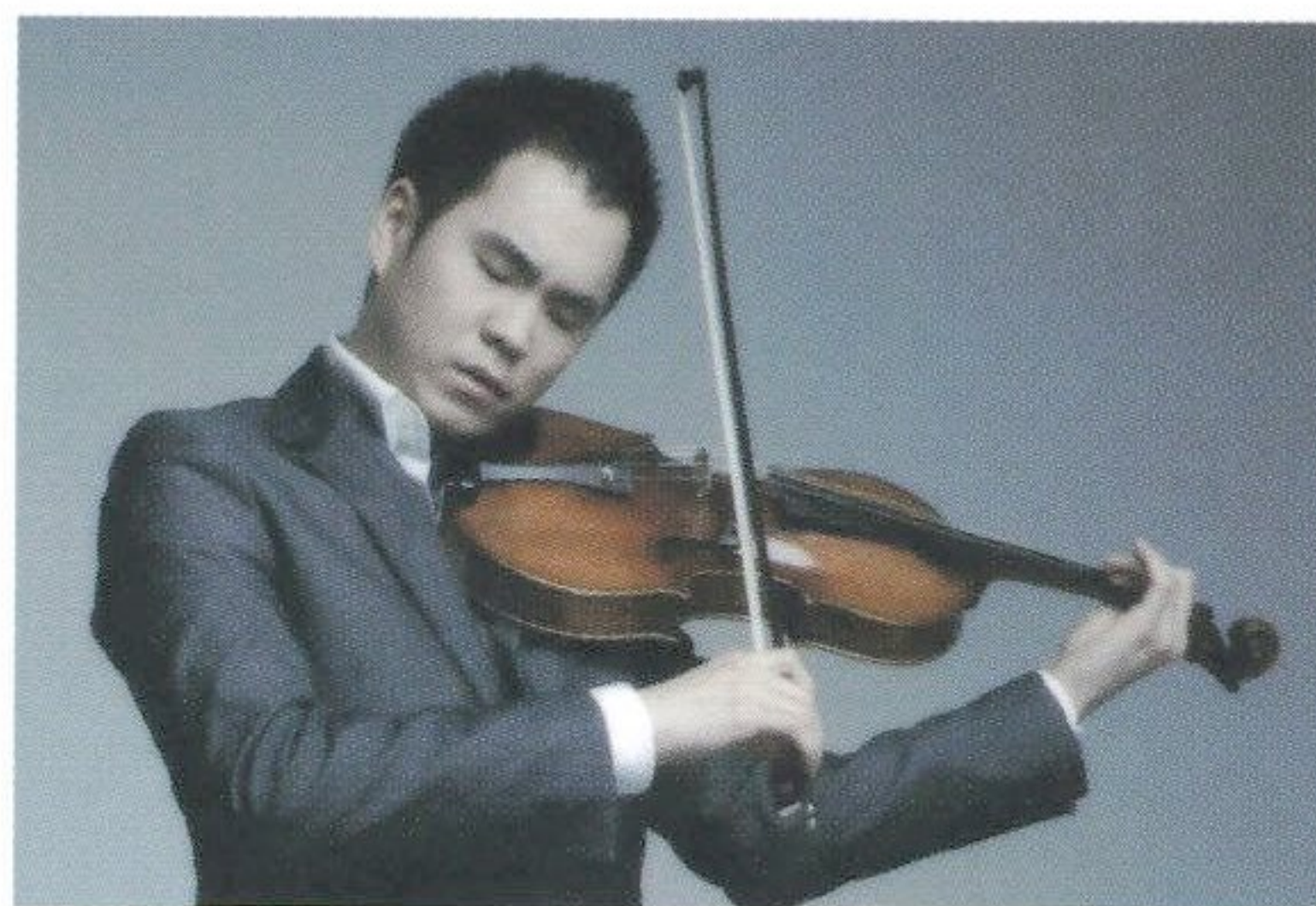
영화음악, 뮤지컬 음악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대 향한 사랑'
(드라마 장희빈 중)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기획 예성(248-2011)

**리처드 용재 오닐의
Lachrymae(눈물)**

22일 **일요일** 오후 6:00



2004년 우리에게 KBS '인간극장'을 통
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 주었던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두 번째 독주 앨범 발매
를 기념한 전국 순회연주회.

용재 오닐은 지난 5월 미국 클래식 최고
권위 있는 상인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수상했다.

프로그램

니노 로타/현악 협주곡
오펜바흐/자클린느의 눈물
스트라빈스키/엘레지 등 수곡
· 연주/조이 오브 스트링스, 김진택(클래식

기타)

입장료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B석 2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
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라이프(626-9494)

**부산시구군연합합창단
제 4회 정기연주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 구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16개 합
창단이 마련하는 연합 합창무대.

프로그램

생상/동물의 사육제
가곡/청산에 살리라, 그대 음성 들리고, 시
냇물을 건너다가 등 수곡
· 지휘/박근기 · 반주/김미양

입장료 초대

문의 차순남(018-577-3137)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24일 **화요일** 오후 7:30



세계 언론의 격찬에도 늘 겸손하고 열정적
인 무대매너로 팬들을 사로잡는 세계적 피아
니스트 백건우 부산연주회.

나움버그 콩쿠르(Naumberg Award)
우승, 부조니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 세계
적인 명성을 얻은 백건우는 이후 세계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디아파종상 수상, 프
랑스 3대 음악상 수상 등으로 더욱 명성을
높였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론도 가단조 K. 511
베토벤/소나타 제 31번 작품 110 내림가장조
바그너-리스트/'트리스탄과 이졸데' 중 '사
랑의 죽음' 등 수곡

입장료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공연기획 예성(248-2011)

제 20회 부산합창제

25일-28일 목-토요일 오후 7:30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들이 펼치는 최고의 합창축제로 27개 합창단이 다양한 장르의 합창음악을 들려준다.

출연

- 부산코러스합창단(지휘/박근기)
- 노엘합창단(지휘/김명현)
- 우담바라합창단(지휘/정수연)
- 기드온콰이어(지휘/연명희)
- 글로리콰이어(지휘/이정철)
- CBS여성 성가단(지휘/이외균)
- 푸른합창단(지휘/이순희)
- 부일여성합창단(지휘/전상철)
- 토브남성합창단(지휘/이수은)
- 부산KBS여성합창단(지휘/김명규)
- 진각종유가합창단(지휘/이순희)
- 동구여성합창단(지휘/이광신)
- 부산콘서트콰이어(지휘/전상철)
- 관음사환희합창단(지휘/시명스님)
- 수련여성합창단(지휘/백승태)
- 부산레이디싱어즈(지휘/손욱)
- 한마음선원여성합창단(지휘/정성민)
- 부산시구군연합합창단(지휘/박근기)
- 오륙도여성합창단(지휘/이외균)
- 바라밀여성합창단(지휘/정수연)
- 기장군해송여성합창단(지휘/이창균)
- CBS권사 성가단(지휘/김광일)

코러스에듀아모(지휘/배승택),
부산하모니합창단(지휘/김강규),
단비울남성합창단(지휘/강성철),
불교대학환희합창단(지휘/이연화),
동의대학교 음악대학합창단(지휘/이무호)

입장료 균일 3,000원

문의 부산시립합창단(607-6126)

아지무스 오페라단

오페라 사랑의 묘약

10월 30일-11월 1일 월-수요일
오후 7:30



2002년 창단 이래 해마다 다양한 오페라 무대를 열어온 아지무스 오페라단의 '사랑의 묘약'.

이번 공연 수익금은 백혈병 환아를 위한 수술비로 기증한다.

- 연출/최이순 · 지휘/박종휘, 김명규
- 연주/인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
- 합창/동아콘서트콰이어

출연

임충진, 박찬, 우경준(이상 네모리노), 백선아, 고예정, 류은영(이상 아디나), 안영중, 고정현, 김성복(이상 벨코레), 손욱, 김태형(이상 둘까마라)

입장료 VIP 70,000원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아지무스오페라단(246-6404)

중극장

윤태준 바순독주회

1일 일요일 오후 5:00



러시아 글링카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순니스트 윤태준 독주회.

- 특별출연/한광현(창원시립교향악단 부수석)
- 피아노/이은정(부산시립교향악단 부수석)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피아니스트 최지원 귀국 독주회

2일 월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북일리노이 주립대학에서 피아노 및 반주학 석

since 1955



MUN WOO DANG BOOK STORE
www.mwdangbook.com

문우당서점

Tel: 245-3843(대표)
245-2714(공연문의)
자갈치시장정문 아치탑앞
(미니올 건너편)

각종 공연예매처

통도원타자, 경주월드, 광안리미월드 연계계속 예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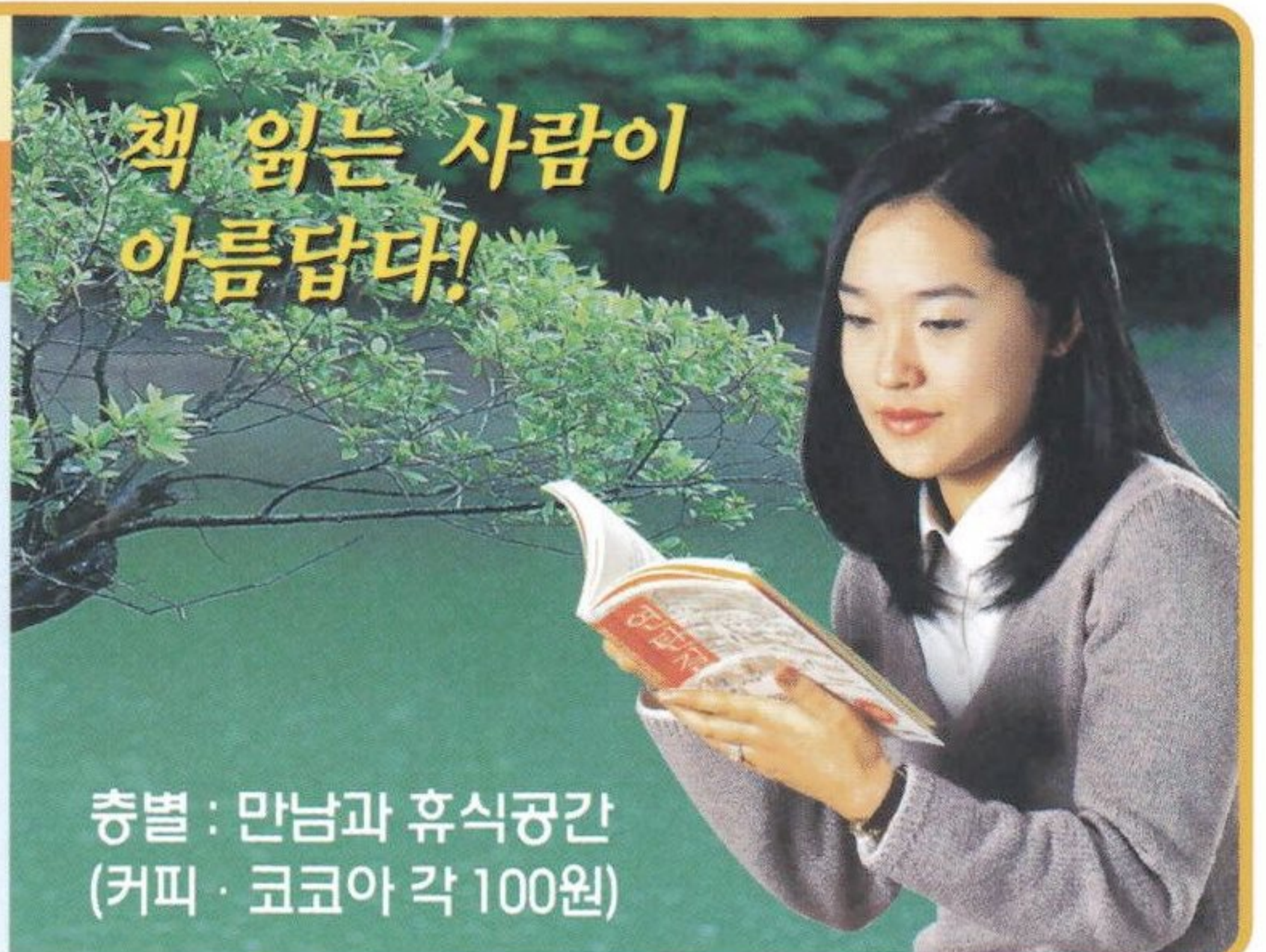
52년의 양심경영 앞으로도 이어가겠습니다!!

대형종합서점(지하 1~5층) 최대의 종합지도센터

지금부터 ~ 3월까지는 캘린더
그 이후로는 「세계지도」 기타, 선물
'2007' 세계지도캘린더 증정

- ❖ 문우당서점회원카드로 문우당서점과 CGV 영화관까지 공용적립(회원카드 무료발급)
- ❖ 가마골소극장 특정요일할인(50~20%)

책 읽는 사람이
아름답다!



충별 : 만남과 휴식공간
(커피 · 코코아 각 100원)



사(M.M), 전문연주자 과정(P.C)을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최지원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타 내림마장조 작품 31

쇼팽/녹턴 올림다단조, 폴로네이즈 올림다단조, 작품 26 등 수곡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하예라 피아노 독주회

3일 화요일 오후 7:30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한 차세대 유망주 하예라 피아노 독주회.

하예라는 2006 한독브람스협회 콩쿠르에서 2등에 입상, 한독브람스협회

콩쿠르 수상자 연주회를 가졌다.

프로그램

베토벤/소나티 제 7번 라장조 작품 10 제 3번

라흐마니노프/9개의 연습곡 작품 39 제 9번,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입장료 초대

문의 하예라(010-6276-1895)

강남길 피아노 독주회

9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

아니스트 강남길 독주회.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녹턴 작품 10 제 1번, 사계 작품 37

무소르그스키/전람회의 그림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강남길(011-240-1911)

제 20회 소프라노 김문희 독창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꾸준히 독창회를 열어온 부산대학교 김문희 교수의 제 20회 독창회.

이번 무대는 정년을 맞을 때까지 20번의 독창회를 계획

했던 김문희 교수의 은퇴기념 무대로 학문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이 담겨있다.

프로그램

슈만/여인의 사랑과 생애

롯시니/베네치아의 뱀놀이

토마스/오페라 '미농' 중 '알고 있나요 고향을?' 등 수곡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대학교(510-2910)

2006 뮤지컬 락햄릿

13일-15일 금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6:00



신성우, 박효신, 송용진, 리아, 진주, 김재만, 문혜영, 민영기 등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 락햄릿 2006년 무대.

· 작/조광화 · 연출/전훈

· 작곡/이동준 · 안무/이란영

· 출연/서세권, 장덕수, 김선아, 김용현, 신

입장료 동회, 김지원, 김지훈, 배은지 외

R석 44,000원 · S석 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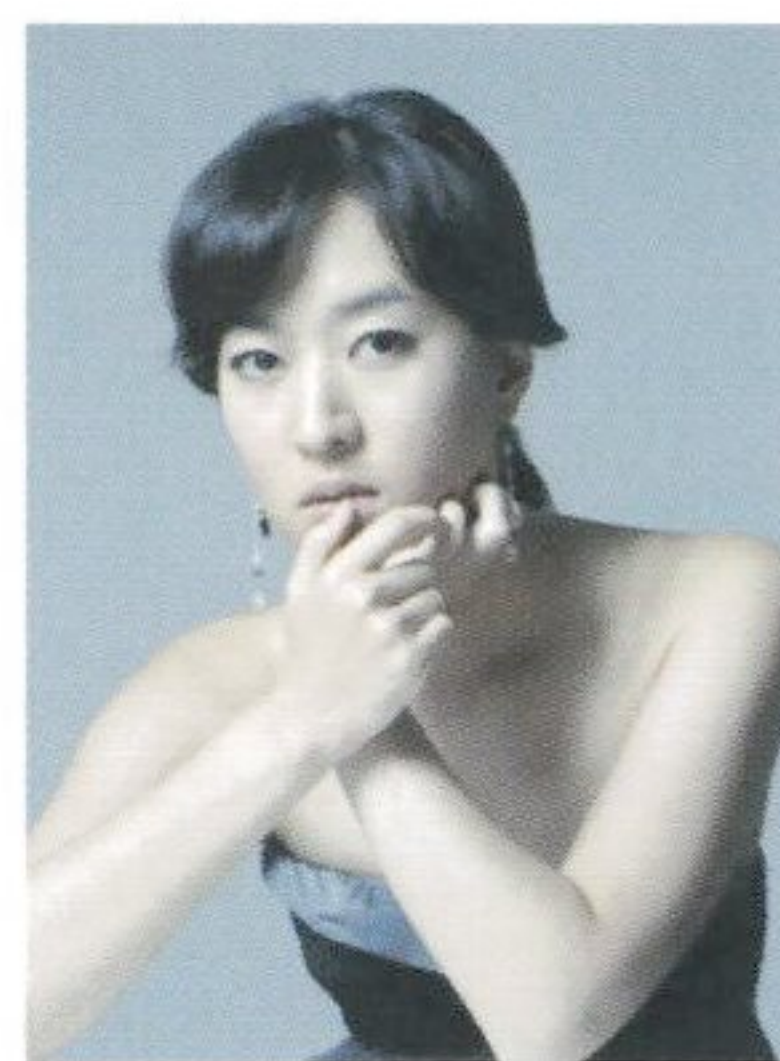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할인)

문의 레드슬리퍼(622-3496)

김가영 비올라 독주회

The Hidden Charm

16일 월요일 오후 7:30



한국 예술종합학교, 뉴욕 메네스음대를 졸업하고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가영 비올라 독주회.

프로그램

힌데미스/비올라 소나타 작품 25 제 1번
피아졸라/리베르탱고, 미첼란젤로 70
페데레츠키/비올라를 위한 카덴자 등 수곡

· 피아노/윤유진

입장료 초대

문의 김가영(011-9707-3087)

제 30회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슈만 서거 150주년 기념 연주회

17일 화요일 오후 7:30

가곡과 피아노곡에 뛰어난 재능을 보인 독일 작곡가 슈만 서거 150주년을 맞이하여 총 26곡으로 되어있는 슈만의 Myrten 작품 25의 전곡과 중창곡을 들려준다.

출연

김현숙, 김미성, 박민경, 정서영(이상 소프라노), 김효순, 정옥심(이상 메조소프라노), 김명규, 김지호, 우원석(이상 테너), 허종영, 김종화(이상 바리톤)

· 피아노/이화영선, 공소현, 손정화, 임효진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현식(011-566-4172)

제 24회 이태리음악연구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II

19일 목요일 오후 7:30

지난 5월 모차르트의 이탈리아어 텍스트의 아리아와 중창을 선보였던 이태리음악연구회의 시리즈 두 번째 무대로 모차르트의 가곡과 콘체르토 아리아는 물론 우리 귀에 익숙한 다양한 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Laudate Dominum(주를 찬양하라), Ave Verum(아베 베룸), Ridente la Calma(평안을 주소서) Se Vuol Ballare(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춤추길 원하신다면') 등 수곡

출연

민상순, 정태미(이상 소프라노), 박소년(메조 소프라노), 장원상, 서명보, 오동주(이상 테너), 김길수, 김대성, 최기천(이상 바리톤), 권영준(베이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오동주(017-556-505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 30회 청소년 협연의 밤 연주회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20일 금요일 오후 7:30

오디션을 통과한 유망주들이 박호성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무대를 갖는다.

프로그램

박범훈/창부타령에 의한 피리 협주곡

이상규/대금협주곡 '대바람 소리'

박준석(편곡)/창과 관현악 '심청가 중 배는 고파 - 중타령'

이준호/소금협주곡 '길' 등 수곡

· 지휘/박호성(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선혜, 조영아, 김지영(이상 가야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조은경(소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방지혜(판소리, 동국대학교 국악과 4학년), 조희규(해금, 부산예고 1년), 이은아(대금, 부산대학교 국악과 4년), 박미영(피리, 영남대학교 대학원)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6110)

박윤정 피아노 독주회

22일 일요일 오후 7:30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이태리 로마 아르츠 아카데미 최고 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피아니스트 박윤정 독주회.

프로그램

모차르트/글룩 오페라 메카의 순례 중 아리아 '우리의 어리석은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주제에 의한 10개의 변주곡 K. 455

드뷔시/피아노 모음곡 '어린이를 위한 세계'

입장료 초대

문의 박윤정(010-9878-1973)

제 32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

23일-24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 피아노 듀오 협회가 들려주는 모차르트 탄생 250주년 기념 음악회로 첫날은 작품에 대한 진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젊은 연주자들이 마련하는 개성 넘치는 독주 무대, 둘째 날은 듀오 무대를 마련한다.

제 1일 23일 월요일 -Solo-

· 연주/조혜영, 양광기, 최태연, 장효진, 김인미, 서혜원

제 2일 24일 화요일 -Duo-

· 연주/한은아, 이민숙, 서양지, 허혜정, 강미연, 장진이, 이문숙, 박선미, 배수정, 강지영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서숙지(018-563-6692)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 제 11회 정기연주회

25일 수요일 오후 7:30

1993년 창단된 이래 꾸준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여성문화회관 미루샘합창단의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윤용하/나뭇잎 배

러시아 민요/호롱불

롯데니/고양이 이중창

윤지영/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 등 수곡

· 지휘/고봉수 · 반주/임시진



부산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든든한 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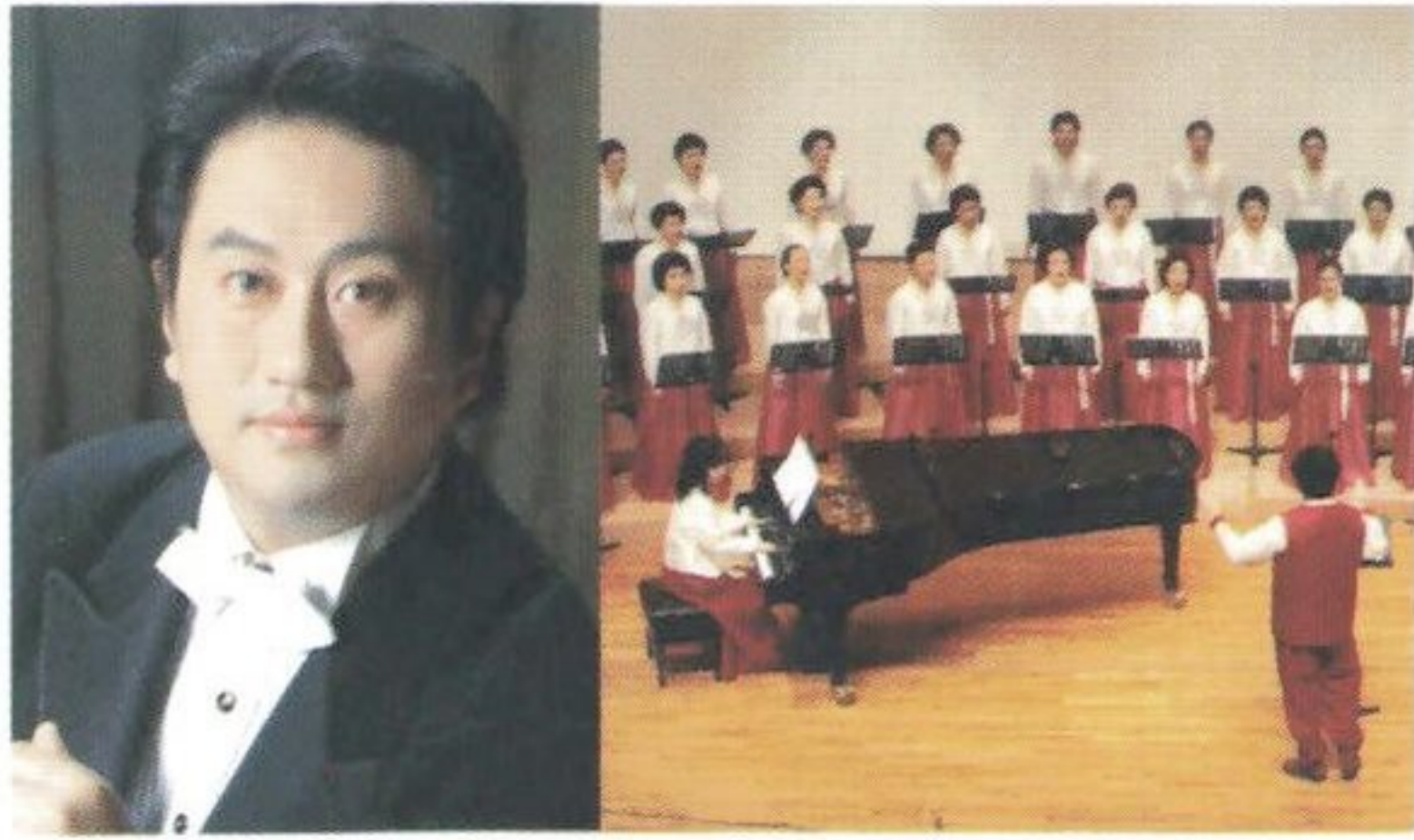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은 부산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한발 앞서가는 큰 병원으로 새롭게 도약·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내과 | 소화기내과 | 소아과 | 신경과 | 정신과 | 피부과 | 외과 | 흉부외과 | 정형외과 | 성형외과 | 신경외과 | 산부인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가정의학과 | 재활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 진단방사선과 | 진단검사의학과 | 병리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1330

· 대표전화: 051)507-3000 · Fax: 051)507-3001 · 홈페이지: www.busanmc.or.kr



고봉수 미루샘합창단

· 특별출연/소프라노 최훈녀, 소프라노 신정순, 해금 이진호

입장료 초대
문의 부산여성문화회관(320-8334)

제 3대 수석지휘자 취임기념
재독 피아니스트 이미주와 함께 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 24회 정기연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지난 7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수석지휘자로 부산과 인연을 맺은 이동신 지휘자의 취임연주회로 피아노 부문에 한국인 최초로 벨기에 퀴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입상한 재독 피아니스트 이미주가 협연한다.

프로그램

핀지/새번강(江) '광시곡' 작품 3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2번 내림나장조
작품 19
카발레브스키/소규모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 '광대들' 작품 26 등

입장료 균일 2,000원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선교자를 위한 저녁기도-

27일 금요일 오후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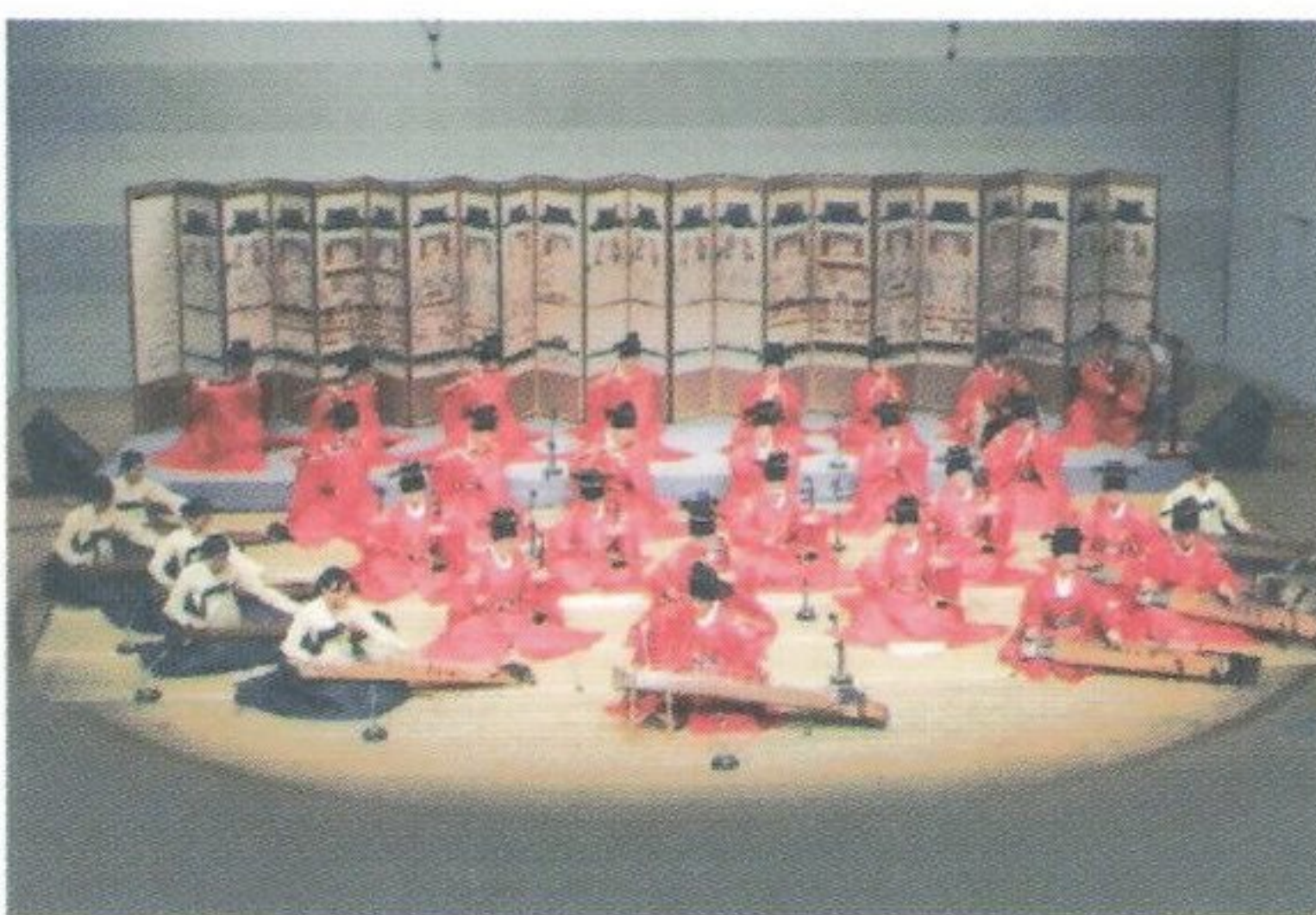
프로그램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다양한 연주활동을 펼쳐온 바리톤 최성규 독창회. 모두 성가곡으로 꾸미는 이번 독창회의 수익금은 선교자를 위해 쓰여진다.

헨델/메시아
프랑크/생명의 양식
최석태/갈보리사랑 등 수곡
· 피아노/이현주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최성규(011-564-3439)

창립20주년 기념
**어울림국악연구회 제13회
정기연주회**

28일 토요일 오후 7: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시민을 위한 무료 단소강습회에서 만난 회원들이 의기투합, 작지만 뜻있게 출발한 어울림국악연구회의 창단 20주년 기념연주회.

프로그램

관현합주 '평조회상' 중 '상령산' (집박/배양현)
대금독주 '상령산' '청성곡' (대금/유경조)
단소 양금병주 '중광지곡' 중 '염불도드리, 타령' 등 수곡
· 사회, 해설/김수일

입장료 초대
문의 어울림국악연구회(019-548-5418)

제 12회 목련합창단 정기연주회
**창단 27주년 기념 가족음악회
아름다운 동행**

29일 일요일 오후 7:30

경성대 사회교육원 소속 아마추어 여성합창단인 목련합창단의 제 12회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노래의 날개 위에, HAPPY IS, 춤추는 갈매기, 강가에서, 물새, 보리밭, 신아리랑(울산아가씨), 꽃구름 속에, 아베마리아(슈만), 10월에 어느 멋진날에 등 수곡

· 지휘/이철성 · 반주/박재나
입장료 초대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한국가곡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창작가곡의 밤

30일 월요일 오후 7:30

한국가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가곡연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부산작곡가들에게 곡을 위촉, 창작가곡의 밤을 마련한다.

· 작곡가/김은경, 최석태, 백승태, 하순봉, 진소영, 오영립
· 출연/김현숙, 성정하, 정서영, 김효순, 손자경, 김동윤, 이홍득, 함도관, 우기선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김동윤(01-875-3502)

소프라노 서정아 독창회

3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대학교와 동대학원, 이탈리아 밀라노 음악원 최고 연주자 과정 등에서 음악수업을 하고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소프라노 서정아 독창회.

프로그램

벨리니/뜨거운 갈망, 아름다운 나의 우상이여,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신귀복/얼굴
나운영/달밤 등 수곡
· 피아노/이현주

입장료 초대
문의 프리모아트매니지먼트(622-5529)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
어티 창단연주회**

11월 4일 토요일 오후 6:00

부산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7명의 전문 연주자들이 모인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의 창단연주회.

실내악 전문 연주단체로 의욕적으로 출발한 프로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는 앞으로 모차르트에서 쇼스타코비치까지, 현악 4중주에서 현악 8중주까지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다양한 시대 다양한 형태의 실내악 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현악 4중주 8번 다단조 작품 110

모차르트/현악 4중주 21번 라장조 작품 575 '프러시안' 등 수곡

연주

김영희, 백재진, 신상준, 김동욱, 이은옥, 백사론, 문주연, 엄세희(이상 바이올린), 이성호, 김가영, 김은진(이상 비올라), 전명희, 유대연, 신혜정, 이명진(이상 첼로), 박희철(콘트라 베이스), 노경원(피아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프로 뮤지카 챔버 소사이어티

문의 (521-5729, 011-9142-5729)

소 크 장

해설이 있는 거문고 독주회

2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고신대, 경성대, 부산교대 등에서 출강하고 있는 홍희철의 거문고 독주회.

프로그램

정악/하현도드리

김수진(편곡)/거문고, 첼로, 대금을 위한 '아리랑' '어메이징 그레이스'(초연)

황의중/18현 25현을 위한 아리랑 등

- 거문고, 해설/홍희철
- 대금/강영진 · 첼로/김판수
- 가야금/강미정, 서나영, 황정원, 이남연
- 장구/송강수

입장료 초대

문의 홍희철(016-510-0753)

신정운 귀국 피아노 독주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선화예, 중고를 거쳐 독일로 유학, 베를린 국립음대에서 디플롬과정과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하고 귀국한 신정운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훔멜/소나타 그랜드 작품 92

프로코피에프/소나타 작품 28의 5번

슈만/사육제 작품 9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코리아트Ent

(621-3882, 02-3775-3880)

문현영 첼로클래스연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예술중고등학교에 출강하고 있는 문현영 첼로클래스연주회.

· 출연/문현영, 윤유미, 서혜정, 윤지원, 홍영준, 정고른,

전지원 외

입장료 초대

문의 문현영(016-871-9407)

정선희 판소리 정정렬제 춘향가 완창

27일 금요일 오후 5: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선희의 정정렬제 판소리 춘향가 완창무대.

정선희는 완산전국국악대전 명창부 대상을 수상했다.

입장료 초대

문의 정선희(017-544-3139)

이문희 가야금독주회

30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 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이수자 이문희의 가야금 독주회.

이문희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APEC

문화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프로그램

황병기/춘설(반주/박환영)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전바탕(반주/구환석)

입장료 초대

문의 이문희(011-560-650)

제 11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발표회

31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정기발표회.

입장료 초대

문의 이정은(011-9511-7842)

- 음악
- 무용
- 연극
- 영화
- 콘서트
- 행사
- 전시

● 주요문화공간

- 가람아트홀(626-6664)
- 가마골소극장(245-0042)
- 가톨릭센터(462-1870)
- 경성대학교 콘서트홀(620-4561)
- 국도아트홀(247-4242)
- 금정문화회관(519-5651)
- 글로벌아트홀(505-5995)
- 놀이아트홀(631-0660)
- 동래문화회관(550-4481)
- 동보서적 문화홀(803-8000)
- 동서대학교 소향아트홀(320-1209)
- 동아대학교 석당홀(240-2651)
- 동의대학교 석당아트홀(890-1081)
- 민족굿터 신명천지(515-7314)
- 부산민주공원(462-1016)
- 부산사회체육센터(744-1181)
- 부산시민회관(630-5200)
- 부산전시컨벤션센터(740-7300)
- 소극장 너른(622-3572)
- 실천무대 소극장(245-5919)
- 엑터스소극장(611-6616)
- 열린소극장(555-5025)
- 을숙도문화회관(220-5321~4)
- 추리문학관(743-0480)
- 프랑스문화원(465-0306)
- 40계단문화관(600-4041)
- KBS 부산홀(620-7100)
- MBC아트홀(760-1000)
- SH공간소극장(621-8518)

(※ 가나다순)

음악

제 4회 부산오카리나클럽 정기연주회

1일 일요일 오후 7:00
시민회관 소극장

2002년 4월 창단한 오카리나 동호회 부산오카리나클럽은 그동안 정기공연과 청소년 어울림축제 초청공연, 레일아트 초청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 찬조연주/팬플룻동호회 팬하모닉

입장료 무료

문의 김청수(010-3930-2755)

금정수요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 4일 차세대 비르투오조들의 향연

차세대 음악계를 짊어지고 나갈 유망 신예 연주가들의 무대.

· 출연/김규, 서하미, 박가영, 김영진(이상 부산예고 2년), 감경주, 임혜주(이상 부산예고 3년)

· 해설/김윤선

■ 11일 부산가톨릭합창단 아마추어 솔리스트 무대

· 출연/권명희, 김영아, 노미애, 정인숙(소프라노), 윤매숙, 최옥수(메조소프라노), 배영석(테너), 손태영, 한민수(베이스)

· 피아노/박유미, 이소진 · 해설/박헌희

■ 18일 남순천, 엄남이의 가을 풍경



남순천

엄남이

부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남순천, 엄남이의 듀오무대.

가을의 정취에 어울리는 국내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백현주 · 해설/오동주

■ 25일 테너 정거화 독창회

중앙대학교와 이태리 롯시니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다양한 무대에 서온 테너 정거화가 들려주는 이태리, 한국 민요의 만남.

· 찬조출연/소프라노 이윤정

· 피아노/차미소란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금정문화회관(519-5651~2)

황보미영 피아노 독주회

9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음악학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러시아 N.노브고르토 글린카 국립음악원 박사과정에 있는 피아니스트 황보미영 독주회.

프로그램

스크라빈/녹턴 작품 5, 포엠 작품 32
라흐마니노프/프렐류드 작품 23 제 4번, 5번, 소나타 작품 26 등

입장료 초대

문의 황보미영(019-528-8219)

오신정 플루트 독주회

10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와 미국 맨하탄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플루티스트 오신정 독주회.

오신정은 KBS교향악단 부수석을 역

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게닌/베니스의 사육제

뒤부아/플룻 4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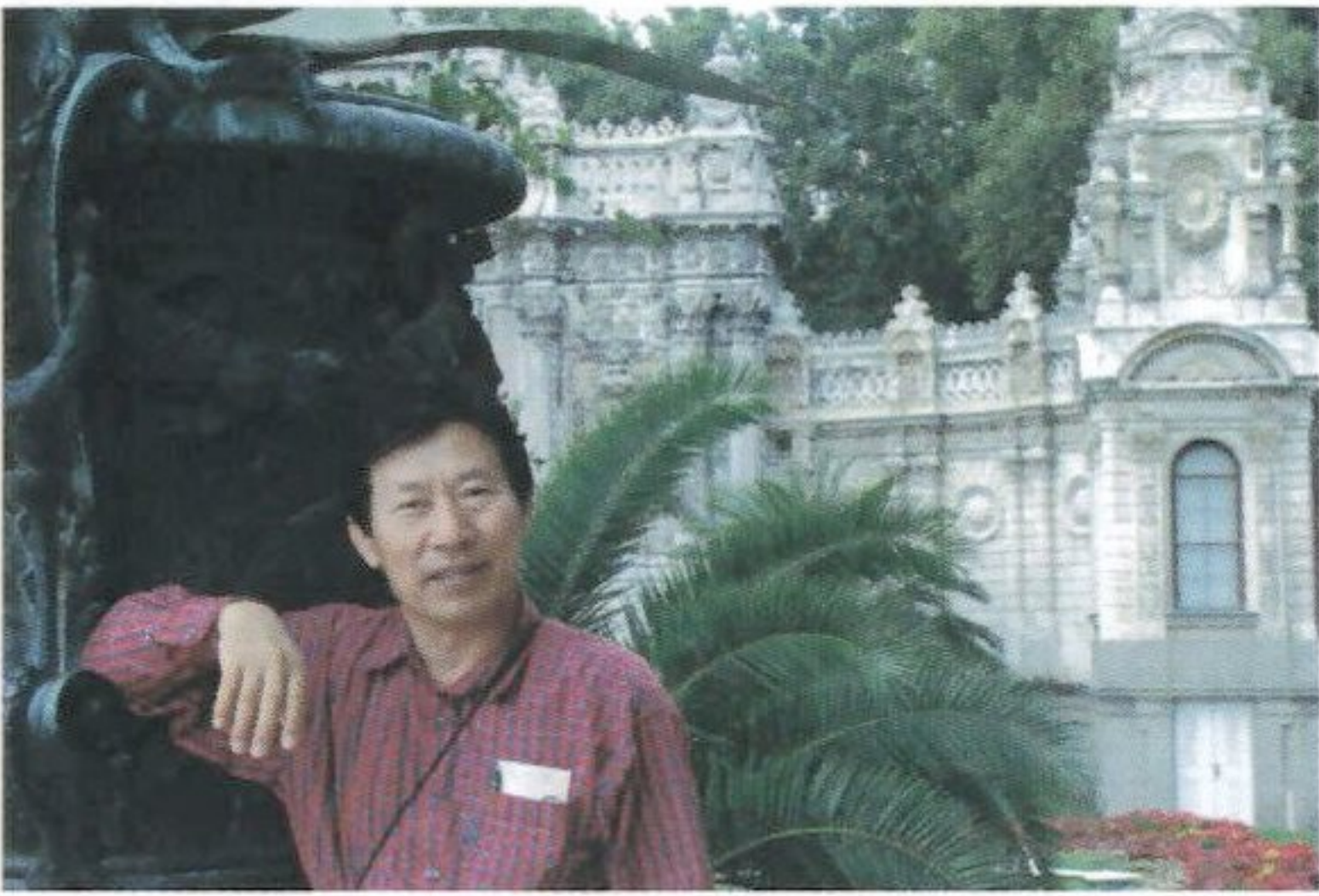
훔멜/소나타 라장조 작품 50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음악이 있는 세계문화기행 여섯 번째

10일 화요일 오후 3:00, 7:00
글로벌아트홀



오지여행가 도용복의 재미나는 해설로 즐기는 뮤지컬 환타지 '왕과 나' 영상상영회.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소노레 플루트 앙상블 제 5회 정기연주회

11일 수요일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1988년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4차례 정기연주회를 가져오다 지난 1991년 활동을 중지했던 소노레 플루트 앙상블이 새 출발을 시작하며 마련한 정기연주회.

프로그램

아일랜드 민요/브리안 보루의 행진곡
브리치알디/세레나데 작품 137 등 수곡
·출연/김순희, 신형숙, 강미정, 최귀화
·피아노/김소희 ·클래식기타/곽승웅

입장료 초대

문의 김순희(010-6766-4711)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 기악과 특별연주회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동아대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기악과 졸업생들로 결성된 동아 피아노포르테와 동아 챔버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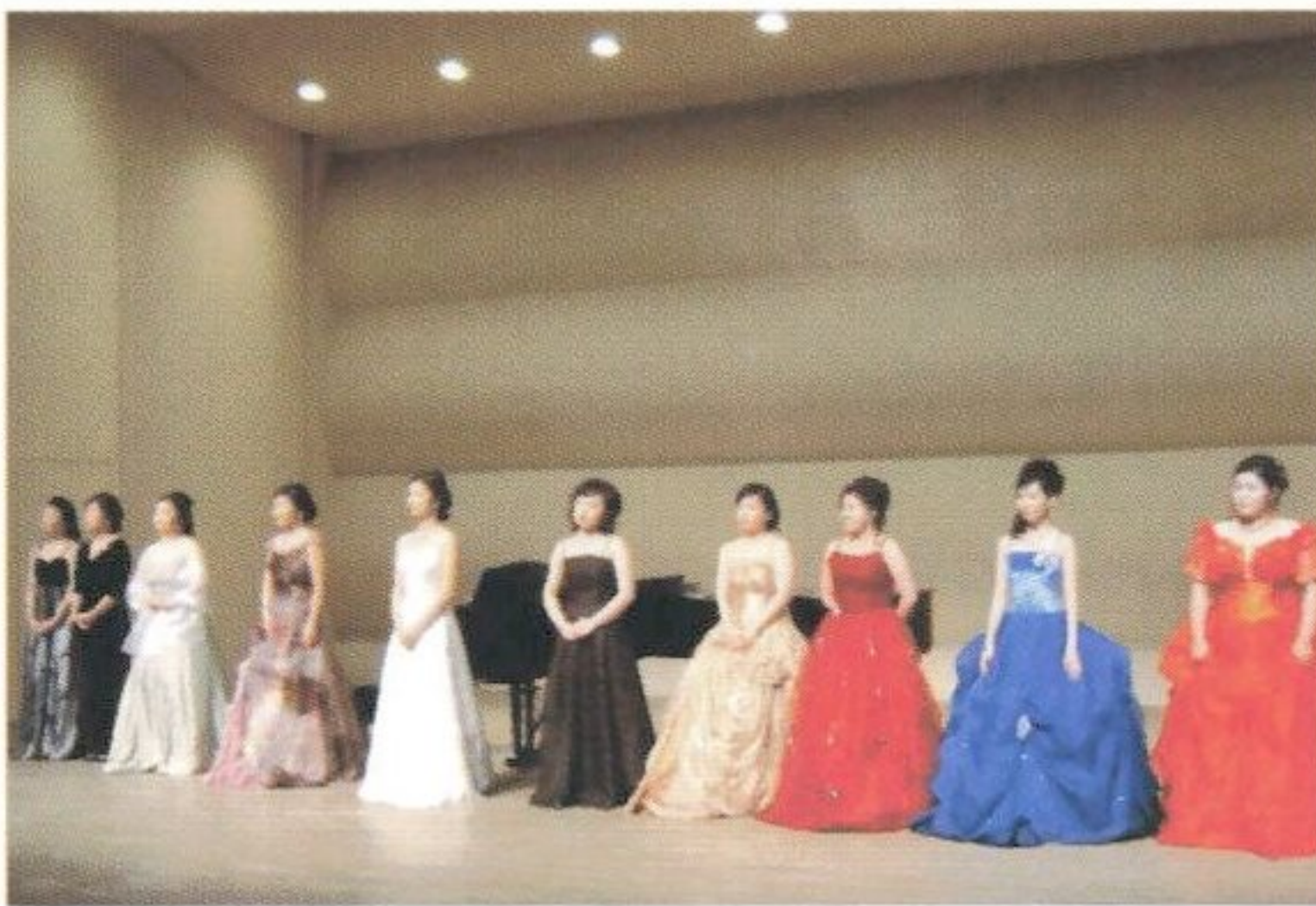
·지휘/김도기

입장료 초대

문의 이미라(011-868-7691)

제 4회 아카데미 콘서트

14일 토요일 오후 3:00, 7: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아지무스오페라단이 음악전공자들에게 발표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중고등부(오후 3시)와 대학부(오후 7시)로 나뉘어 진행된다.

·출연/김민주, 전아름, 안형일, 박나래, 이지희, 양은정, 이혜미, 남보람, 박지현, 박선미(중고등부), 김수진, 정성은, 송은혜, 김지수, 장은영, 양은비, 박수경(대학부)

입장료 무료

문의 손욱(011-9520-4649)

신성희 피아노 독주회

16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로 유학, 모스크바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에서 전문연주자, 연주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피아니스트 신성희 독주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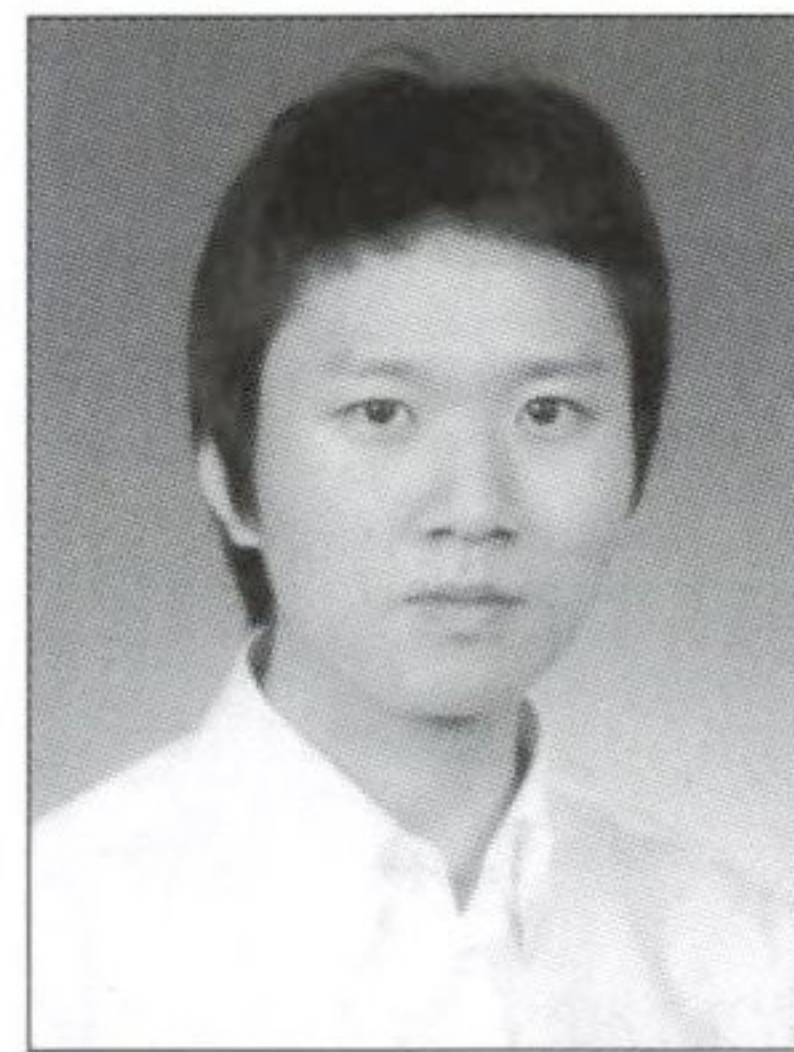
바흐/반음계적 판타지아와 푸가 라단조
베토벤/클라비어 소나타 작품 110 제 31번
라흐마니노프/4 프렐류드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신성희(011-9231-3987)

제 464회 가람화요음악회 최진현 피아노 독주회

17일 화요일 오후 8:00 가람아트홀



2006년 가람아트홀 기획 '스프링페스티벌' 최고연주자로 선정된 차세대 피아니스트 최진현 독주회. 최진현은 현재 동의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이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10 제 3번
슈만/즉흥곡 작품 5
라벨/거울 중 '어릿광대의 아침노래' 등

자신의 연주를 음반과 비디오로 소장할 수 있습니다!!
클래식 연주자들이 바라던 클래식 전문 녹음실 & 촬영 스튜디오

연주 실황 녹음 _ 음반 녹음 _ 교수 연구실적 녹음
연주 실황 촬영 (DVD, SVHS) _ 콘서트 촬영

Bird Classic

부산시 해운대구 우2동 센텀벤처타운 504호
☎ 051-744-1150, www.vrvr.co.kr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제 7회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강동석의 희망콘서트

18일 수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만성 B형간염 퇴치 명예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과 함께하는 간염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콘서트.

피아니스트 김대진, 클라리네티스트

로맹 귀요, 첼리스트 조영창,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홍,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 최고의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코다이/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듀오 작품 7
 쇼스타코비치/피아노 트리오 작품 67 등
 · 지휘/카렐 마크 시송

입장료 R석 40,000원 · S석 30,000원
 A석 20,000원

문의 영앤잇섬(02-543-1601)

제 10회 예음회 정기연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신라대학교 강혜경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예음회의 10번째 정기연주회.

이번 무대에서는 여러대의 피아노 앙상블이 어우러지는 협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3번
 쇼팽/피아노 협주곡 제 1번
 베토벤/피아노 협주곡 제 5번 '황제'

· 출연/강혜경, 김경출, 김명선, 정안선, 박은진, 이정미, 김은아, 안미희 외

입장료 초대

문의 이구일(754-2291)

김선영 귀국 플루트 독주회

19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강원대학교 음악교육학과와 비엔나 시립콘서바토리움, 비엔나 국립음대 및 대학원을 졸업한 플루티스트 김선영 귀국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BWV 1030
 슈베르트/플룻변주곡 '시든 꽃'
 메시앙/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검은 티티새'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HcaB 듀오 리사이틀

20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플루티스트 최낙주, 바이올리니스트 신나영, 피아니스트 김승환으로 구성된 HcaB의 연주무대.

프로그램

바흐/G선상의 아리아, Arioso, 소나타 나단조 BMW 1014 등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김승환(011-9028-0515)

5인 음악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21일 토요일 오후 3:30,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소프라노 이재란, 진광숙, 임혜정, 테너 황성학, 베이스 김일석 등 5인의 성악가가



이재란

황성학

들려주는 가곡과 아리아의 밤.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오페라단 가야(747-6139)

김홍철과 떠나는 요들송의 세계

21일 토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스위스 산악지대에 불려지던 민속음악 요들을 우리나라에 보급했던 국내 요들의 대부 김홍철과 친구들이 들려주는 요들송의 세계.

· 출연/김홍철, 방윤식, 최완희, 윤길훈, 윤우현

입장료 1층 15,000원 2층 1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나광자 피아노 독주회

23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나광자 교수가 정년을 앞두고 갖는 16번째 피아노 독주회.

2004년에 이어 낭만음악을 대표하는 슈베르트와 쇼팽, 베토벤의 작품

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슈베르트/4개의 즉흥곡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81a '고별' 등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이상창 플루트 독주회

24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그동안 알렉산더 메닝과의 듀오무대를 비롯 플룻&기타 듀오연주회, 몽골정부 초청연주회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쳐 온 플루티스트 이상창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소나타 마단조

샤미나드/콘체르티노 등 수곡

· 출연/김소형(피아노), 광승웅(기타), 이하룡, 손은혜(플룻)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상창(010-9986-1225)

한·불 수교 120주년,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창단 100주년 기념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 특별내한공연

26일 목요일 오후 7:30
시민회관 대극장



천상의 음악을 들려주는 평화의 사도 파리 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이 창단 10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 순회공연.

1907년 결성된 파리나무십자가 소년합창단은 그동안 정통 교회음악에서부터 세계 각국의 가곡과 민요, 현대작곡가의 작품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A석 40,000원 · B석 3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SPA엔터테인먼트(744-3588)

부산두리타악기 교사연구회 창단연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시내 초·중등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부산두리타악기 교사연구회 창단연주회.

부산두리타악기 교사연구회는 앞으로 학생들에게 직접 타악기를 지도, 체계적인 타악 교육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지휘/정기수(부산타악기양상블)

· 특별출연/부산한새청소년리코더합주단

입장료 무료

문의 이동철(010-3044-0495)

김진연 첼로 독주회

2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서울대학교 기악과와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교수, 부산신포니에타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첼리스트 김진연 독주회.

프로그램

바흐/무반주 첼로모음곡 제 1번

멘델스존/소나타 제 1번 작품 45 등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변향숙 귀국 독창회

27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경성대학교를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밀라노 아카데미아, 브레시아 국립음악원 등에서 수학한 변향숙은 베냐미노 질리국제 콩쿠르를 비롯 아렌차노, 브린디시 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알반 베르크/나이팅게일

채동선/그리워 등 수곡

· 피아노/윤미화



부산에도 문화가 있습니다!

클래식음악애호가 바라던 클래식음반전문매장 부산에도 있습니다.

• 비바체 목요일음악감상회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8:00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비바체클래식

해운대 선플라자 빌딩 1층(지하 2, 3, 4층 무료주차)

TEL 743-0003, FAX 743-3301, vivaceclassic.co.kr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스페인 세고비아콩쿠르 우승자
**기타의 시인 안데르스
기타리사이틀**

28일 토요일 오후 6:00
글로벌아트홀



스페인 세고비아
콩쿠르 우승자로,
'기타의 시인'이라
불리는 노르웨이 출
신의 기타리스트 안
데르스의 열정적인
연주를 만날 수 있
는 특별한 무대.

입장료 균일 20,000원
문의 글로벌아트홀(505-5995)

부산신포니에타 특별연주회

유망 신예 협주곡의 밤

30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신포니에타가 매년 청소년 유망주들과
함께하는 무대.

프로그램

모차르트/피아노 협주곡 라단조

랄로/첼로협주곡 1악장

브루흐/바이올린협주곡 3악장 등 수곡

· 출연/이애리(피아노 · 부산대 1년), 윤주연
(첼로 · 양운중 3년), 이가은(첼로 · 부
산예고 2년), 조원범(바이올린 · 부산
예중 3년), 황고은(첼로부산예중 2
년), 정승아(비올라 · 용문초등 5년),
임경희(클라리넷 · 부산예중 2년)

입장료 초대
문의 예술기획(0505-700-9798)

**부산남성합창단
제 14회 정기연주회**

3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1988년 창단이후 정기연주회를 비롯 소년
소녀가장돕기 자선연주회 등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부산남성합창단이 오랜만에 마련한
정기무대.

가을에 어울리는 가곡과 팝송, 가요를 들
려준다.

· 지휘/강영원 · 피아노/김선희

입장료 무료
문의 조순식(011-562-8285)

권성은 오보에 독주회

31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
학과와 독일 폴크방
에센음대를 졸업한
오보이스트 권성은
독주회.

권성은은 폴크방
오케스트라 단원을
역임한 바 있다.

프로그램

코렐리/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림스키 코르사코프/왕벌의 비행

파스쿨리/오보에와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입장료 초대
문의 권성은(017-879-7788)

**제 465회 가람화요음악회
김선화 피아노 독주회**

31일 화요일 오후 8:00 가람아트홀



부산대학교와 러
시아 노보시비르스
크 국립 글린카음악
원을 졸업한 김선화
는 그동안 카자흐스
탄 국립알마타 오케
스트라, 러시아 바르
나울 국립오케스트

라, 부산신포니에타 등과 협연한 바 있다.

프로그램

쇼스타코비치/프렐류드와 푸가 작품 87

라흐마니노프/5 프렐류드 작품 23

프로코피에프/피아노 소나타 작품 82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가람기획(626-6664)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앵콜공연**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1997년 카네기홀 첫 데뷔공연을 매진시키
며 그 후 두 번이나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가
진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로빈 스피버그 앵콜
공연.

여성 특유의 섬세한 터치와 깊은 서정으로
'매혹적인 멜로디의 주인공'이라 불리우는
로빈 스피버그는 TV드라마 '겨울연가'와 영
화 '엽기적인 그녀' 삽입곡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 협연/메조소프라노 차순례(동서대 교수)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A석 30,000원 · B석 20,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한 전 좌석 20% 할인)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747-1536)

김소희 피아노 독주회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부산대학교 음악
학과를 수석으로 졸
업하고 독일로 유학,
하이델베르크-만하
임 국립음대를 졸업
한 피아니스트 김소
희 독주회.

프로그램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작품 27-2 '월광'
프랑크/프렐류드, 코랄과 푸가

쇼팽/발라드 제 2번 사단조 작품 23 등

입장료 균일 10,000원

문의 프로인트(521-5729)

연극

힙합뮤지컬 질풍

9월 22일(금)-10월 22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청소년기 방향과 좌절을 통해 혈연이 아닌
가족간의 진정한 사랑을 그린 창작뮤지컬.

· 작/박현철 · 연출/손병태

입장료 균일 2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살인자들(원제:로베르토 주코)

1일(일)-22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6:00(5일~8일, 월요일
공연없음) 액터스 소극장

프랑스의 연쇄살인범이었던 실제 인물 '수
코'를 모델로, 폭력적인 문명과 인간성 상실
의 표상으로 만들어진 범죄자 로베르토 주코



를 통해 현대사회의 부조리를 그린 베르나
르-마리 콜테스의 작품.

· 재구성, 연출/이성규

· 출연/김태훈, 우명희, 박미경, 안성혜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2,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액터스소극장(611-6616)

극단 열린무대 불면증

10월 12일(목)-11월 5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월-수요일 공연없음) 열린소극장

잠자기 싫은 사내 '가'와 잠재우려는 '나'
를 통해 세상속에 안주하는 편안한 잠에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이상
을 잠재우려는 존재는 무엇인지를 묻는 작품.

· 작/김도원 · 연출/김근수

· 출연/양지웅, 손남숙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열린소극장(555-5025)

부산연극제작소 동넵 하녀들

13일(금)-22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4:00, 7:00
너른소극장

대중과의 거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파격적
인 각색과 역할놀이를 통한 연극적 재미의
극대화, 언어적 유희에 대한 과감한 실험 등
으로 새롭게 선보이는 연극 '하녀들'.

· 작/장 주네

· 연출/심문섭

· 출연/김혜정, 정애경, 전오미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0,000원
(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부산연극제작소 동넵(751-0858)

영화 '왕의 남자' 원작 뮤지컬

이(爾)

14일 토요일 오후 4:00, 7:30,
15일 일요일 오후 3:00, 6:00
시민회관 대극장



연극에서 영화로
제작되어 비평가 흥
행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왕의 남자'
원작 뮤지컬 '이
(爾)' 초연무대.

조선시대 왕이 신
하를 높여부르던

'이(爾)'의 호칭을 연산군으로부터 받았던
천민출신 광대 공길과 장생의 욕망과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

· 원작, 연출/김태웅

· 출연/김법래, 최성원, 금승훈, 안성빈, 조유
신, 신영숙, 백민정, 박석용, 박원목

입장료 R석 45,000원 · S석 35,000원

A석 25,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
기회원 10% 할인)

문의 시민회관(630-5200)



광복동 필하모니 음악감상실을 잊으셨습니까?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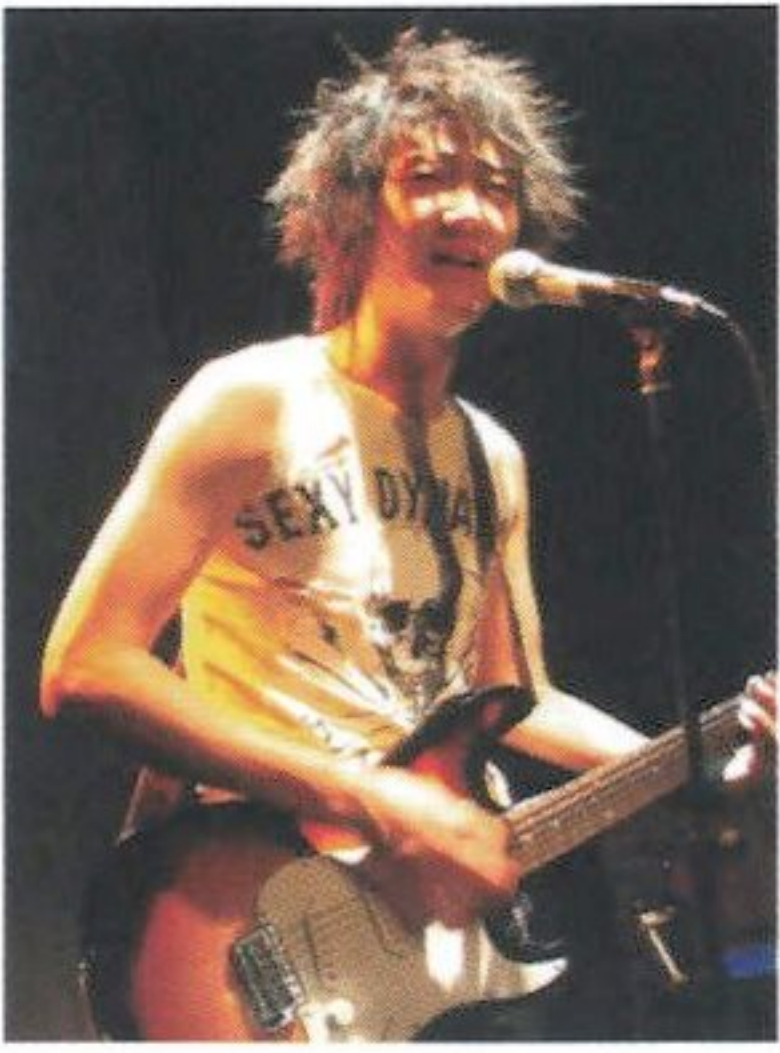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연주회 뒷풀이 장소로 더욱 좋습니다(20명~80명)
◆ 부산문화회관 가족 및 정기회원 점심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628-2592

어느 락커의 바지 속 고백

14일(토)-22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6:30(월요일 공연 없음) SH공간소극장



지난해 공중파 생방송 사고를 겪었던 펑크 락커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펑크 락커를 바라보는 세상의 편견과 오해의 뒤에 숨은 그들의 진솔한 삶과 꿈을

보여주는 1인극 뮤지컬.

실제 펑크 락커인 뮤지션 최철욱이 작곡과 음악감독을, 배우 조영환이 주인공 펑크 락커역을 맡아 생생한 무대를 선사한다.

· 작/노현지 · 연출/이지영

입장료 균일 20,000원(9/30일까지 예매시 30% 할인)

문의 (주)코엔(611-8518, 621-8518)

배우그룹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 창작극 시리즈 두 번째 작품

DOX-거짓된 호르몬

19일(목)-23일(월)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00, 7:30, 일요일 오후 4:00
경성대학교 예노소극장

젊고 패기있는 연출과 감각적인 무대음악이 어우러진 창작실험극 'DOX-거짓된 호르몬'.

· 작, 연출/주혜자 · 움직임 연출/윤지은
· 음악/마르키도, 있다
· 출연/유재명, 조창주, 이정비, 백선우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예매시 20% 할인)

문의 배우, 관객 그리고 공간(019-507-7506, 010-3300-5519)

부산연극제작소 동넙 바리데기

10월 27일(금)-11월 5일(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4:30, 7:30, 일요일 오후 3:00, 6:00 (월요일 공연없음) 가마골소극장



무속신화 '바리데기' 설화를 현대적으로 각색,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 작/공동창작 · 연출/심문섭

· 출연/정애경, 강원재, 김현주, 전오미 외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가마골소극장(245-0042)

극단 누리에 십년 후

26일-27일 목-금요일 오후 7:30, 28일-29일 토-일요일 오후 4:00, 7:00 너른소극장



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 만난 세명의 여자 친구들이 들려주는 진솔한 인생이야기.

· 작/김민정 · 연출/강성우

· 출연/강봉금, 최성희, 이현주

입장료 일반 20,000원 · 청소년 15,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극단 누리에(621-3573)

창작뮤지컬 갯바위

28일 토요일 오후 7:30, 29일 일요일 오후 3:30, 7:30
시민회관 대극장

일명 갯바위 부처인 팔공산 '관봉 석조약사여래불'에 얽힌 설화를 소재로, 효와 불심을 노래한 창작뮤지컬.

· 예술감독/반진수 · 작, 연출/정광진
· 출연/강태기, 박웅, 민경옥, 강애심 외

입장료 R석 50,000원 · S석 40,000원
A석 30,000원

문의 정광진(016-9558-7001)

2006 옷찾사 콘서트

웃음상륙대작전

29일 일요일 오후 4:00, 7:00
KBS 부산홀



몽키브라더스, 이건 아니잖아, 언행일치 등 TV 인기코너 외에도 옷찾사 멤버들의 새로운 개그를 감상할 수 있는 무대.

입장료 R석 55,000원 · S석 44,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JKP엔터테인먼트(1544-1410)

무 용

류현숙의 춤

2일 월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경성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창작과를 졸업하고 새암춤회 단원으로 활동중인 류현숙의 창작춤판.

자신이 태어난 날과 시간을 뜻하는

창작춤 '12190231'를 통해 인생의 좌표같은 역할을 한 타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

· 대본/강희정 · 안무/류현숙

· 출연/류현숙, 유재명, 조지영, 장영진 외

입장료 일반 15,000원 · 청소년 10,000원

문의 류현숙(017-747-6340)

박은화 현대춤 공연

Tuning VIII -Fire-

12일 목요일 오후 8: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부산대학교 박은화 교수가 펼치는 창작춤판.

2000년부터 시작된 자아와 이 시대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Tuning 시리즈 8번째 무대로,

'불(火)'의 지속적인 변형과 변성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 'Tuning VIII -Fire-'를 무대에 올린다.

입장료 일반 20,000원 · 학생 10,000원
문의 박은화(510-2956, 510-1740, 011-850-2173)

이정화의 춤

13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숙명여자대학교 무용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한양대학교 무용과 박사과정에 있는 이정화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27호 '승무' 이수자이자 설무리무용단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사랑'을 주제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의 결을 표현한 '그래서? 그리고...', 차고 이지러지는 달의 변화를 통해 여성의 일생을 그린 '달의 숨결' 등 창작춤을 선보인다.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5,000원
문의 이정화(011-9267-9139)

아 동 극

제 17회 색동가을소리 사랑나누기 정기 공연

자라장군과 피많은 토끼

13일 금요일 오전 10:30, 11:30,
14일-15일 토-일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13일 단체관람,
14일 오전 11:00 초청관람)
시민회관 소극장

부산색동어미니회 회원들이 전래동화 '별주부전'을 새롭게 각색한 '자라장군과 피많은 토끼'를 무대에 올린다

· 연출/김익현
· 출연/최숙희, 이소영, 박순예, 양윤주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예매 8,000원)
문의 허은정(010-5513-2436)

브레멘 난타음악대

19일 목요일 오전 10:00, 11:20
시민회관 소극장



한국적 리듬을 기반으로 한 전 세계의 다양한 타악리듬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한 타악 퍼포먼스 뮤지컬.

입장료 균일 8,000원
문의 심인뮤지컬컴퍼니(031-499-6658, 010-3938-2067)

백설공주와 색깔요정들

20일 금요일 오전 10:20, 11:20,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2:00,
4:00 민주공원 중극장

명작동화 '백설공주'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백설공주와 색깔요정들'.

입장료 균일 10,000원(사랑티켓 참가작)
문의 인형극단 까치(625-2117)

Mr.Wolf & One Little Pig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어렵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영어를 익숙한 동화속 이야기와 재미있는 노래로 만든 영어 뮤지컬.

입장료 균일 15,000원
문의 DUBU기획(02-2654-6854)

벌거벗은 임금님

21일-22일 토-일요일 오후 12:00,
2:00, 4:00 시민회관 소극장

정직한 마음과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명작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을 재미있는 가족뮤지컬로 각색한 작품.

· 각색, 연출/이지영
· 출연/박찬구, 함유은, 고도일, 차준호 외

입장료 균일 12,000원
문의 매직기획(010-3004-5042)

콘서트

인순이 부산콘서트

8일 일요일 오후 5:0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70,000원 · S석 60,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2006 블랙홀 부산공연

21일 토요일 오후 7:30
가톨릭센터 소극장

입장료 균일 30,000원(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10,000원 할인)
문의 락매니아(637-9098)

이승철 부산콘서트

22일 일요일 오후 3:00, 7:30
KBS 부산홀

입장료 R석 66,000원 · S석 5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R석 60,000원 · S석 50,000원)
문의 소리엔터테인먼트(755-4545)

세계 최초 3포크 디바 내한공연

11월 4일 토요일 오후 7:30
KBS 부산홀

여성 포크계의 살아있는 전설 리타 쿨리지, 칼라 보노프, 멜라니 사프카의 릴레이 콘서트.

입장료 VIP 189,000원 · R석 165,000원
S석 132,000원 · A석 99,000원
B석 66,000원

문의 (주)쇼비즈(817-5612)

행 사

동래읍성 역사축제

11일(수)-15일(일) 동래향교, 충렬사, 동래문화회관 외 동래구지역

문의 동래구청 문화공보과
(550-4851~4)

제 54회 시올림 시낭송회

11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 시낭송/김예강, 김옥균, 오승일, 이동호,
이영란, 황길엽 외

입장료 무료

문의 이해웅(500-7214)

전 시

스타워즈 Science & Art전

7월 1일(토)-10월 22일(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 관람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입장료 일반 13,000원

중고생 이하 10,000원

문의 (주)비손(740-4100~2)

대륙에 울려 퍼진 항일정신

먼구름 한형석의 생애와 독립운동

8월 15일(화)-10월 29일(일)
부산근대역사관 기획전시실

문의 부산근대역사관(253-3845~6)

아름다움에 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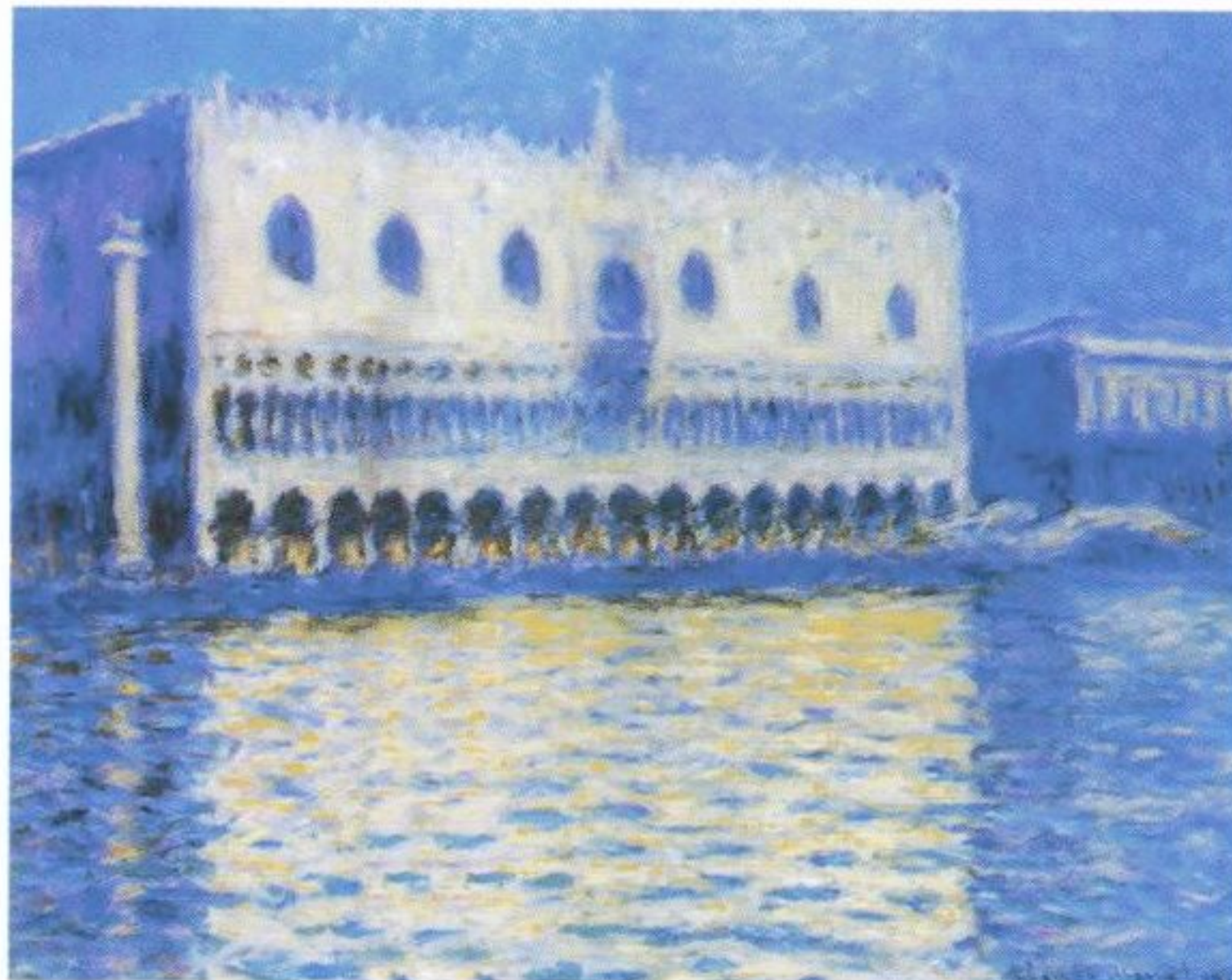
8월 24일(목)-10월 8일(일)
용두산미술전시관

문의 용두산미술전시관(244-8228)

빛을 그린 화가들

인상파 거장전

9월 9일(토)-12월 10일(일)
부산박물관



모네 作 '베니스의 팔라조 듀칼'

19세기 후반 근대화된 도시 파리를 배경으로, 자연속에 숨어있는 빛과 색의 효과에 주목한 인상파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인상파 거장전.

· 관람시간/오전 9시~오후 6시

· 휴관일/매월 마지막주 월요일

입장료 일반 10,000원 · 학생 7,000원
어린이 5,000원

문의 KNN(850-9696)

제 1회 대한민국 해양사 진대전 입상작 전시회

9월 15일(금)-10월 22일(일)
수산과학관 기획전시실

입장료 무료

문의 수산과학관(720-3061~5)

2006 부산비엔날레

9월 16일(토)-11월 25일(토)
부산시립미술관, 해운대해수욕장,
수영요트경기장, APEC나루공원 등

입장료 일반 7,000원 · 대학생 5,000원

청소년 4,000원 · 어린이 3,000원

문의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888-6691~9,
www.busanbiennale)

서은경 작품전

10월 9일(월)-10월 31일(화)
부산프랑스문화원 전시실



천을 이용한 꼴라주의 오브제 표현을 통해 민화의 본래 이미지는 해체되고 작가의 심상 이미지로 변화시킨 작품을 선보이는 서은경 작품전.

문의 부산프랑스문화원(465-0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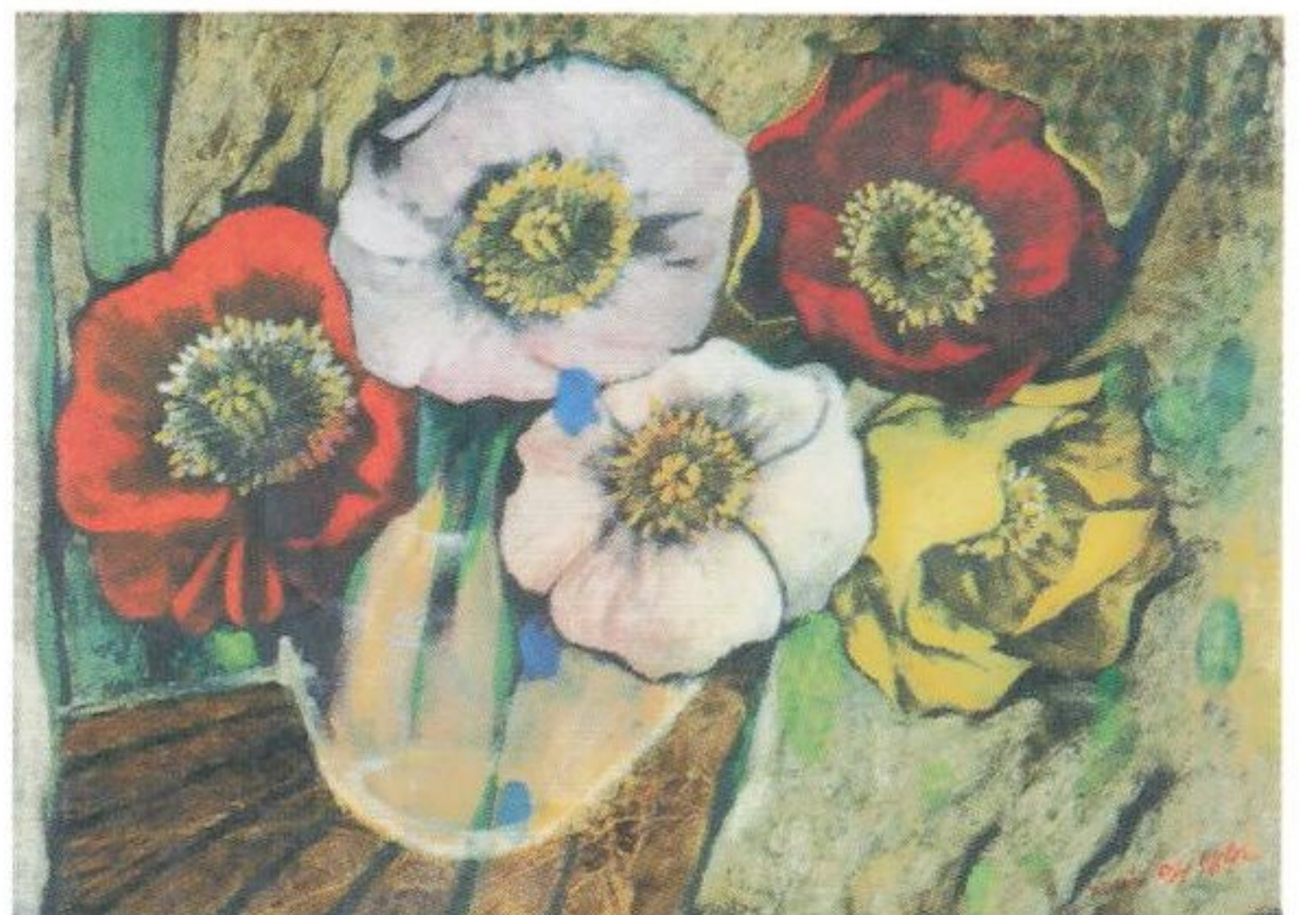
김홍수 초대전

10월 13일(금)-11월 17일(금)
도시갤러리

문의 도시갤러리(756-3438)

心花전

10월 17일(화)-10월 22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화려한 아름다움 속에 금기를 지닌 양귀비꽃을 소재로, 평화로운 삶 뒤에 숨겨진 욕망의 세계를 표현한 서양화가 엄성원 개인전.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2006 BIEAF 부산국제환경예술제

10월 20일(금)-10월 26일(목)
시민회관 1, 2층 전시실

문의 환경문화연합(255-0887)

춤추는 드로잉

10월 24일(화)-10월 29일(일)
영광도서 갤러리

문의 영광도서 갤러리(816-9500~4)

Recommended Performance in October

For a Day Free from Hepatitis the 7th Request Concert by Kang Dongsuk

18th(Wed) 7:30 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Kang Dongsuk known as a poet on violin, has had a concert to inform public of the fatal consequences of the hepatitis B and importance of active treatments. This time will be more meaningful and touching moment than any other time with his gifted associates.

They are pianist Kim Daejin, clarinetist Romain Ambroise Guyot, cellist Cho Youngchang, violinist Jae Park, and Prime Philharmonic Orchestra.

program

W.A.Mozart/ The Marriage of Figaro K.492, Overture

R.Schumann/ Piano Concerto in a minor Op.54, 1st Mov.

D.Shostakovich/ Piano Trio Op.67, IV.Allegretto etc.

Ticket : R 40,000Won · S 30,000Won · A 20,000Won

More Information : 02-543-1601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Special Concert Pictures by Beautiful Harmony

20th(Fri)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Busan Phil is preparing an attractive concert in this autumn with the chief conductor, Alexander Anissimov. It will be joined with contemporary famous pianists, Kim Youngho and Yun Cheolhui.

program

F.Poulenc/Concerto for two Pianos in d minor op. 61

M.Mussorgsky/ Pictures at an Exhibition (Orchestrated by Ravel)

· Con/ Alexander Anissimov

· Pf/ Kim Youngho, Yun Cheolhui

Ticket : R 10,000Won · S 7,000Won · A 5,000Won

More Information : 607-6101

Baritone, Kim Dongkyu Recital

21th(Sat)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Kim Dongkyu is back to us with his familiar voice. He is well known to not only classic fans also the general public by his easy and romantic songs.

However the genius of Kim has been acknowledged since he passed the audition of Teatro alla Scala in Italy for the first time as a Korean.

Ticket : VIP 70,000Won · R 50,000Won · S 30,000Won

A 20,000Won

More Information : 248-2011

Paik Kunwoo Piano Recital

24th(Tue) 7:30 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World pianist Paik Kunwoo is meeting Busan fans. Paik has been enhanced his fame with his humble and passionate stage manners, although he has been highly commended by international critics.

Paik has had many performances with world's leading orchestras since he had been awarded by famous international concours such as Naumberg Award, Busoni Concours, and etc.

program

W. A. Mozart/Rondo in a minor K. 511

L.V Beethoven/Sonata No.31 Op.110 in A Major

Wagner-Liszt/ 'Liebestod' From 'Tristan and Isolde' etc.

Ticket : R 80,000Won · S 50,000Won · A 30,000Won

More Information : 248-2011



Richard Yongjae O' Neill 'Lachrymae'

22th(Sun) 6:00p.m. Busan Cultural Center Main Theater

O' Neill is a talented violinist but he is more famous for his touching life story through the KBS TV program 'Human Theater'.

This time he present us with unforgettable moments by his impressive play.

program

Offenbach/Les Larmes de Jacqueline

Brugmuller/Nocturnes - Andantino

Bottesini/Elegie in D, No.1 etc.

Ticket : S 50,000Won · A 30,000Won · B 20,000Won

More Information : 626-9494



Les Petits Chanteurs – A La Croix de Bois Special Concert

26th(Thu) 7:30p.m. Busan Citizen Center Main Theater

Les Petits Chanteurs are familiar with us as a Choir with wooden cross in Paris. They have offered beautiful songs with their divine voices for 100 years. This concert is for celebrating 100th annivers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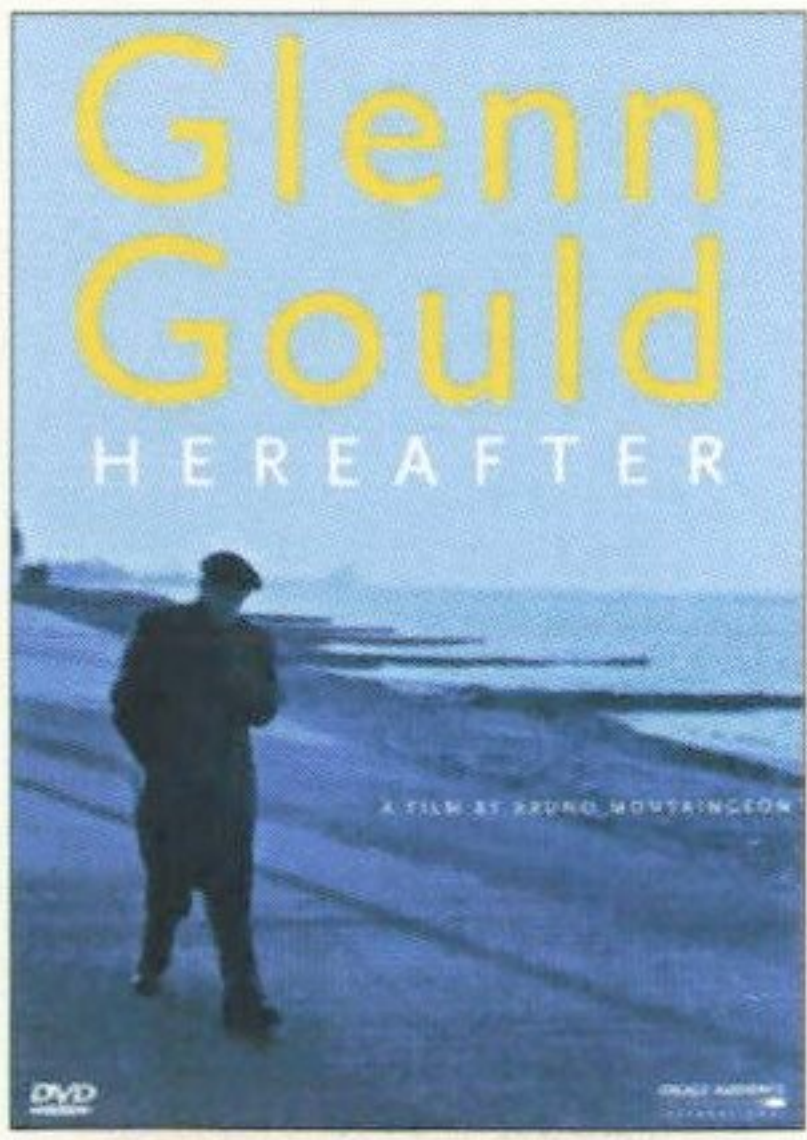
They were established in 1907, Paris and after that they have been loved by global classical fans with their attractive songs and diverse repertoires from traditional catholic music to various folk songs for each countries.

Ticket : R 70,000Won · S 60,000Won · A 40,000Won

B 30,000Won

More Information : 744-3588

글렌 굴드 : 이 시간 너머로(Hereafter)



브루노 몽생종 제작 필름

2006년 피파 도르상에 빛나는 감동적인 다큐멘터리!

글렌 굴드의 친구로 그에 관한 저서를 네 권이나 썼던 세계 제일의 글렌 굴드 전문가이며 필름 제작자인 브루노 몽생종의 회심작이다. 연주가의 생애를 그대로 더듬는 평범한 바이오그래피 수준이 아니라 예리한 통찰과 상상력으로 진한 감동을 유도하는 하나의 예술 영상이다.

굴드를 내레이터 역할로 만들었고 이제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동영상이나 사진 컷들을 어마어마하게 실었다. 연주나 인터뷰 장면 외에 해변을 거니는 굴드의 모습이라든가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광은 정말 꿈결 같다. 이제까지의 글렌 굴드에 관한 자료 중 가장 매혹적인 영상물이다. 2006년 피파(Fipa)상 음악 및 스펙터클 부문 수상작이다.(상영시간 106분)

하겐 현악4중주 베스트 : The Very Best of Hagen(DG7178/2for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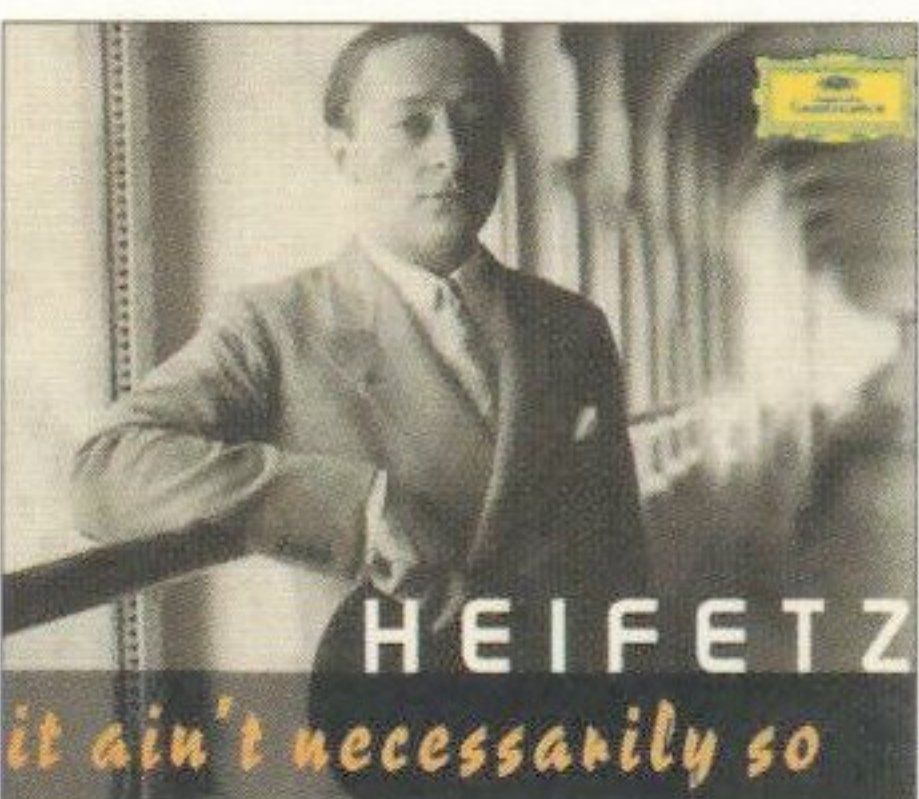
2006년 9월 23일 공연을 기념하기 위하여 하겐 사중주단의 모든 것을 담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컬렉션이 출시되었다. 이 앨범에는 하겐 사중주단의 대표적인 곡인 슈베르트, 하이든, 드보르작의 사중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겐 사중주단은 모차르트 고향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하겐(Hagen)이라는 한 가문의 연주자들이 규합하여 1981년에 결성한 사중주단이며, 2000년 디스크 그랑프리, 모차르트 해석상, 그라모폰 올해의 연주 단체 등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겐 사중주단이 특별한 주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창단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였다. 1981년 기돈 크레머가 주관하던 로켄하우스 실내악 페스티벌에 참가한 하겐 사중주단은 심사위원상과 청중상을 동시에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이듬해에는 영국 햄프셔 주의 포트머스 국제 현악4중주 콩쿠르에서 거장 예후디 메뉴인의 귀를 확실히 만족시키며 당당히 1등상을 획득하기도 했다.

영국 청중을 열광하게 만든 하겐은 곧 런던 위그모어 홀까지 진출해 격찬을 받음으로써 그야말로 실내악 연주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신예 현악 4중주단이 되었다. 하겐은 세계의 중요한 음악페스티벌에 정기적으로 출연했고, 헨릭 셰링상 등 국제적인 음악상 및 콩쿠르를 연거푸 석권하기도 했다.

야사 하이페츠가 남긴 경이의 기록물 : It Ain't Necessarily So(DG7176/2for1)



1944년부터 1946년 사이에 리마스터링 된 하이페츠의 연주들이 이번에 CD로 재 탄생되었다. 이 연주는 북미에서 연주된 하이페츠의 곡들로 테이프 녹음이 개발되기 이전에 축음기용 녹음 방식인 78rpm SP로 최초 녹음되었으며 각 앨범당 3~4분 정도로 나뉘어 거의 편집없이 제작되었다.

이번 하이페츠 연주의 CD 전환 과정에는 중요한 변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연주를 들어보면 바이올린 음 하나 하나가 매우 직접적이면서, 심지어 거칠기까지 한데 이것은 하이페츠 연주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가급적 축음기 고유의 느낌을 재현하기 위한 기계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클래식 소품에서 재즈 트랙, 흑인 영가와 아일랜드 민요, 월드 뮤직에 이르기까지 하이페츠의 불 같은 연주를 감상할 수 있는 유산이며 유일한 앨범이다. 하이페츠가 연주하는 드뷔시의 'Beau soir(아름다운 저녁)'이나 로시니의 'Largo al factotum(만물박사의 노래)'를 들으면서 잠시나마 2차 세계대전 전장에서 귀향을 꿈꾸었던 당시 군인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 하다. 이 음반에는 총 57곡이 수록되어있다.

■ 비바체클래식 제공

재미있는 우리 국악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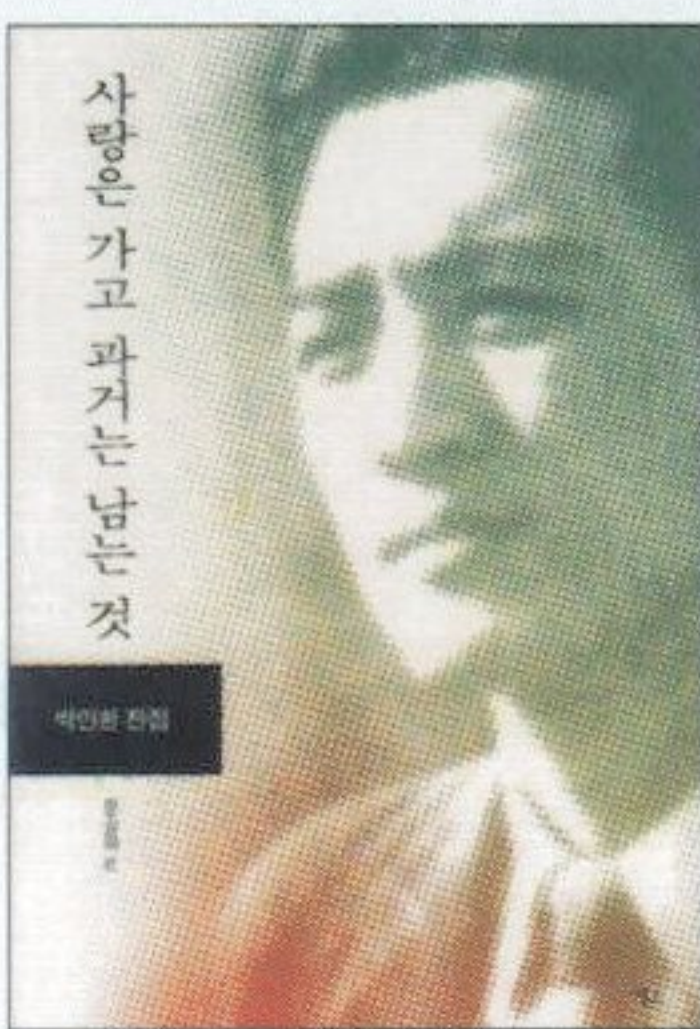
이성재 지음 | 서해문집 | 350p | 11,900원



‘음악’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어떤 음악일까. 혹시 서양음악은 아닐까. 우리는 우리의 전통 음악을 ‘국악’이라고 부르고 있다. 국악을 지루하다, 어렵다, 듣고 있으면 졸립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악은 하나의 단어로 단정 짓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고 그 갈래마다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 제각기 다르다. 이 책은 학교에서 풀지 못하는 우리 음악에 대한 갈증을 채워주며, 광활한 국악 세계로 독자들을 이끌어주는 안내서이다. 기존의 국악 책들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거나 애호가들만을 염두에 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택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국악이 어떤 음악인지 막연하기만 한 독자들을 배려한 이 책이 갖는 의미는 크다. 문외한이라 하더라도 우리 음악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저자 이성재 씨는 1973년 경희대 음대 작곡과를 졸업하고 배재중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청담고등학교 등을 거쳐 지금은 당곡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고등학교 음악>(7차 교육과정), <교과서 속의 숨은 이야기-5·6학년 음악>을 저술하였고, 우리 음악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현대화작업을 하고 있으며, 여러 영화음악과 연극음악도 작곡하였다.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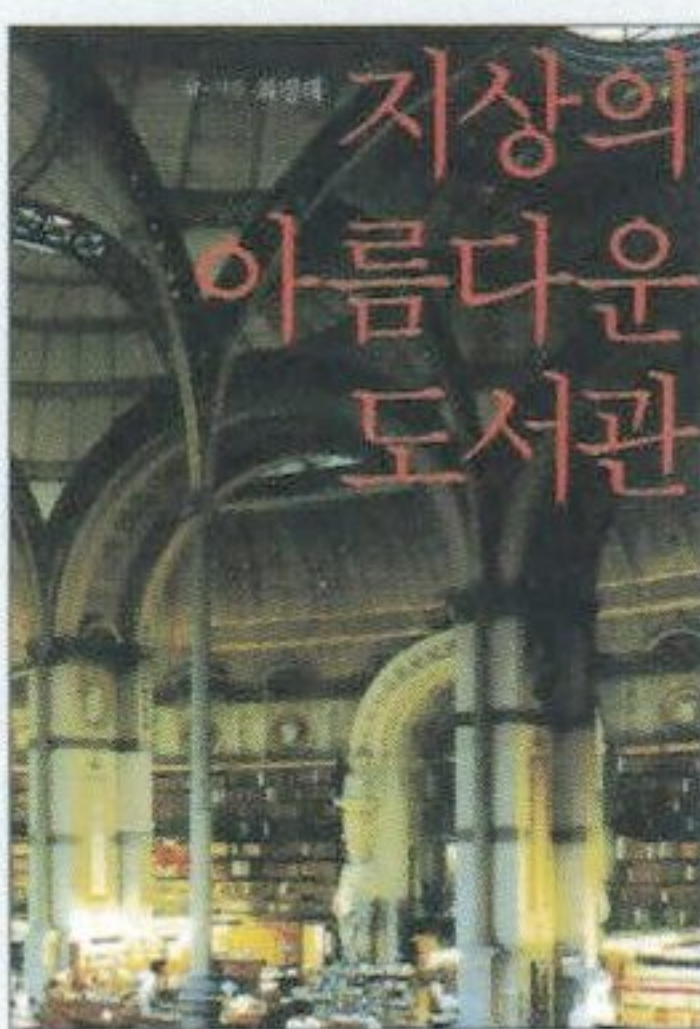
박인환 전집, 문승묵 편 | 예옥 | 620p | 35,000원



<목마와 숙녀>와 <세월이 가면>으로 인해 대중에게 ‘센티멘탈리스트’로 유명한 박인환 시인. 타계한 지 50년 만에 정식으로 문학(시, 산문) 전집이 발간되었다. 시는 두 권의 시집을 원본 텍스트로 하여 각각 1, 2장으로 엮었으며, 3장은 시집에 묶이지 않았던 시편들과 새로 발굴된 시편들을 시대순으로 엮었다. 이 전집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새로운 산문 44편을 포함한 총 70편을 발표함으로써 박인환 산문의 세계를 좀 더 면밀히 보여준다. 31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요절한 박인환 시인. 그에게는 수려한 외모와 도회적인 낭만성으로 인해 ‘명동백작’, ‘댄디보이’ 등의 다양한 별명이 따라붙곤 했다. 실제로 그는 영화배우 못지않게 준수했으며 정신적으로나 행동적으로나 세련된 ‘멋’을 추구한 인물이었다. 당시 함께 활동했던 문인들은 ‘조니 워커’와 ‘럭키 스트라이크(담배)’의 시인, 러시아풍 군용 코트와 버버리 코트의 시인, 장 콕토와 마리 로랑생과 이상과 스티븐 스펀더를 흠모했던 ‘마리서사’ 서점의 주인, 전후 한국문단의 ‘양팡 테리블’로 그를 회상한다. 이번 전집의 작품들을 모아 엮은 문승묵 씨는 문학연구자가 아니라 개인 수집가로서 고서 및 근현대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지상의 아름다운 도서관

최정태 지음 | 한길사 | 274p | 20,000원



책을 읽는 독서인구가 줄어가고 종이책의 위기가 다가올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이도 있지만, 그 어떤 형태이든 지식의 텍스트는 존재할 것이며 그 텍스트를 읽는 사람들이 읽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중세 시대 지식인들이 여행에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도서관이었다. 당시 귀족, 성직자, 학자들의 도서관 순례는 지식과 교양을 재충전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며, 영혼의 요양을 겸한 여행으로서, 그들에게는 보편적인 지적 행사였다. 평생 문헌정보학과 도서관학을 공부해 온 최정태 교수가 세계 곳곳의 아름다운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도서관이란 공간의 고전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곳이다. 또한 미국 의회도서관은 ‘세계가 어느 날 갑자기 붕괴되더라도 미국 의회도서관만 건재하다면 이 세계의 복구는 시간문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곳이다. 말하자면, 인류의 지식과 정보가 모두 모여 있다는 이야기다. 보르헤스는 도서관을 일러 ‘고귀한 책들로 무장한 고독과 비밀의 공간’이라고 했다. 이 책에서 소개된 도서관의 비밀스럽고 아름다운 문을 열어보자.

■ 박현주 / 동보서적 <책소식> 편집장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한 향기로운 하루

하성미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9월 8일 금요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테마여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냉천 허브힐즈로 가는 여행은 비록 짧았지만 그곳의 허브의 향은 마음에 남아 지금까지 삶의 여유를 안겨주기에 충분했었습니다.

하늘에 가득 낀 회색 구름이 걱정이 되었지만 아침 9시, 부산문화회관을 출발. 뜨거운 여름 동안 푸르게 짙어져 병풍처럼 서 있는 높고 큰 산들 가운데를 두시간 가령 달렸을까... 마치 비버리힐즈의 구별된

마을 같은 작은 공원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허브나라의 공주님들이 살고 있을 듯한 안내 표지판들과 바람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꽃들이 먼저 우리 여행객들을 맞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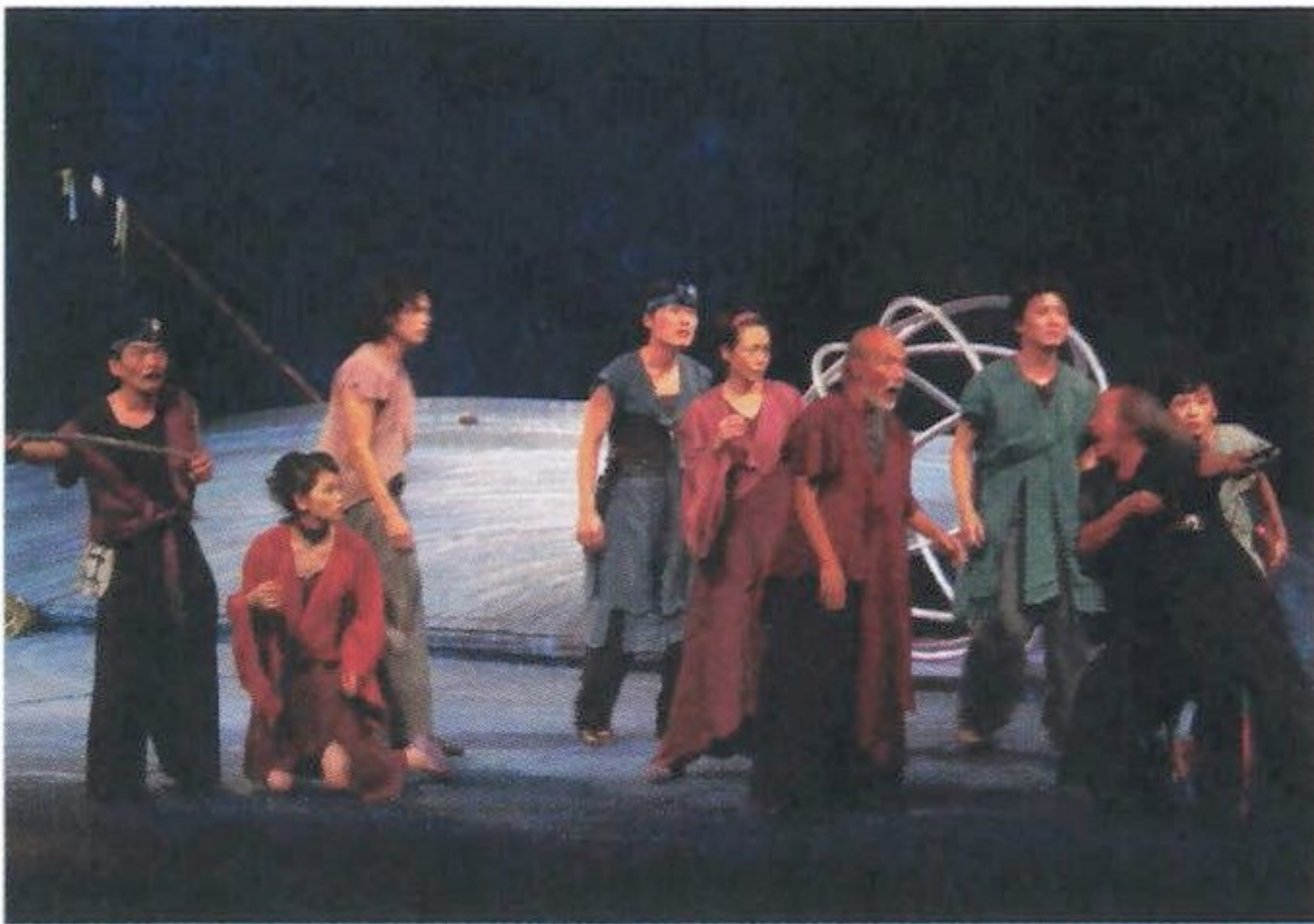
그리고 우리가 들어간 곳은 압화체험장. 건조 시킨 꽃을 액자에 담는 순간 지나간 중고등학교 때의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서로가 만든 꽃 액자들을 슬쩍 보며 스스로 비교도 해보고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에 부족한 솜씨를 부끄러워했던 어릴 적 시간으로 돌아간 듯한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와서 일까? 살짝 배고픔을 느낄 때, 들리는 반가운 소리~! 점심식사!! 허브 농장에서 주는 밥은 과연? 우와... 이건 상상했던 것 보다 정성과 산뜻함이 어울려져 보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대접을 이미 받은 듯 하였습니다. 비트로 물들여 짙은 진달래색을 머금고 있는 밥과 고소한 참기름으로 양념한 그 절묘한 만남. 그리고 금방 허브 농장에서 캐온 것 같은 각종 쌈들. 향긋한 향들과 함께 여유로운 식사를 하며 집에 두고 온 가족들의 주말 만찬을 동일한 식단으로 잡아보자는 아주머니들의 귀여운 계획들에 동참하며 즐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하이라이트. 숲속 체험 학교에서의 작은 음악회. 숲속에서의 생명과 나무의 성장. 자연을 좀더 친밀하게 느끼며 자연에 대한 애뜻한 마음이 담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나무들의 신전 같은 그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저 여유로운 하늘과 구름, 산, 그리고 숲 속에 나무들과 함께 노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것인지 경험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음악가들의 음악이 아닐까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함께 부른 그 노래들은 그곳 허브 향들처럼 지치고 아프고 상처 받았던 시간들을 만져주고 따뜻하게 안아주기에 충분한 순간이었습니다.

허브(herb)라는 말의 어원은 약초, 치료 등과 관련되어 있다지요? 이번 여행은 말 그대로 향기로 정신을 맑게 하고 쉬게 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하루 짧은 여행이지만 남아있는 여유와 향기는 계속 남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허브의 치료 같은 아름다운 삶의 향기를 나눠 주고 싶은 인격도전을 스스로에게 안겨다준 잊지 못할 하루였습니다.

부산시립극단 정기공연작 '고래섬' 서울, 일본 5개 도시 공연



부산시립극단이 창단 이후 처음으로 일본 동경의 김가도 극단과 공동 제작으로 화제를 모은 제 27회 정기공연 작품 '고래섬'이 부산 공연에 이어 서울과 일본 공연 길에 오른다.

9월 2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초연된 '고래섬'은 1992년도부터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본의 김가도 극단 연출자, 연기자, 스텝들이 부산시립극단과 공동으로 작업해 기존 부산시립극단의 작품과 다른 새로운 무대를 선보였다.

고래섬은 서울공연예술제 희곡상을 수상한 극작가 흥원기가 대본을 쓰고 부산시립극단의 수석연출가 손기룡과 김가도 극단의 대표이자 연출가인 시나가와 요시마사가 공동 연출로 무대에 올랐다. 음악은 영화 실미도, 국경의 남쪽, 한반도의 음악감독을 맡은 한재권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즐거운 음악극으로 작품의 재미를 더해주기도 했다.

고래섬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5회 공연을 갖는다. 서울공연에 이어 10월 18일 일본 공연길에 오르는 부산시립극단은 10월 19일(목)~25일(목) 키노쿠니야홀(10회공연), 10월 29일(일) 야마구치현 우베시 우베시와타나베기념회관, 10월 30일(월) 야마구치시 시민회관 대극장, 11월 1일(수) 시모노세키시민회관 대극장, 11월 2일(목) 후쿠오카 텐진엘가라홀에서 일본 관객들과 만난다.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06 장한나 초청공연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11세의 나이로 로스트로포비치 첼로 국제콩쿠르에서 심사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대상과 현대음악상을 수상,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소녀 장한나가 원숙미 넘치는 성숙한 연주자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 프로그램

슈만/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작품 70

쇼스타코비치/첼로 소나타 작품 40

쇼팽/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65, 화려한 폴로네이즈 작품 30

■ 입장료 :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15,000원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B석 제외 30%할인됩니다. 예매를 서두르십시오.)

■ 문의 : 부산문화회관(607-6042),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온갖 모략이나 술책.
- 철저하게 1인칭 관점에서 인간 이순신의 내면세계와 개인적 고뇌를 새롭게 해석한 소설가 김훈의 장편소설. 2001년 동인문학상 수상작이다.
- 살갓을 바늘로 찔러 먹물이나 물감으로 글씨, 그림, 무늬 따위를 새김.
- 7현으로 된 우리나라 현악기의 하나.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데, 현악기 가운데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진 저음 악기이다.
-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세로문제

- 전쟁이 있어났을 경우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우리나라는 현재 한미 연합사령관인 미군 4성장군, 즉 미국이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이 2009년도에 이것을 한국군에 넘기겠다고 공식발표함에 따라 찬반논란이 일기도 했다.
-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 남단에 있는 나라로 수도는 아테네. 유럽문명이 살아 있는 아름다운 유적지로 이름 높다.
- 가곡으로 널리 불려지고 있는 '가고파' '성불사의 밤' '옛 동산에 올라' 등의 시조를 지은 시조시인.
- 한국인의 3대 암 중 가장 사망률이 높은 암.
- 바다 기슭을 따라 흰 모래톱이 10리(4km)나 이어지고 있어 부쳐진 이름. 원래는 함남 원산시 갈마반도의 남동쪽 바닷가에 있는 백사장을 지칭하는 말이다.
- 왕자에 대한 사랑으로 목소리까지 버리지만 결국 바다에 뛰어들어 물방울이 되어버리는 바다속 공주의 슬픈 사랑을 그린 안데르센의 대표적 동화.
- 그의 저서 팽세에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 프랑스의 철학자 겸 물리학자.
- 공주와 신문기사와의 짧은 사랑을 그린 오드리 햅번, 그레고리 펙 주연의 영화.
- 신라 눌지왕의 아우를 구하려 일본에 건너간 박제상을 기다리다 그의 아내가 돌이 되었다는 고개이름. 훗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소재로 악곡을 짓기도 했다.
- 1980년대 이후 격동적인 한국사회와 몰락하는 사회주의권을 배경으로 젊은 두 남녀의 극적인 삶과 사랑을 그려낸 황석영의 장편소설. 최근 임상수 감독, 지진희, 엄정아 주연의 영화로 제작되어 개봉을 앞두고 있다.
- 지금까지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가 최근 대만에서 발견되어 제 1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40여년만에 공개되는 영화 '열녀문'의 감독.
- 건축물의 윗부분이 반원형으로 된 구조.
- 국가나 사회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에 복무한 사람에게 해마다 주는 돈.

가로문제

- 오케스트라의 악장이 연주하는 악기.
-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 밝음과 어두움. 회화에서 색의 농담이나 밝기의 정도를 이르는 말.
- 자연을 하나의 색채현상으로 보고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미묘한 변화속에서 자연을 묘사한 화가들의 유파. 모네, 마네, 세잔 등 대표적 화가들의 작품이 12월 10일까지 부산박물관에서 전시된다.
- 유교 경전인 사서(四書)의 하나.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언행을 적은 것으로, 공자 사상의 중심이 되는 효제(孝悌)와 충서(忠恕), 인(仁)의 도(道)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하나님이 시나이 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고 하는 열 가지 계율.
-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을 기리는 음악제가 매년 2월 그의 고향인 이 곳에서 열린다.
- 식품의 영양가를 열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단위.
-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

지난호 정답

부	산	비	엔	날	레	봉	준	호
다	자	보	고	래				
페	루	말	러	산	리			
스	모	와	사	등	스	콜		
트	노	동	요	대	취	타		
		드		로	워			
오	로	라	테	스	즈	문		
돌	마	이	너	사				
또		글	발	레	리	노		
기	타	루	치	아	자	전		

- **큰집 식사권**
김현옥(동래구 칠산동) 박세황(서구 토성동 1가)
배소환(남구 문현동) 김영규(사하구 신평동)
김광현(서구 동대신동 1가) 이순옥(금정구 남산동)
김진옥(연제구 거제1동) 이현화(영도구 영선동 2가)
송상호(부산진구 가03동) 김영봉(북구 만덕1동)
- **산마루골터(구 돈방불패)**
- **가마골소극장 초대권**
이정숙(북구 화명동) 남정선(사상구 모라2동)
김홍주(사하구 장림1동) 김윤한(동래구 사직2동)
최문정(해운대구 우2동) 김현경(동구 범일6동)
백영경(사상구 덕포2동) 김혜리(수영구 광안1동)
노현희(부산진구 연지동) 노승환(금정구 장전1동)
- **동보서적 도서교환권**

그리움이 있는곳에 늘 고향이 있습니다

큰 집

예약. 051-245-3320
업무. 051-255-4547

◆ 예약시 담당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 더욱 성심껏 모시겠습니다.

산마루 골터

- **찜갈비**
- 삼계탕, 돌솥비빔밥
- 30초 완성 참숯판구이 삼겹

UN로터리 문화회관 영빈관 앞 **예약문의 : 611-4040**

날마다 연극축제가 열리는 곳
부산에는 **가마골소극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연극의 산실

가마골소극장

(051) 245-0042 www.kamagol.co.kr

부산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보서적 1층 안내에서
각종 공연 티켓을 편리하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동보서적

• 도서안내 : 803-8000 • 단체납품 : 804-6391
• www.dongbobooks.com

■ 보내실 곳/부산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에의 초대' 담당자 앞
(상품이 반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 10월 15일까지 보내주시시오.)



KOREA

부산문화회관

토요 상설무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 10월 14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낙동민속보존회'

1990년에 창립된 이래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낙동민속보존회는 제 26회, 27회 부산시 민속예술 경연대회 우수상과 개인 연기상, 제 4회 창원 전국대회 일반부 장려상, 제 1회 진해 전국대회 일반부 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프로그램

두들소리-타악기와 나팔, 목탁, 다듬이, 옛가위질이 조화를 이루며 태평소의 음률이 가슴 찢릿함을 느끼게 해줄 작품.

설장구-장구가락 중 오묘한 가락과 멋지고 힘찬 가락들을 모아 만든 故 여산 이용식류 설장구.

북놀이-영남지방의 힘차고 시원한 북가락과 신나는 동작들을 모아 만든 선반 북놀이.

삼도사물놀이-웃다리의 칠채가락과 굿거리, 자진모리의 화려한 장단과 짝쇠가 어우러지는 삼도지방을 대표하는 사물놀이.

영남사물놀이-영남지방을 대표하는 투박하고 격하면서 호흡이 빠르고 남성적으로 무뚝뚝하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하면서도 빠르게 특징.

타천-구름, 비, 바람, 천둥소리를 연상화하고 말발굽소리를 내면서 북가락의 진묘를 느낄 수 있는 작품.

● 10월 21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 색소폰 콰이어 연주회'

아름다운 색소폰 선율을 이곳에 전하고 봉사하기 위해 색소폰 전공자와 색소폰을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만든 부산 색소폰 콰이어 연주회.

프로그램

Glenn miller's medley,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Fly me to the moon(Arr. 차유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OST-Tonight(Arr. 차유진), 사랑의 인사, Sing Sing Sing, Oh, lady be good

Mission impossible, 대관식 행진곡, 천국과 지옥, Yesterday once more

- 지휘/이천우
- 연주/조용석, 맹재빈, 전미숙, 김동찬, 이동훈, 신상문(A,Sax), 김태훈, 권용후, 김상미(S,Sax)
이재운, 박정우, 정봉욱(T,Sax), 이성관(B,Sax), 김정우(Drum), 차유진(Acoustic Bass)
- 협연/조경희(양산시립합창단 단원)
- 피아노/임지영

● 10월 28일 오후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연주회'

해령(집박/유경조 · 소금/김영민 · 대금/강영진, 엄익준, 황두호 · 피리: 김용우, 최성교, 권미정 · 해금/조남순, 정수경, 윤해승 · 아쟁/홍영혜 · 장구/이장우 · 좌고/송강수)

해금중주 '적념'(해금/최윤정 · 신디/백규진)

시나위(대금/채수만 · 피리/박순자 · 해금/하지행 · 아쟁/최희정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 징/전학수)

흥겨운 민요(민요/박성희, 정선희 · 대금/채수만 · 피리/박순자 · 해금: 하지행 · 아쟁/최희정 · 가야금/송영남 · 거문고/강상호 · 장구/신문범)

사물놀이(꽝과리/이주현 · 장구/최오성 · 징/전학수 · 북/신문범)

- 해설/백규진

· 입장권 : 무료(7세 이하 어린이는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 문 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9월 정기회원 테마여행을 다녀와서

향긋한 허브향내 가득한 냉천 허브힐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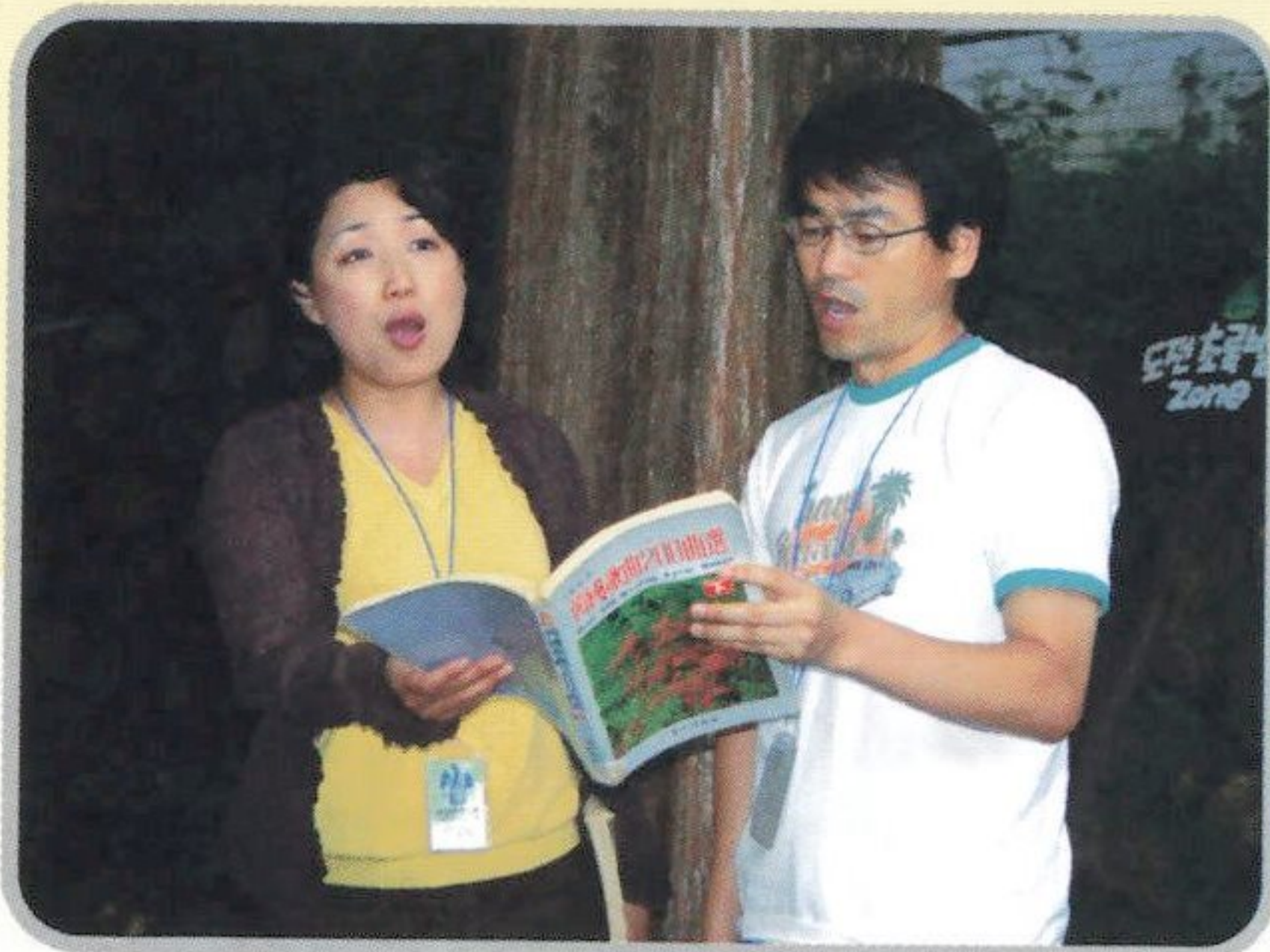
9월 8일,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잔뜩 찌푸린 날씨, 9월의 테마여행지 냉천 허브힐즈로 출발했다.

떠난다는 즐거움에 뜰떠 있는 일행들에게 날씨는 큰 문제가 아니다. 허브힐즈는 부산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데다 초행길이라 일행들의 기대는 더욱 컸다.

2시간만에 도착한 허브힐즈. 향긋한 허브 나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회원들의 탄성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날의 첫 일정은 허브 압화체험. 곱게 말린 색색깔 꽃들을 눌러 그림을 만들고 액자로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처음해보는 어르신들부터 최연소 참가자인 4살배기 지혜까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허브 액자를 만들어냈다.

압화체험 후 싱싱함이 살아있는 풍성한 허브 밥상으로 점심을 먹은 뒤 숲속학교로 향했다. 숲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던 숲과 숲의 또 다른 생명을 관찰하고 자연을 배우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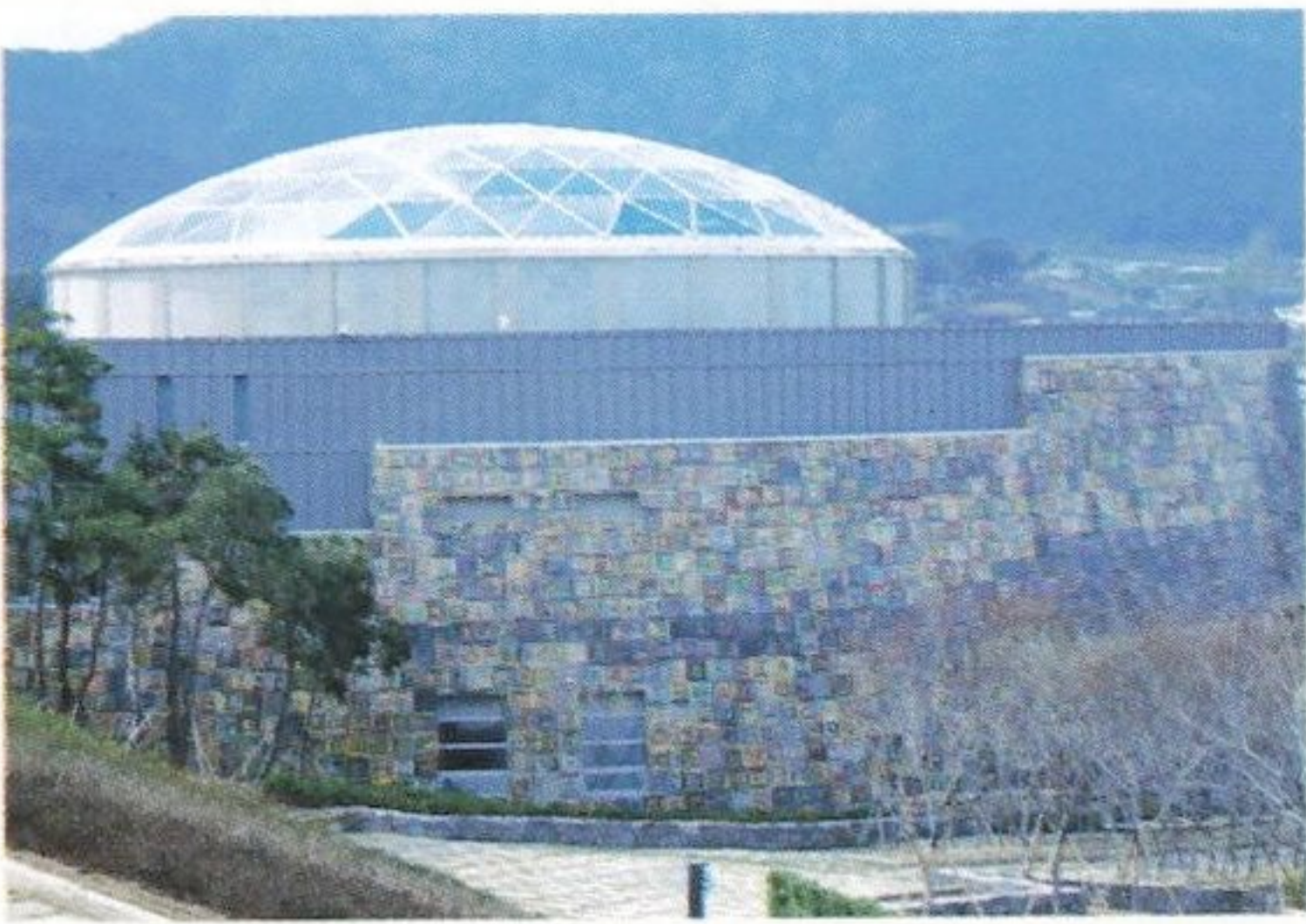
숲속 체험학교에 이어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 '숲속음악회'가 이어졌다. 시립합창단 단원 테너 김진영, 소프라노 이정란과 함께 한 '숲속음악회' 레퍼토리는 아름다운 우리 가곡. 평소 듣고 싶었던 우리 가곡 들 국화, 이별의 노래 등이 허브힐즈에 울려 퍼졌다. 향긋한 허브향에 취하고 노래에 취한 아름다운 순간, 떠나온 도시의 근심이 모두 사라졌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일탈을 꿈꾸는 여러분에게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 11월 10일(금)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및 단감따기 체험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을 견학하고 11월 수확물인 단감따기 및 떡매치기, 전통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

- 09:0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30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관람
- 12:30 무척산관광농원 도착(중식)
- 13:00 떡매치기 및 단감 수확체험 외
- 15:30 무척산관광농원 출발
- (※ 체험비 10,000원)



▶ 12월 8일(금) 우포늪 철새탐조 및 장승(숫대)만들기

창녕 우포늪에서 겨울철새를 관찰하고 나무조각으로 장승을 만들어 보는 체험.

- 08:30 부산문화회관 출발
- 10:00 창녕 우포생태학습원 도착
- 시청각 교육 및 장승(숫대)만들기
- 13:00 우포늪 철새 탐조
- 15:00 창녕 출발
- (※ 체험비 10,000원)

※ 테마여행 체험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10월 당첨자

▶ 10월 13일(금) 경주문화와 탁본체험



■ 신규가입 당첨자 명단(10명)

송진순(금정구 구서2동)
진금도(남구 대연3동)
김은화(남구 대연1동)
오세찬(동래구 온천3동)
김정학(사상구 모라3동)
이수급(해운대구 우동)
홍성호(남구 용당동)
이제희(동구 범일6동)
이청자(연제구 연산4동)
유재선(중구 보수동1가)

■ 기존가입 당첨자(엽서) 명단(10명)

최자경(해운대구 좌동)
이정숙(북구 화명동)
장귀하(해운대구 우동)
박창선(남구 용호4동)
임영진(동구 수정2동)
정창숙(연제구 연산9동)
서명문(사하구 다대1동)
김순배(중구 대청동1가)
이정숙(북구 화명동)
이선애(북구 주례1동)

•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방콕 / 파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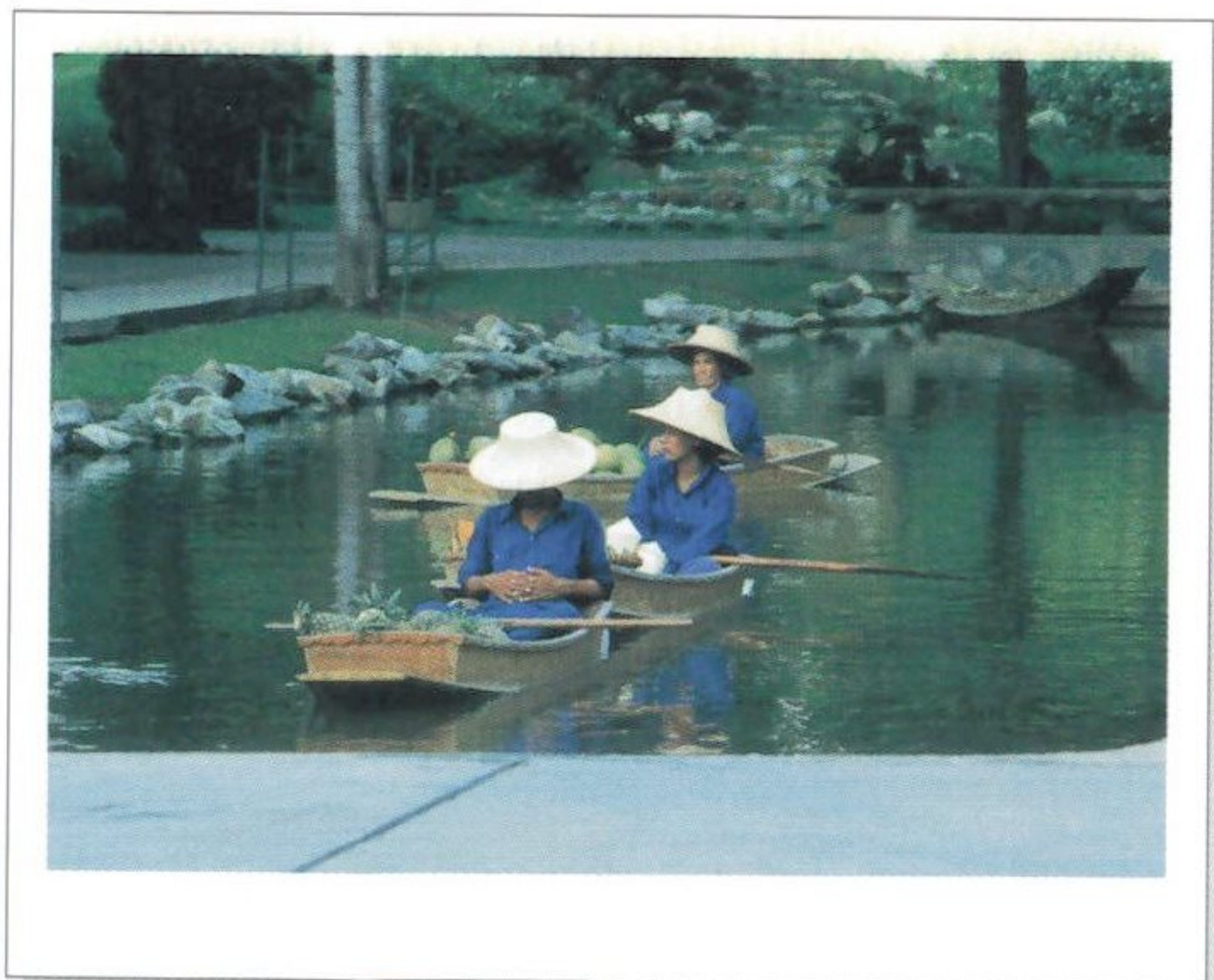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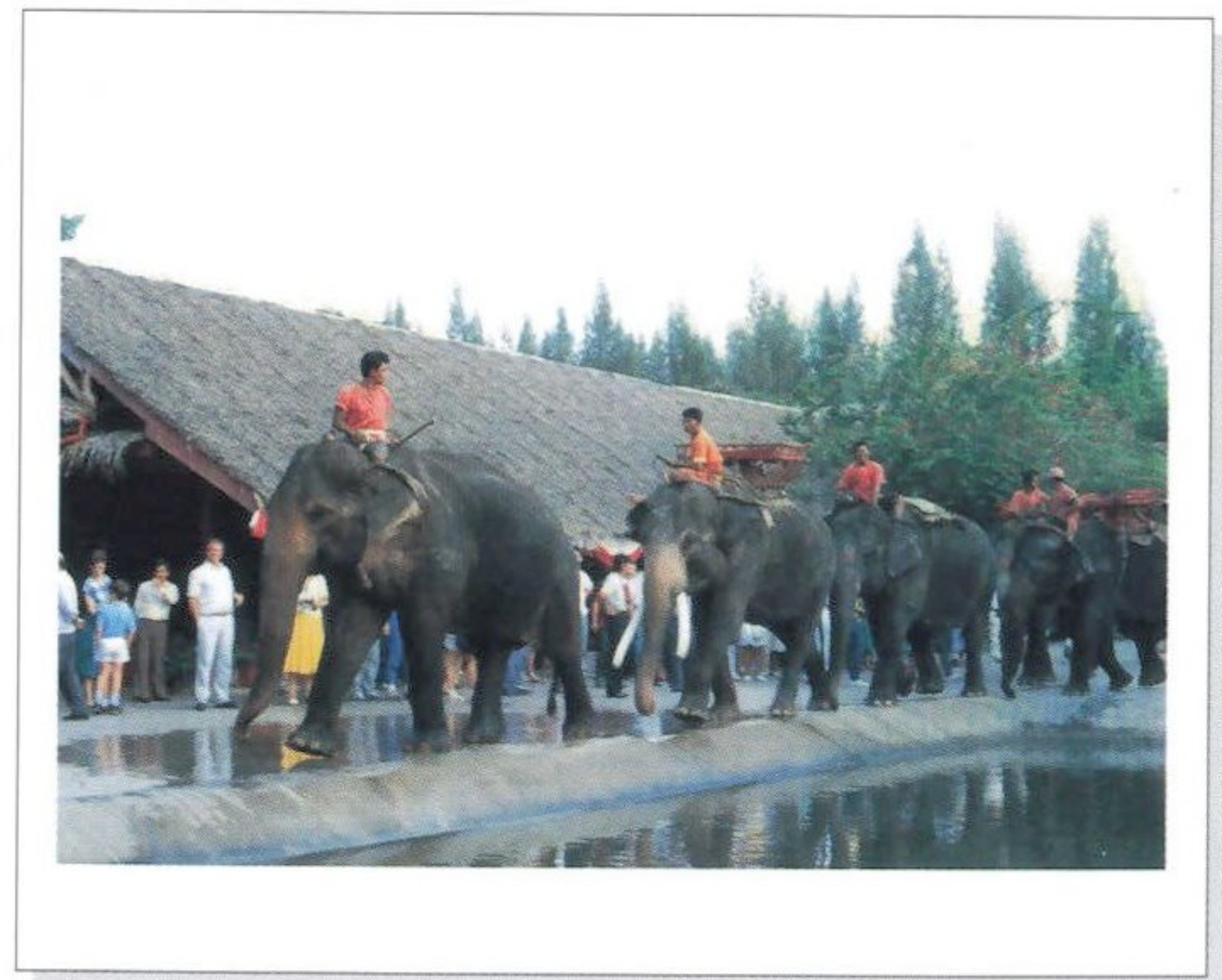
출발일자별 10명 한정

방콕/파타야 5일 ₩47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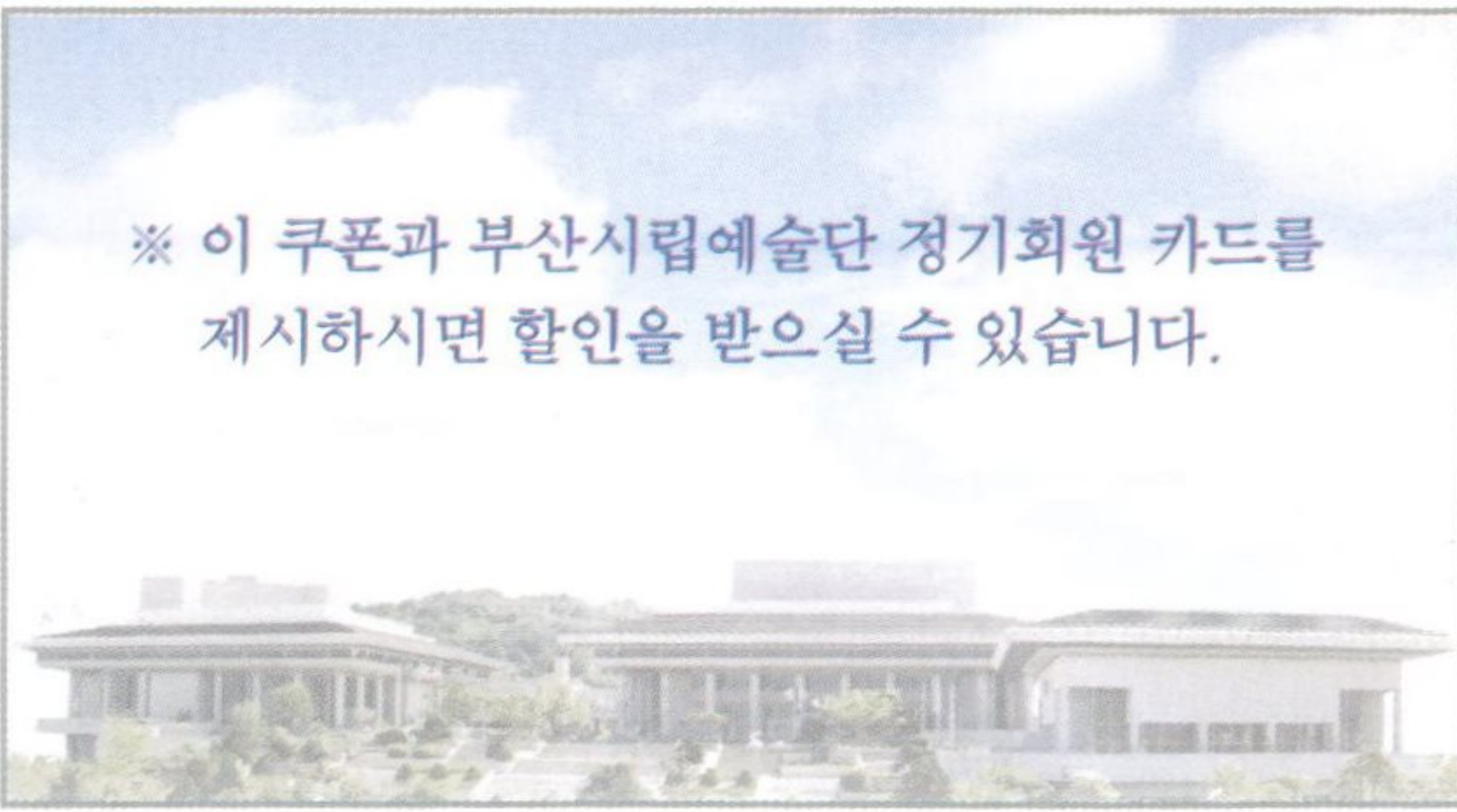
특전 항공, 각종TAX, 기사,가이드TIP, 특급호텔3박, 알카자쇼, 미니시암, 수끼, 씨푸드, 코끼리트래킹, 전통안마 1시간

화요일 출발상품 20:00 출발 / 07:30 도착(3박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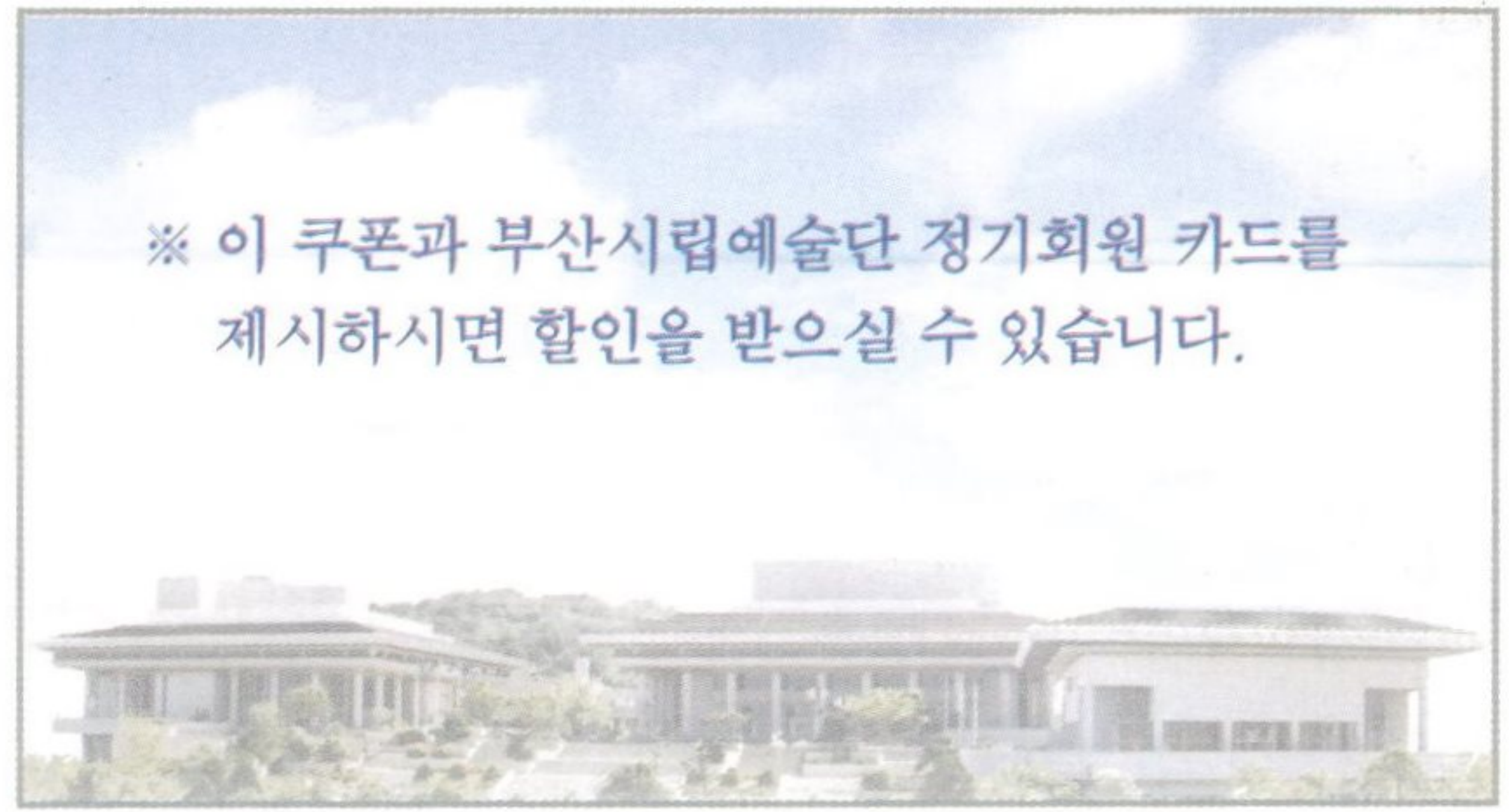
목, 토요일 출발상품 09:00 출발 / 18:30 도착(3박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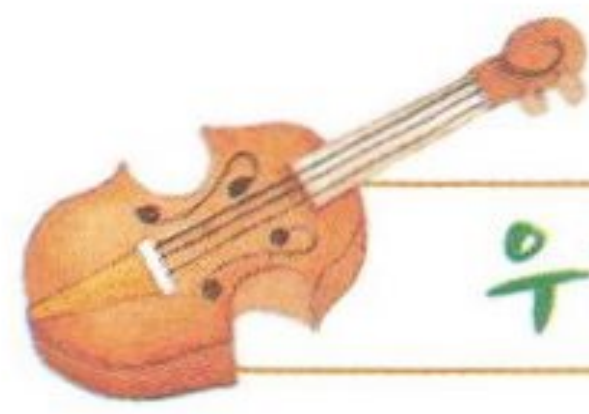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공연장 신사, 숙녀

- ◇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좌석번호를 확인하여 앉습니다.
- ◇ 공연 중에 지정좌석을 찾으실 때는 뒤에서 기다리거나 빈 좌석에 앉아 있다가 한 곡이 끝나면 조용히 자리를 찾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발소리, 기침소리, 부스럭대는 소리, 수근거리는 소리까지도 옆사람에게 방해가 되니 조심합니다.
- ◇ 공연장내에서는 신발을 벗거나 무릎 위에 발을 올리지 않습니다.
- ◇ 남의 앞을 지날 때는 몸을 숙여 남의 시선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 연주중에는 들락날락하거나 뛰어 다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 ◇ 옷차림은 가능한 정장이나, 암전한 복장을 합니다.
- ◇ 껌을 씹거나, 음료수·음식물 등을 반입하여 드시면 안됩니다.
- ◇ 휴대폰, 호출기 등 소리나는 물건은 반드시 전원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고 입장합니다.
- ◇ 공연시작 5분전까지는 입장하여 자리에 앉습니다.
- ◇ 냄새나는 음식을 드셨을 때는 옆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입을 씻고 입장합니다.
- ◇ 7세이하의 어린이는 공연장내에 동반하지 않습니다.(공연장 3층 어린이 놀이방 활용)
- ◇ 화환이나 꽃다발은 입장시 로비에 보관하셨다가 공연후 증정하도록 합니다.
- ◇ 앵콜 연주까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어서거나 나가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연장내 휴지나 인쇄물(프로그램, 좌석권 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 ◇ 공연장내에서의 사진 촬영은 연주자의 연주에 방해가 되므로 삼가야 합니다.




상속개는
별난 물건 박물관

10% 할인권

(1매 4인 사용가능)

대상 : 할인쿠폰 소지자 또는 예술단 정기회원카드 제시자
기간 : 12월 31일까지

해운대 스펀지 3층 TEL: 051-740-4858



Since 1981 - 에스프레소 커피전문점 · 퓨전레스토랑

philharmony

식사 · Wine · Beer · 차를 함께 즐기는
편안한 문화 사랑방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 628-2592

시민의 문화수준은 공연장 관람 질서에서 알 수 있습니다



수준높은 감상을 위한 우리의 마음

- ◇ 혼신의 힘으로 작품에 임하는 예술가의 열정과 관객들의 진지한 감상태도가 같이 만날 때 비로소 예술작품은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 ◇ 모처럼 공연장을 찾았다가 공연장 예의를 무시한 일부 관객들의 비문화적 태도로 감상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 아무리 좋은 작품이라도 올바르게 감상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 ◇ 숨소리마저 죽이고 예술가들의 작품을 경의의 마음으로 감상하는 자세, 이것이야말로 예술 작품을 함께 완성시켜 가는 성숙하고 수준높은 관객의 역할입니다.
- ◇ 부산문화회관은 이러한 공연장 예의를 지키며, 진정 예술을 이해하고 아끼고 사랑하려고 하는 분들을 가장 소중한 관객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고자 합니다.
- ◇ 부산문화회관이 품위있고 격조높은 세계적인 공연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음악회에서는 언제 박수를 쳐야 할까?

- ◇ 박수를 언제 쳐야 할 지 모른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 칠 때를 기다렸다가 박수를 쳐도 늦지 않습니다.
- ◇ 교향곡이나 협주곡 등 악장의 수가 3~4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은 모든 악장이 끝난 후에 박수를 치는 것이 좋습니다.
- ◇ 성악연주회의 경우는 한 작곡가의 곡이 모두 끝났을 때, 연주자가 3~4곡씩 묶어 부를 때는 다 들은 후 박수를 치면 됩니다.
- ◇ 오페라 공연의 경우에는 막이 내릴 때 치면 되고, 곡이 진행중에도 그 오페라의 대표적인 아리아나 혹은 유명한 아리아를 열창하고 나면 환호의 박수를 보내는 것이 예의입니다.(단, 오케스트라의 후주가 끝난후에)
- ◇ 레퀴엠(진혼곡)은 연주가 끝나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추모의 뜻으로)
- ◇ 앵콜곡을 듣고 싶을 때는 지휘자 또는 연주자가 연주를 다 마치고 인사할 때 박수와 브라보라는 말로 요청합니다.(휘파람이나 고함소리를 내지 않는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쿠폰과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 _____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4동 848-4번지

부산문화회관 홍보부

예술예초대 담당자 앞

-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회원에 가입하시면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권을 구입하는 번거로움 없이 전화로 공연 예약이 가능합니다.
- 부산시내 전 공연장의 정보와 문화예술계의 동향 등을 담은 '예술에의 초대' 월간지를 매달 무료로 발송해 드리며, 부산시립예술단에서 마련하는 모든 무료 공연에 최우선으로 초대합니다.
- 부산시내 각 공연장에서 열리는 외부 단체의 공연 입장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주최측과 협의된 공연에 한함).
- 부산문화회관과 시립예술단 특별기획공연 입장료를 20~50% 할인해 드립니다.
- 50명 이상 단체 가입시는 가입 총액의 10%가 할인되어 관람료가 더욱 저렴합니다.
- 청소년 푸른회원은 20%, 장애인(1~3급)·경로우대·국가유공자 사랑회원은 가입회비가 50% 할인되어 더욱 저렴합니다.

정기회원가입회비

VIP 회원 1년제 10회 관람 100,000원

일반회원 1년제 5회 관람 25,000원 10회 관람 45,000원

(청소년 푸른회원 20% 할인, 장애인·경로, 국가유공자 사랑회원 50% 할인)

■ 가입비 납입 은행계좌번호

부산은행 036-01-034846-1(예금주 : 부산문화회관)

■ 가입 및 공연 문의 :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부(607-6070)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iculture.busan.kr)에서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 교통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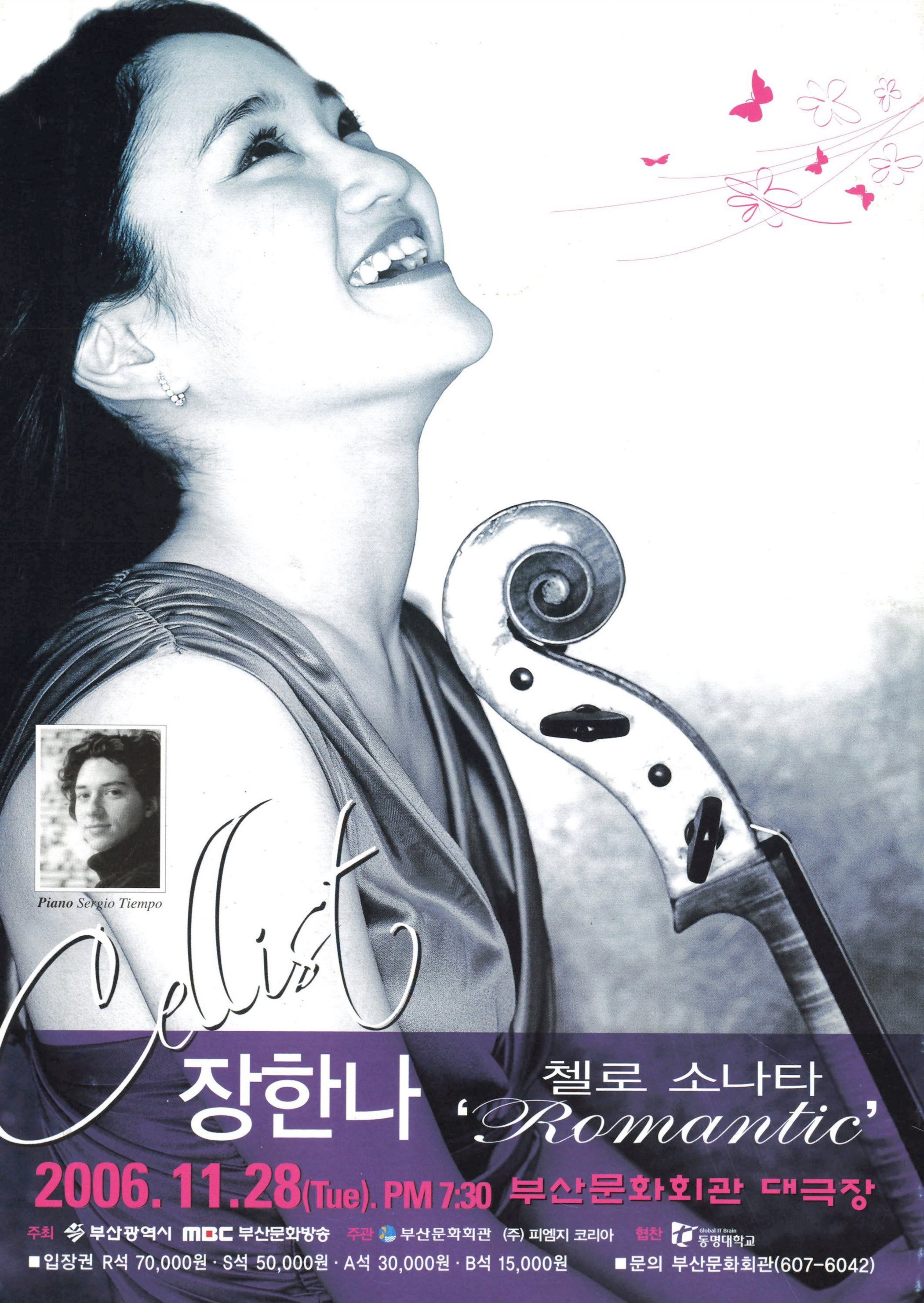
버 스 : 25, 51, 51-1, 68, 93, 134

지하철 : 대연동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도보 15분 거리

■ 셔틀버스운행

출 발 지 : 청심꽃조경 앞(대연지하철역 5번 출구에서 유엔로타리 방향으로 100m 지점)

출발시간 : 월~금요일 오후 7시(무료)



Piano Sergio Tiempo

장한나

첼로 소나타

'Romantic'

2006. 11. 28 (Tue). PM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MBC 부산문화방송

주관 부산문화회관 (주) 피엠지 코리아

협찬 동명대학교

■ 입장권 R석 7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 B석 15,000원

■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42)